현대불교

제 802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9월 22일 수요일 (음력 8월 15일 · 불기 2554년 · 주간)





종교계 '장기기증' 손잡다

불교 생명나눔 · 가톨릭 한마음 등 네트워크 결성

불교계와 가톨릭 등 장기이식 등록단체들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불교계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가톨릭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의료전문가 모임인 생명잇기(이사장 조원현)는 9월 11일 오후 1시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창립선포식을 개최했다.

일면 스님은 개회사에서 "장기기증 문화네트워크 창립에 힘입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 생활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큰 나눔이고 자비행이 된다"고 덧붙였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기기증 홍보단체로 상당한 홍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생명잇기는 의학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돼 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장기기증네트워크가 결성으로 그동안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홍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장기기증 홍보는 각 단체들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비체계적이며, 일관성이 부족하며,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홍보 콘텐츠의 부족으로 산발적이고 이벤트성 홍보활동에 치우쳐 있어 홍보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를 위해 장기기증네트워크는 출범과 동시에 각 단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콘텐츠와 홍보 아이템을 개발하고 장기기증 교육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기기증네트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별 장기기증 희망 안내실 설립 △초 · 중 · 고생을 상대로 장기기증 및 생명나눔 문화 교육 △장기기증의 날 제정 추진 등 장기기증 홍보 행사 △효율적인 장기기증 홍보를 위한 체계화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예정됐다.

한편, 창립선포식 후에는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희망걷기 대회가 열렸다. 장기기증네트워크 선포식은 2009년 9월 불교, 가톨릭, 생명잇기 단체의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으로 최초 모여, 11월 실무진이 모인 가운데 컨소시엄에 대한 논의, 2010년 1월 2010년 장기기증 및 이식 홍보사업 수행기관 공모, 3월 장기기증네트워크 준비회의, 4월 3개 기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장기기증네트워크 설립추진을 결정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세계인의 스승 지눌 스님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0월 7~8일 서울 법련사 대웅전에서 '보조국사 열반 8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 홍콩 · 중국 · 일본 등 국내외 학자 13명이 보조지눌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사진은 보물 제1639호로 지정된 동화사 소장 보조국사 지눌 진영. 관련기사 7면

'세계일화' 40개국 1000명 수행

무상사 창건 10주년… 선방 추가 건립 추진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많은 푸른 눈의 수행자를 배출한 숭산 스님(1927~2004)의 세계일화(世界一花) 뜻을 잇는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가 창건 10주년을 맞아 9월 12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송광사 원로 법흥 스님을 비롯해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 조계종 국제선센터 선원장 효담 스님,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설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는 근본이치를 인식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무상사 창건 10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 세계가 불미스러운 것, 평화롭지 못한 것, 인간세상의 갖가지 추악한 것은 결국 인간자신이 만든 법에 의한 것이며 인간 마음이 혼탁한 데서 오는 것이니, 마음을 깨달아 청정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중생이 가야할 최선의 방법이요 최종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무상사 명행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한국의 달마로 오로지 선불교 선양에 앞장섰던 스님의 제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도량에 모여 스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정진하는 모습은 참으로 장엄하다"며 "이곳 국제 선원에서 정진하는 대중은 숭산 대선사의 유지를 받들어 세계를 한 송이 꽃에 비유한 만공선사의 '세계일화'의 법지를 잇는 눈 밝은 선지식이 미래의 세계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은 "10년이 한순간이고 이 한순간은 영원함이어라. 앞뒤로 걸으매 동서남북 구분이 없네. 계룡의 할! 하늘과 땅을 흔들리우고, 계곡 아래 익어가는 벼는 머리를 낮추고 모든 생명을 살리네"라는 게송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기념법회에 이어 오후에는 계룡대 호국사 찬조문화공연, 전통타악연주단 '굿'의 북합주와 국악실내악단 '모리'의 국악연주 및 범주 스님의 달마도 시연 등이 진행됐다. 기념법회 전날인 11일에는 문사수법회 회주 한탑 스님이 세계 테러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를 봉행했다.

무상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2~3개월씩 안거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실시된 21회의 안거에는 40여 나라의 100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다.

현재 무상사는 한국인과 외국인 재가불자들의 입방 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선방과 요사채의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스님들의 생활시설을 확장하고, 숭산 스님을 기리는 기념탑 건립과 수행안내 서비스를 원활케 하기 위한 종무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14 15 선지식을 찾아서 혜담 스님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침에 <금강경>을 한 편 읽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부처님 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공덕을 내어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

추석특집 ····· 29~36면

29 차를 올리니 차례 30 한가위 '나눔' 현장 31 나눔의 삶
32 33 도법 스님 특강 34 달라이 라마 법회 35 36 동화

북한 수재민 돕기 불교계 나서

조계종 · 천태종 등 구호물품 보내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9월 13일 각각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서울 관문사에서 북한 수해돕기 긴급구호물품 상차식을 개최했다.

조계종은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 진행한 상차식에서는 조선불교도련맹에 지정기탁한 5000만원 상당의 담요 5000장과 라면 3만개가 트럭에 실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과 같은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과 교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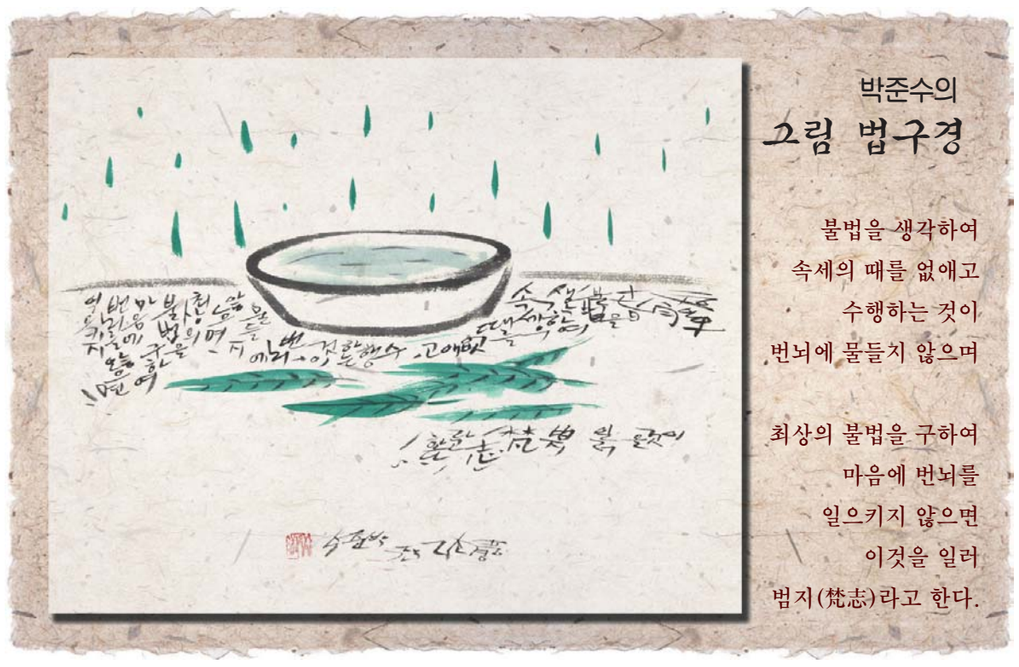
천태종은 북한에 보내는 1500만원 상당의 담요 1350장과 라면 1만 1000여 개를 조선불교도련맹에 지정기탁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우리 동포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자비 사상을 실천해야 마땅한 불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는 14일 아름다운동행에 북한 수해복구지원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조동섭 기자

알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번 호(802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36면으로 증면해 발행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편 물량이 폭주해 일부 지역의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박준수의 그림 법구경

불법을 생각하여
속세의 때를 없애고
수행하는 것이
번뇌에 물들치 않으며

최상의 불법을 구하여
마음에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을 일러
범지(梵志)라고 한다.

아! 나로부터 벗어나는 행복 자유 평화 상생 소통

단기출가, 삼매체험집중 4박5일 단식 · 참선

· 인 생 대 전 환 ·

몸에 배어 굳어버린 생활습관 체질전환, 단기출가로 해결하십시오

아가손을 붙잡아 일으키듯 다가가는 간화선체험

기적의 국민단식 · 다이어트1일 최고 3kg 요요현상제로

물만 마시고도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을 퇴치 ·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성 노화방지 해독 아토피 피부 미용 어드름 생리연장 금연 금주

10월 8일~12일 매월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청소년 대학생 일반

인 턴 사 원 모 집

-참선전문도량에서 수행 전법업무에 기여하고자하는 분-

一. 분 야 1. 기획, 관리직 : 0명 2. 아르바이트(대학생) : 0명

※ 산사(선도량)에 머물고자 하는 분으로, 선도량의 업무에 기여할 뜻이 있는 분(기획업무 유경험자 우대, 전법에 뜻이 있거나 수행업무를 익혀 기여하고자 하는 분), 연락바랍니다

활인선원 원명선원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사명대사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

밀양 표충사서 10월 9~10일 영산재 및 위령제 등

임진왜란 승병장 사명 대사(1544~1610)의 열반 400주기를 맞아 밀양 표충사에서 10월 9~10일 '나라구하기 사명성사(四溟聖師)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가 봉행된다.

10일 오전 9시 시작되는 공식추모행사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주관하는 다례제, 표충사가 주관하는 추모법회, 조계종 영산작법학교가 주관하는 영산재, 신시예술단이 주관하는 위령제, 전국 불교합창단이 나서는 합창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선 9일 오전부터는 사명 성사 백일장과 사명 성사의 선양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저녁에는 태진아, 현철, 현숙, 정수라, 최진희, 박현빈, 다비치, 샤이니 등이 출연하는 자비음악회가 개최된다.

8월부터 표충사 유물관과 전시장에서 열린 '사명성사 영정 및 유물 특별전'이 열리는 사명성사의 장삼과 가사 등 유물이 전시된다. 표충사 전시장과 밀양 밀리내 갤러리에서는 표충사 풍경 사진전도 열린다. 10월 8~10일에는 성인과 고교생 대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서울과 밀양 표충사에서는 각각 '사명성사 가르침의 현대적 의미와 계승 방안'과 '사명당 유정의 구국활동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학술행사가 열린다. 특히 열반 400주기를 맞아서는 사명성사가 전란 당시를 기록한 일지인 <송운대사분충서난록>이 해석 ·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표충사는 1744년 영조 임금의 왕명에 의해 서산 · 사명 · 기허 성사를 모시고 제향을 올려왔다. 매년 춘추(음력 3 · 9월) 봉행되는 전통다례는 올해 534회를 맞았다.

조동섭 기자


사명 대사 영정

▮ 사명대사는…

사명 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인물이다. 평양성을 탈환해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킨 것을 비롯해 울산성 전투, 예교 전투 등에서도 공을 세웠다.

조선인으로는 처음 서생포 왜성에 들어가 적장 가토 기요마사와 3차례 회담을 했다. 이를 통해 명일조약(조선분할정책)을 무의화시키고 재침략 계획(정유재란)을 알아내 선조 임금에게 상소했다.

이후 1604년 탐적사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정황을 살피고 조선인 송환을 이끌어 내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조동섭 기자

전통사찰 방재예측 시스템 구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실측 · 기록하는 정책돼야 디자인 고려해 전기시스템 노출

2005년 불길에 휩싸여 숯덩이가 돼버린 낙산사를 바라보는 이들의 심정은 참담했다. 2008년에는 남대문이, 2009년에는 향일암이 불탔다. 많은 이들이 참담함과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화재 이후 복원된 낙산사에는 새로운 방재 시스템이 들어섰다. 홍예문에서부터 후문에 이르는 경내 산책로 곳곳에는 화재 발생 시 있을 수 있는 불꽃과 연기, 온도, 습도 등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통제센터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센서가 설치됐다. 원통보전 주변에는 산불이 건물에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30m 높이의 물을 뿜어 불길을 차단하는 분수와 같은 시설인 수막시스템이 설치됐다. 원통보전, 보타전, 해수관음전 등 모든 건물에는 소화기와 함께 CCTV와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등 첨단 장비가 갖춰졌다. 해수관음상 주변에는 360도 회전되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화재를 감시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내에는 소방차 1대가 상시 배치됐다. 야간에는 순찰요원 3명이 경내 곳곳을 살핀다. 또, 속초소방서와는 주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방재 예측 시스템이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효탄)는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통사찰 방재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화부장 효탄 스님이 '전통사찰 방재 예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 했다. 엄승용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은 주제발표 '전통사찰 및 사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방재 정책의 지속성을, 윤명오 한국화재소방학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전통사찰 방재 예측 시스템 구축 방안'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전국 사찰에서는 6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에만 33건의 화재가 삼보정재를 불태웠다. 화재원인은 전기(254건, 40%)와 방화(244건 41%)가 대부분이었다. 조계종 문화부가 취합한 문화재 도난현황도 15년간 54건에 달했다.

참가자들은 화재와 도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려면 방재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효탄 스님은 "전통사찰 방재의 문제점은 화재 · 도난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 처리 방재 시스템에 있다"며 "사람에 의한 인재나, 전기화재로 인한 대책으로서 현재의 시스템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예측 · 예방적 방재 시스템은 사찰 관리자로 하여금 방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잇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전통사찰 방재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단의 방재 인식 강화 △정관계의 지속적인 관심 △방재 전문인력 양성 △방재 예측 시스템의 연구 개발 등을 제안했다.

엄승용 문화재정책국장은 "방재 대안이 수립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지켜져야 한다"며 소유자 및 관리자들의 안이한 의식을 질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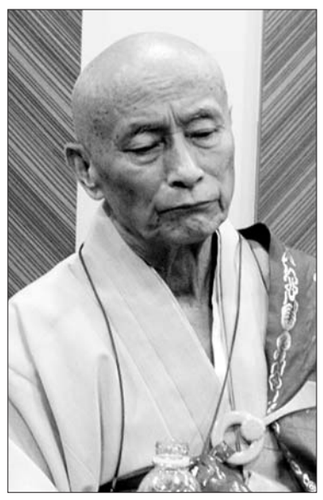
엄 국장은 "일선 사찰 중에는 사찰 관리자의 기기 숙지 미숙으로 오작동이 발생하고 심지어 경보기를 꺼놓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화재청은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효율적인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재 원형보존의 최우선 △문화재 보존환경 및 관람환경을 고려한 방재시스템 설치 △방범 · 경보설비의 특수화된 설비 등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불신임안 부결

종회의장 영우 스님 선출


9월 16일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린 태고종 임시중앙종회에서 생각에 잠긴 인공 스님.

태고종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부결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원봉)는 9월 16일 대전 스파피아호텔 동백홀에서 제103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총 53명의 종회의원 중 44명이 참석한 이날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인공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과 △총무원법 개정안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징계법 개정안을 다뤘다.

종회 개회에 앞서 종정 혜초 스님은 선시(宣示)를 통해 "총무원장에 대한 종도의 불신이 팽배해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총무원장 사퇴 요구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서면으로 동의했고 총무원장, 종회의장과 사정원장 등 3원장이 만나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종회에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종회에서 경륜을 발휘해 달라"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인공 스님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종단 부채 문제와 관련한 문제 해결 후에는 용퇴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봉은사 연지원(납골당) 공사 대금과 관련한 부채문제와 제도개혁 연기, 2010영산재대회 행사비용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인공 스님은 이날 "운산 스님이 '2010년 3월 경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 천중사를 처분해서라도 종단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세차례 연기 요청이 들어와 최종 10월 30일까지 부채를 해결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어줬다,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민 · 형사 사건으로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 스님은 "종단 제도개혁은 반대가 아닌 시간을 갖자는 것이고, 신도회가 지불하지 못한 2010영산재 행사비와 관련해 행사업체들이 종단에 제기한 소송은 종단에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판단 하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불신임안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돼 찬성 32, 반대 12로 부결됐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종회 재적인원의 2/3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인공 스님은 부결 직후 "3원장이 함께 협의를 해서 종도들이 실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종회는 △부원장 2명에서 1명으로 정수 제한, 실장제 폐지, 총무원 부서 5개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총무원법 개정안 △현행 종회의원에게만 부여하는 선거권을 지방종회에서 선출된 총무원장 선거인단까지 확대하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징계법 개정안을 자구 수정을 전제로 통과시켰다. 자구 수정 및 세부시행령 등은 12월경 개최 예정인 차기 종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종회의장 원봉 스님은 건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종회의장에는 수석부의장인 영우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노덕현 기자

"대중의 뜻이 아니다"

대책위, 백양사 대중 명의 성명서 소동 진화

백양사가 대중 명의의 입장 · 성명서를 통해 법규위원회에 고불총림 자동해제건을 심판 청구한 의연 · 무공 스님 측을 강하게 비판하자, 고불총림 수호 대책위원회가 "대중의 뜻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백양사(주지 시몽)는 9월 14일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불총림 지정과 총림 자동해제 심판청구 관련한 본종법규위원회 경위 및 백양사의 입장'과 '고불총림 자동해제 심판청구에 관련한 일부 승려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불총림 수호 대책위원회(위원장 암도, 이하 대책위)는 같은 날 '백양사 기자회견에 대한 고불총림 수호 대책위원회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14일 백양사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은 주지 시몽 스님과 총무 보연 스님이 개인적 입장을 대중의 입장인 양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의정부교도소 방문

"세상을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소자분들은 여기 계시는 동안 사회 나가서 떳떳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수양을 닦아 주십시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9월 1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소장 서병석)를 찾아 교정인 불자들과 재소자들을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산중 민족문화 큰장터

팔공산 승시 僧市

www.dgbbs.co.kr

기 간 | 2010. 10. 1(금) ▶ 10. 3(일) 오전11시~오후9시30분

장 소 | 팔공산 동화사 옆 야외자동차 극장

팔공산 승시(僧市)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님들이 물물교환을 위해 열었다고 전해 내려오는 승시!

처음으로 재연하는 이 승시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팔공산 동화사 옆 씨네80자동차 극장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사찰이 간직해온 60여가지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최 대구광역시 · 동화사

주관 BBS 대구불교방송 (053)427-5114

| 팔공산 승시(僧市)는 초조대장경 천년을 기념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

8. 승니(僧尼) 결혼 주장

방종과 민폐여서는 안 된다

요즘 가톨릭 쪽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핫이슈는 신부님들의 결혼문제이다. 가톨릭 성직자의 결혼문제가 논란의 주제가 된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보인다. 빈번히 발생하는 성직자의 성추행 사건, 은처와 그 자식들의 문제, 성직 지원자의 급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성경에는 성문제에 있어 자유롭다. 가톨릭이 독신주의로 흐른 데는 4~5세기 당시 유행했던 신플라톤 철학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한다. 그 주요한 이론을 주장한 성직자가 오귀스탱 성인인데, 그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가 성생활과 결혼을 통해 유전한다고 주장하여 독신주의의 선구자가 됐다.

가톨릭 성추행 사건이 나올 때마다 여론은 성직자의 독신에서 비롯됨을 지적해 독신주의가 정착한 12세기부터 가톨릭 성직자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벨기에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가톨릭 성직자의 결혼지지율이 70%를 넘는다.

또한 성직자의 감춰진 아내들은 세상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이들 사이에서 생긴 아이들도 항상 남의 눈을 피해 숨어 살고 있다. 1996년에 음지에 놓여 있는 이들 신부 아내의 일부가 양지를 뜻하는 'Day Lights'라는 협회를 창립했다. 이들은 이 협회를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양성화하고 성직자들의 독신을 철폐하겠다는 두 가지 소망을 이루겠다고 나섰다.

독신으로 인한 성직자의 감소 추세를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1962~1965년 전세계에서 9만 여 사제들이 (프랑스 사제는 1만여 명) 결혼을 위해 사제직을 벗었다고 전한다.

뿐만 아니다. 사제직을 원하는 젊은이들도 점점 줄고 있다. 50년 전에는 프랑스에서 한 해에 1만여 명의 새로운 사도들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한 해 새로 사제직에 임명된 자의 수가 90명에 불과했다. 당연히 사제 수가 부족해 외국에서 사제를 수입해오는 이변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는 다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도 다분히 독신 때문이라고 여론에선 대답한다.

독신주의를 고집할 것인가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교리적인 면에서나 양성화 정도를 보면 독신을 고집하는 대한불교 조계종보다는 유연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전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는 1993년 7월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독신이 성직에 있어 핵심은 아니다. 독신을 예수께서 얘기한 법처럼 공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는 교인의 육체적 성생활을 장려하기도 했다.

가톨릭은 이제 성직자의 독신문제가 공론화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현재 교황의 보수적 성향으로 보아 당장은 힘들더라도 독신주의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다시 음성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만해 스님은 독신주의인 조계종에서 그 보살행과는 무관하게 많이도 소외된 스님이다. 그 이유는 승니의 결혼 허용 주장 때문이고, 실제 만해 스님은 결혼을 하고 자식도 뒀다.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승니의 결혼 주장'을 한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필자는 이것을 '조선불교유신론에 나타난 만해의 계율관'에서 지적한 바 있다.



만해 스님의 진영.

선가의 심계는 허명이니 걸림 없는 것
<禪家> <心戒>
출가자 감소 따른 대안 말할 때 됐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다시 생각해야 할 지적들도 있다. 앞에서 말한 가톨릭의 문제가 조계종의 문제와 전혀 무관한가에 대해 성찰하고 그 대안을 말할 때는 아닌지, 아니 유지 발전을 위해 시급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은 승니의 결혼 이유를 네 가지로 들었다. 첫째로 유교적 가정윤리인 자손이 없어 제사를 모시지 못함으로 조상들께 불효를 저지름이다. 둘째, 식민제국주의 시대에 인구는 국가 부강에 주요 자원이므로 불충을 저지름이라는 것. 셋째, 승려들이 결혼 때문에 속퇴하는 숫자가 날로 증가해 불교 유지와 포교에 심각할 정도라는 점을 들었다. 넷째로는 식욕과 색욕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금욕만을 강조해 어떻게 대중교화를 할 수 있겠는가가 이유였다.

현재 사회에서는 다산을 적극적 권장하고 있다. '아이낳기운동본부'도 생겼다. 출가자의 감소도 문제이지만 사회 · 경제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한다. 현대의 추세는 금욕보다는 지나칠 정도라 할 속도로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

만해 스님은 비구 · 비구니 모두가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각자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만해 스님의 승니 결혼 주장을 현대에 적용시키자면 수행을 겸비한 재가자의 역할은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신수행자의 자급자족하는 사찰 수도원 공동체 또한 증가할 것이다.

만해 스님의 말씀대로 선가(禪家)의 심계(心戒)는 이름과 제도도 허명이어서 불살생계에도 걸림이 없는 것 아닌가. 방종과 민폐가 아닌 활발발한 대자유인의 자비와 사랑에 경계가 있겠는가!



종명 스님
공주 나눔명상원 원장

백담사와 만해기념관

백담사서 '유신론' '님의 침묵' 탄생

만해기념관 · 추모시비 · 흉상 등 만날 수 있어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는 8km이다. 가을이면 20리 백담계곡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바다를 이룬다. 굽이마다 펼쳐진 울긋불긋한 단풍 물결은 넘실대며 일렁이는 빛의 향연이다. 아니, 그것은 은빛 물결이 아닌 뜨거운 불길이다. 나무도 불타고 바위도 불타고 물도 불타고 산과 계곡이 붉게 물든다.

용대리에서 백담사로 오르는 마을버스를 타면 계곡의 한 굽이를 돌때마다 탄성이 절로 나온다. 단풍에 물든 원색의 파도가 함성을 지르듯 사방에서 몸서리친다. 기암괴석 사이의 계곡물은 졸졸 속삭이다가 큰 함성을 지르기를 반복하며 흘러내린다.

만해 스님은 신선이 살았을 법한 백담계곡의 개울들을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첨벙첨벙 걸어서 건너 백담사에 올랐으리라.

백담사는 만해 스님이 출가해 처음으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곳이다. 만해 스님은 이곳 백담사에서 일본강점기 불교계에 장군 죽비를 내리친 것과 같았던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했다. 한국문학사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님의 침묵>을 쓴 곳이기도 하다.

만해 스님은 겨레의 설움과 아픔을 다정다감한 시어로 어루만져준 민족시인이었다.

"사람은 많으나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니라. 의리를 저버리고 지조가 변한 사람은 의식 불구자요, 자주 정신을 망각하고 민족을 반역한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

만해 스님은 출가한 이듬해인 1905년 11월 백담사에서 연곡 화상으로부터 계를 받았다. 처음 출가 삭발하면 사미승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나이가 지긋했고, 경전 등을 두루 섭렵해 지식이 많았던 만해 스님은 비구계를 바로 수지할 수 있었다.

글 싣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종단 및 사찰운영
5. 신행
6. 교육
7. 계율
8. 승니의 결혼 주장
9. 소설-만해 스님
10. 만해와 오늘의 불교



백담사 경내의 만해기념관에는 오늘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뒤 스님은 외금강 신계사로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서진하 대사를 찾아가 교학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 오세암에 머물며 용맹정진했다.

백담사에서 1910년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한 스님은 통도사에서는 <불교대전>을 발간하고 명찰순례에 나섰다. 31본사 주지회의에 참석해서는 촌철살인의 기지로 변절한 주지스님들에게 준엄한 꾸짖음을 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똥입니다. 똥! 그런데 똥보다 더 더러운 건 무엇일까요?… 송장 썩는게 똥보다도 더 더럽더군요. 왜냐하면 똥 옆에선 음식을 먹을 수 있어도 송장 썩는 옆에선 도저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으니 무엇인지 아십니까?…그것은 바로 31본산 주지 네놈들이다!"

만해 스님은 일제에 정신을 팔아먹은 변절자들에게 추상같은 질타를 아끼지 않았다. 나라의 자주독립과 겨레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바쳤던 스님에게 돌아온 것은 가난과 고독, 핍박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영혼만은 영원불멸로 이어진다. 만해 스님의 부처요, 중생이었던 '님'에 의해서.

백담사 일주문에 들어서면 오른편에 만해기념관을 만날 수 있다. 기념관에는 <조선불교유신론> <님의 침묵> <불교대전> 등 만해 스님의 작품 원본 10여 권과 친필 등 100여 점의 유물이 전시 중이다. 만해 스님을 연구한 논문 작품 등 700여 점도 만날 수 있다.

기념관 언저리에는 1991년 6월 29일 만해 스님의 입적 47주기를 맞아 세워진 스님의 흉상과 시 '나룻배와 행인' '오도송'을 새긴 추모시비를 볼 수 있다.

만해 스님은 47세 되던 1925년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탈고했다. <조선불교유신론>이 백담사는 한국불교의 정신적 혁명의 사찰로 만들었다면, <님의 침묵>은 백담사를 가장 아름다운 서정적 사찰로 남게 했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만해 스님의 시 '님의 침묵'을 읊는 순간 누구나 시인이 된다.

백담계곡에는 백담사를 찾아 만해를 닮아 시인이 된 사람들의 소원이 탑으로 빼곡하다.

조동섭 기자

기현스님 사경수행 30년의 결실
沙門奇玄 寫經展
華嚴經 / 法華經書法展
※ 화엄경 · 법화경 전문을 사경으로 서예 작품화 하였습니다.
전시기간 _ 2010. 9. 29 水 ~ 10. 5 火
전시장소 _ 인사동 한국미술관 전관
초대일시 _ 2010. 9. 29 水 오후 4시
※ 문의 : 보타암 031-772-0108 / 연락처 010-5442-3838
※ 화환 · 화분은 전시장 사정으로 정중히 사양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2F
Tel. 02-720-1161~2
주최 · 주관 _ 기현영적전 추진위원회
후원 _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BBS 불교방송 BTN 불교TV 佛敎新聞 법화정사 홍원사 가보정

일 주 문



수덕사 추석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9월 21~23일 수덕사에서 추석맞이 특별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41)337-0173



제7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0월 15일 월정사 일대에서 제7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한다. (033)339-6915



통도사 나눔잔치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9월 29일~10월 1일 청류동 북까페 1주년 기념 나눔잔치를 개최한다. (055)382-7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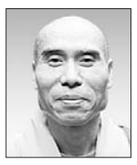
조계사 사찰 길라잡이 교육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0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4회에 걸쳐 '사찰 답사 길라잡이 강좌'를 개최한다. (02)720-0757



선운청소년음악놀이 경연대회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9월 26일 선운사 특설무대에서 제2회 선운 청소년음악놀이를 개최한다. (063)561-1422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포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9월 28일 서울 템플스테이센터에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한다. (02)723-5101



한식재단 요리강좌

선재 스님은 한식재단이 9월 28일 현대백화점 서울 무역센터점에서 개최하는 '서울 고메 2010 스타셰프 마스터클래스'에 초청강사로 나선다.



병불련 이주민근로자 의료봉사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장은 9월 12일 서대문 강북근로복지관에서 이주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공불련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하복동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10월 9일 양양 낙산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우리는선우 유마경 특강

성태용 우리는선우 대표는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9회에 걸쳐 '선수행자를 위한 유마경 특강'을 개최한다. (02)2278-8675

외국인학생과 함께하는 법회

東大 정각원 외국인 유학생 법회 개설 및 기념 법회

동국대가 개교 이래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법회를 개설한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은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불교를 전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 영어 법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어 법회는 9월 28일 오후 5시 정각원에서 시작된다. 다음날인 29일 오후 6시에는 영어법회가 열린다.

현재 동국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800여 명이 재학중이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전체 유학생 중 80%를 차지한다.

28일 열리는 첫 중국어 법회는 대만 불광산사 한국법당 주지 의은 스님이 초청법사로 참석해 대만불교 전통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은 스님은 '행복인생'을 주제로 재학생들에게 법문할 예정이다.

29일 시작되는 영어법회는 외국유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도 참석해 영어를 통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이날 법회에는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대진 스님이 초청법사로 참석해 '21세기 서구문명과 선불교'를 주제로 법문한다.



동국대 정각원은 개교이래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중국어 · 영어 법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작년 동국대 재학생 법회를 개설하면서부터 교정에 한국학생과 어울려 함께 공부하는 외국인에게도 한국불교의 법향을 전해주고 싶었다"며 "재학생 법회와 함께 진행될 중국어 · 영어 법회를 통해 재학생은 물론 외국유학생들을 상대로 건학이념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각원은 9월 18일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온 정각원의 토요법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섭 기자

초격 스님, 승가복지종책특보 위촉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9월 13일 승가복지담당 종책 특별보좌관에 초격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을 위촉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초격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승가복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주문했다.

초격 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1기로 취득했다. 현 등사 주지를 거쳐 중앙종회 의원 등을 맡고 있다. 이상언 기자

송림사 행복나눔 음악회 개최



팔공산 송림사(주지 혜성)는 '제1회 칠곡군민과 함께하는 송림사 행복나눔 음악회'를 9월 4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역 스님들과 장세호 칠곡군수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립국악단 연주 초청공연 및 인드라 스님의 플루트 연주, 무심스님의 찬불가요 등이 진행됐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승만보살 10대원 정신 200일 회향법회



승만보살의 10대원을 서원하며 수행정진에 들었던 불자들이 9월 12일 200일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여성불자로서 부처님의 사자후를 설하고 오늘날까지 경전으로 전승된 <승만경>을 널리 보급하고, 승만보살 10대원을 받아 수행정진에 들었던 불자들이 200일 회향을 맞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은 9월 12일 서울 법룡사에서 '승만보살 10대원 수행정진' 운동 200일 기념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회향법회에서는 고문 일법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법사로 나서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들을 격려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2월 25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승만경>을 널리 보급하고, 승만보살의 10대원을 받아 스스로 대승보살의 삶을 살고자 서원하는 불교여성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 연구회(회장 이인자)는 9월 30일~11월 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지운 스님(조계종 단일계단 교수사 · 자비선 수행 지도법사) 지도아래 승만경 강좌를 실시한다. (02)722-2101

이은정 기자

거룩한 만남 1000회 특집 공개방송 성황

지상파 방송에서는 최초의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인 BBS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진행 지현 스님)'이 방송 1000회를 맞았다.

불교방송은 9월 10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거룩한 만남' 1000회 특집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방송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내외 귀빈, 거룩한 만남 후원자와 수혜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윤옥 여사는 공개방송에서 "앞으로 2년 반 월급을 이 모임에 조금씩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며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거룩한 만남'은 1991년 4월5일 첫 방송을 시작해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불교방송의 대표적 이웃돕기 프로그램이다. 주간프로그램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방송 1000회를 맞는 거룩한 만남에서는 지금까지 소외된 이웃 1000여 세대에 60억 원 상당의 성금이 보내졌다.

이나은 기자

각성 스님 고운사 '증도가' 특강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8월 30일~9월 3일 경내 선체험관에서 각성 스님을 법사로 <증도가> 특강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고운사 대중스님과 지역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증도가>는 중국 당나라 때 영가현각 스님의 저술로 깨달음의 진리를 시로 표현한 글이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김종규 이사장 고운문화상 상금 전액 기부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이 최근 제21회 고운문화상 문화예술인상수상을 통해 받은 1000만원을 한국박물관협회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각각 500만원씩 기탁했다. 고운문화재단은 김 이사장이 문화계 원로로 박물관활동과 문화지킴이로서 공헌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운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2004년에도 일맥문화대상 수상금 2000만원 전액을 이라크 전쟁으로 파괴된 이라크 국립바그다드박물관에 기부해 한 · 이라크 우호협력관계증진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조동섭 기자

대구 달마정사 부처님점안 법회봉행

대승불교 태고종 총무원 달마정사(주지 혜송)는 8월 22일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후에는 지역 어르신의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053)471-9711

손법천 대구지사장

중국 광동 육조사 (부설)

관 혜능 국제불교대학 개강안내 관

본원에서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도제 양성과
불교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강함을 알려드립니다

특전 : 우수학생은 장학금 지급 및 중국 광동 육조사 강원과 선원에 유학할 수 있으며 특히 육조 혜능 대사의 법맥을 받을 수 있는 수계 법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본원의 학생이나 회원은 중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폴, 태국, 티벳, 일본 등 불교국가와 갖게 되는 각종 친선교류 행사에 동참할 수 있으며 세계선불교 육조선 회원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선불교 회원으로서 불교계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원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904번지 전화 033)766-2556 팩스 766-2557
■ 분 원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531-1호 전화 010-2878-3380

중국 광동 육조사 (부설) 혜능국제불교대학

개강일에 육조사 대원 방장님 참석 특강

■ 개강일시 : 2010년 9월 27일(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원주 혜능 국제불교대학 본원

學科	定員	日時	講義時間	教授
佛教科學	25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2시간	송위지 교수, 김방룡 교수(육조단경)
作法	25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시간	청암, 법붕, 종섭스님
佛像造成	25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5시간	불모 금봉스님
書畵	25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시간	청곡(이한동), 김일동(前승가대교수)
佛畵	25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시간	자비불교연구원 원장
陶藝	25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시간	혜오도예연구소, 오석경도예가
風水地理	25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시간	한국 풍수지리학회장
命理	25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시간	자인 박기정
觀相學	20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2시간	한국풍수지리학회장
相談心理學	20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시간	소용주 사과나무심기, 상담심리연구소소장
文藝創作學科	20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2시간	김창직(前경기대 교수), 문예사조 대표
巫俗學	20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2시간	한국민속예술연구원

감로사 성역화불사 본격 시동

충담 스님 열반 12주년

조국통일, 중생제도, 불교화합 등을 발원하며 소신공양한 충담 스님(前 태고종 승정)의 열반 12주년을 맞아,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 성지 가평 감로사 성역화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가평 감로사(주지 지성)는 9월 15일 "최근 감로사 성역불사 사업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감로사 성역불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감로사 성역불사는 충담 스님의 사리탑을 비롯해 미륵불상과 대웅전 · 극락보전(불교회관 아란야) · 칠성각 · 산신각 · 종각 · 감로수각 · 충담기념관 · 선방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장엄불사로 추진된다.

지성 스님은 성역불사 모연문을 통해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 정신을 이어받아 정진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소원성취, 국태민안, 평화통일, 조상천도 발원 1000일 기도 봉행과 아울러 충담 스님의 열반도량인 호명산 감로사 3000불 조성, 극락보전 건립 성역불사에 대원력을 세워 불자들과 함께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031)584-0117

조동섭 기자

스마트폰서 템플스테이 앱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어플리케이션 무료 배포

템플스테이 관련 정보들을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9월 14일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OS 및 바다OS 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삼성전자가 기술지원을 맡아 공동개발이 진행됐다.

어플리케이션에는 템플스테이 사찰 및 프로그램 소개, 지도서비스를 이용한 사찰 위치확인, 템플스테이 일정 검색 등 템플스테이 관련 정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목탁을 직접 쳐보는 듯한 가상체험, 그리고 최근 전신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108배 하는 법' 등이 담겨져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삼성전자 갤럭시S 등 안드로이드OS 기반의 스마트폰의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SKT T-store 웹페이지(www.tstore.co.kr), LG U+ OZ store (mobile.uplus.co.kr) 또는 삼성앱스(www.samsungapps.com)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조동섭 기자

국민일보 '중 법정' 표기 사과

개신교계 일간지 '국민일보'와 인터넷신문 '쿠키뉴스'가 보도에서 '중 법정'이라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으나, 담당기자의 사과로 마무리 됐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9월 13일 "국민일보 등이 9월 12, 13일자에 비흡연자의 폐암을 다룬 '그 비밀은 DNA'라는 보도에서 법정 스님을 거론하며 '중 법정'이라 표기했다"며 "'스님'이라는 일반 명칭까지도 쓰기 싫으면 '승려'라는 단어도 있는데 굳이 수행자를 비하하는 비속어 '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보리방송모니터회의 항의가 있자 기사를 작성한 국민일보 이모 기자는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는 사과문을 보리방송모니터회로 보내왔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이 기자의 사과는 일단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국민일보'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될 때에는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백제 능사 개원법회 "호국사찰 면모 새롭게"



능사 개원법회 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김종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등과 백제문화단지를 돌러보고 있다.

백제 불교문화의 백미로 꼽히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등이 발견됐던 능사가 1400년 만에 복원됐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 등 대전 · 충남 지역 불교계로 구성된 '백제능사 삼존불 점안식 및 개원대법회 추진위원회'는 9월 11일 부여 백제문화단지 내 능사에서 '백제능사 삼존불 점안식 및 개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9월 17일~10월 17일 열리는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백제불교문화를 오늘에 재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총무부장 영담 스님,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과 김종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박국진 백제문화권사업관리소장 등 2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1400여 년 만에 백제의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가람을 세운 것은 이 땅에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백제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이라며 "능사는 찬란한 대제국 백제 문화의 부흥과 민족의 번영을 기원하는 호국사찰로 그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진위원장 원혜 스님(마곡사 주지)은 봉행사를 통해 "백제 능사를 복원 개원하고 능사의 대도량에 삼존불을 봉안하는 것은 1400년 전 문화선진국이었던 백제의 혼과 생명을 되살리는 대작불사이다. 부처님 법에 귀의해 초일류 문화선진국을 발원했던 조상의 지극한 불심을 닮아가려는 정진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어려운 형편의 지역 어린이 2010명이 관람할 수 있도록 세계대백제전 어린이 입장권 을 충남도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달마사 장학금 2000만원 전달



사천 달마사 주지 해일 스님(오른쪽)이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천 달마사(주지 해일)는 9월 4일 경내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동광장학회장 한대식 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진주산업대 하병호군 등 중 · 고생 및 대학생 29명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주지 해일 스님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나눔의 기쁨을 생각하며 장학금을 모아준 신도들에게 감사한다"면서 "학생들은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서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100자 뉴스

조계종 포교원 신도증 발급 10만건 돌파

지난해 시작된 조계종의 새 신도증 발급이 10만 건을 돌파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9월 15일 10만 번째 새 신도증 등록자인 염용권 교수(동국대 산하협력단)와 10만1번째 등록자 정미애 불자(천안 각원사)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초청해 축하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새 신도증 발급 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10만 건을 돌파했다. 오늘 신도증을 받은 분들은 주위 불자들에게 더 많이 신도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동곡학원 돈관 스님 이사장 취임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이 영천 선화여고를 운영하는 종립 동곡학원 이사장에 취임했다.

동곡학원은 9월 9일 선화여고 교정에서 초대 이사장 돈관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포교원장 혜총 스님, 교구본사 · 말사 주지스님, 김관용 경북지사,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차제에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에서 지역의 명문사학인 선화여고를 운영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돈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화여고가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학생들이 큰 꿈을 펴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KCRP 김상곤 경기교육감 초청 강연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종교인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서 학내 종교자유의 의미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9월 28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의미와 종교인권'을 주제로 김상곤 교육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김 교육감의 기조강연에 이어 류상태 前 대광고 교목실장의 보조강연 '학교종교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한 제안' 순으로 진행된다. (02)2011-1928

조동섭 기자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작은쉼터' 개소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는 9월 9일 다문화 북 카페 '작은쉼터'를 개소했다.

'작은쉼터'는 김천시 지역의 이주여성들이 자국의 책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모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베트남, 중국,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등 6개국 교재 · 교구를 비치했다. 또, 각 국의 의상 및 장신구를 전시해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노인들은 봉사하는 세대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 연합세미나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은 9월 15일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덕양노인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정체성 확립과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하고 박상인 고양시 문화복지국장,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수석부회장, 임우석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정 교수는 이날 노인종합복지관의 미래 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주간보호 서비스 등 제공 △각 복지관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 △10년 이상된 복지관의 보수와 개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노인복지의 위상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의 노인들은 자신의 삶보다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 양육을 중요한 가치목표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신의 노후대책을 위한 재산축적이나 교육이 결여된 상태에서 노후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9월 15일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노인들이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함께하고 봉사하는 존재로 인식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교수는 이어 "이에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문제와 심리적 고독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노인 교양 · 취미생활 등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석 토론자들은 "노인들이 '받기만 하는 존재'로 비춰지는 데서 '함께 하고', '봉사하는 존재'로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00년 개관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15일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인생강좌 '아름다운 노인상', 6월 10일 전국 어르신 백일장 대회, 6월 10~11일 제6회 호수노인문화축제, 6월 15일 호수그린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삼일투명경영대상 장애인부문 대상 수상 승가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태원)이 9월 6일 용산 LS타워 TS 홀에서 진행된 제2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장애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삼일투명경영대상은 삼일회계법인과 삼일미래재단에서 비영리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시상하는 제도다.

승가원은 "지난 5월 서류를 제출하고 총 3번의 심사를 거쳤다. 법인의 이사회 개최 정보와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계획을 이해하고 그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승가원 법인사무국장 동옥 스님은 시상식에서 "앞으로도 승가원은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과 함께 더욱 전문성 갖춘 사회복지기관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BTN 추석특집 프로그램 풍성

나왕케촉의 토크&뮤직에서 뮤지컬 손오공까지 20~26일

불교TV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BTN의 추석특집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명상음악가 나왕 케촉의 삶과 음악을 들어보는 '티베트 명상음악가 나왕 케촉의 토크&뮤직', BTN불교TV의 인기 프로그램 인드라 스님의 '노래는 법향을 싣고' 공개방송, '정여 스님과 함께한 달라이라마 단독친견법회', '조선왕조 태교 콘서트 달콤한 하품', '뮤지컬 손오공' 등이다.

'티베트 명상음악가 나왕케촉의 토크&뮤직'은 티베트의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세계적인 명상 음악가 나왕 케촉에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의 의미를 듣고, 티베트 명상음악을 접하는 시간이다. 나왕 케촉은 11년 동안 승려생활을 하면서 달라이라마의 지도 아래 명상철학과 음악을 익혔으며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의 영화음악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편성시간: 20일(월) 21:50/ 23일(목) 14:00/ 25일(토) 11:20

인드라 스님의 '노래는 법향을 싣고'는 추석을 맞아 스튜디오를 벗어나 부산 홍법사를 찾았다. 편성시간: 21일(화) 11:20/ 24일(금) 14:30/ 26일(일) 9:30

'정여 스님과 함께 한 달라이라마 단독친견법회'는 지난 6월, BTN불교TV 성지순례단 주최로 달라이라마 일본 법회에 참석한 한국 불자들이 달라이라마와 단독 친견법회를 갖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냈다. 달라이라마의 감로수 같은 법문과 일본 사찰 및 생활 문화도 함께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과 함께 단독친견법회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편성시간: 20일(월) 21:00 / 22일(수) 8:35 / 24일(금) 9:20

'뮤지컬 손오공'은 아이들의 눈높이 맞춘 아동 뮤지컬로 서유기 스쿨의 게임에 중독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교장선생님 삼장법사의 이야기를 그린 시 · 공간을 초월한 판타지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편성시간: 20일(월) 15:20 / 23일(목) 12:00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사찰요리를 소개하는 시간 추석특집 '진미령의 맛있는 절밥'에서는 고운 색동옷을 입은 오색송편과 명절의 행복을 듬뿍 담아 만든 버섯야채 잡채를 사찰음식전문가 선재 스님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편성시간: 21일(화) 8:40 / 22일(수) 17:20 / 23일(목) 11:20 (02)3270-3353


티베트 명상음악가 나왕케촉의 토크&뮤직 中.

조동섭 기자

東大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의료봉사단 달라이 라마로부터 하사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9월 16일 교내 100주년기념관대강당에서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개최했다. 친견법회 후 동국대에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로 이운된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사리는 지난 8월 30일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료봉사단이 달라이라마로부터 하사받은 것이다.


9월 16일 부처님진신사리친견법회에서 (왼쪽부터) 정각원장 화랑 스님. 손동진 총장,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08년 7월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가졌다. 당시 달라이라마 존자는 불교의 국제적 교류 사업과 티벳장경 연구를 위한 지원금을 약속하고, 2009년 10월 20만 달러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보내왔다. 그 후,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09년 11월 티벳장경연구소를 설립하고 티벳 불교 관련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구립 불광노인복지센터 개관


구립 불광노인복지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43.78㎡규모의 건물이다. 1층에는 데이케어센터와 함께 은평구 지역내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있도록 이 · 미용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돼있다.

조계종 진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진관 무위원(대표이사 계호)은 9월 8일 '(은평)구립불광노인복지센터'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우영 은평구청장 기념사, 진관 무위원 대표이사 계호 스님 인사말, 이재오 특임장관 축사,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축사,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 테이프 컷팅, 현판식, 시설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계호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광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노인문화 발전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서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복리후생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4대 종교인 축구대회

종교간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성직자 축구대회가 9월 13일 과천 관문체육공원 축구경기장에서 개최됐다.

대회에는 불교 조계종을 비롯해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중앙종부에 근무하는 50여 명의 종교인이 경기에 참여했다. 이날 우승은 원불교가, 준우승은 개신교 대한예수교장로회팀이 차지했으며 3등은 천주교 성직자팀이 불교는 4등을 했다.

이날 '4대 종단 성직자 축구대회'에는 조계종 사회부 국장 묘장 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조규만 주교(서울교구 보좌주교), 권오성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원불교 김대선 교무(문화사회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제4회 文武大王해상용왕대제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 위령제)

일자	지역	교통편	일 정	일자	지역	교통편	일 정
1일째	부 산	부관훼리	제4회 해상 문무대왕 용왕대제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3일째	벳 부 우사신궁 시모노세키	전용버스	- 가마토 지옥. 유노하나. 우사신궁. 관문대교 관광 - 시모노세키 항 이동 및 승선(석식 공양 후) - 선내 레크레이션 및 자유시간
2일째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유후인 벳 부	전용버스	- 후쿠오카 태재부 천만궁 관광 - 난조인(41M 세계최대의 청동 와불상) 남장원 참배 및 관광 - 3대 온천수 및 긴린코 관광, 호텔휴식	4일째	부 산	부관훼리	- 선내 조식후 하선 및 입국수속 (부산항 아침 8시 도착)

◆ 일 자 : 2010. 10. 11 ~ 2010. 10. 14 (3박 4일)
◆ 코 스 : 〈부관훼리〉 후쿠오카, 유후인, 벳부 관광 ◆ 출 발 :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2층 17시 30분 집결
◆ 주 최 : 사)대일항쟁기 희생자 전국연합회 ◆ 주 관 : 종)한국불교재단 대제봉행 추진위원회 ☎ 011-801-8197 (사무국)
◆ 전 화 : 055)338-0050, 여권사본 팩스 055)328-2762, 02)722-4622
◆ 협 찬 : 재) 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불교 통합종단 협의회. 종)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전종도. 사) 한국청소년 보호육성회.

출발예정일	2010년 10월 11일 ~ 2010년 10월 14일	출발예정일	150 ~ 200여명 이상
단 체 명	大韓佛敎三寶曹界宗	상 품 원 가	₩ 499,000
포 함 사 항	크루즈, 항만세, 유류할증료, 여행자보험, 관광지입장료, 식사, 차량, 기사 & 가이드 팁 387		
주 최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01번지 서울재향군인회 빌딩 602호 02)766-9990 / FAX 02)722-4622		



깨침의 교당

국제승가대학 제3기 수강생모집

(교육과학부 김해대학 평생교육원)

◆ 학 과 : 불교철학
◆ 학 부 : 3부
일반부 - 1.2학기(주 · 야) 교육기간 : 1년
전문부 - 1.2학기(주 · 야) 자격반 교육기간 : 1년
승가부 - 1.2학기(주 · 야) 자격반 교육기간 : 1년
◆ 강 의 : 제 10 강 - 200 교시
◆ 학 비 : 전화문의
◆ 입학식 : 제 3기생 [2010년 9월 30일 (목) 주간 14시. 야간 19시]

- 목 차 -

1학기 ..... 불교학. 의식학. 심리학 특강
2학기 ..... 법회학. 경전학. 심리학 특강

※ 불교철학 교육 졸업증 수료 및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승가 불자여 !
승가대학 입학을 환영합니다.
수행 보리자여 우리함께 정진하여 풍요한 불교의 황금 알을 찾읍시다.

국 제 불 교 승 가 대 학

한국불교문화대학원

농 협 301-0026-704771 (예금주 불교문화 대학원)
학무처 ☎ 055) 338-0050 (학무담당 011-801-8197)

국내외 보조 연구가 네트워크 구성

<普照>

보조사상연구원, 10월 7~8일 보조 국사 열반 800주년 국제학술대회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은 한국불교학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이러한 학문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아직 세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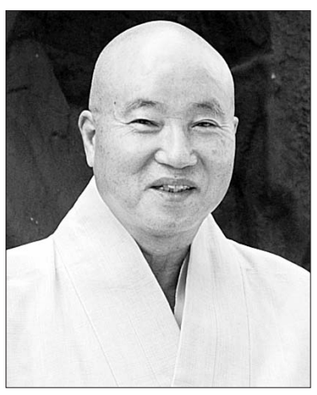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법산 스님(사진)은 9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조국사 열반 8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을 밝혔다.

법산 스님은 "한국불교가 세계 속에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특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나라의 불교와의 공통점과 보편성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조계종단의 종조인 보조국사 지눌의 삶과 사상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조사상연구원이 보조국사 열반 800주기를 맞이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지눌의 정혜결사(定慧結社)의 삶 △깨침과 닦음에 관한 돈오점수(頓悟漸修) △선과 교의 회통과 조화 △간화선 △계율 및 정토사상 등 한국불교의 특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법산 스님은 "보조국사 지눌은 원효와 더불어 한국 불교는 물론 동아시아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원효가 동아시아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철학적 초석을 다져놓았다면 지눌은 동아시아 불교에 선(禪)과 교(敎)의 회통적 철학체계를 완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스님은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은 한국불교학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스님의 생각에는 한국불교학계에서 불교에 관한 연구물 중 보조 지눌과 관련된 논문이 그 질과 양에 있어 단연 으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지눌의 저작들이 그만한 영향력과 가치가 있음을 대변해 1987년 보조사상연구원이 설립됐고 보조사상에 대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됐다.



이때 나온 보조사상연구원의 학술 발표물 '지눌의 돈오점수와 성철의 돈오돈수의 논쟁' '<진심직설>의 저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논쟁' 등은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기도 했다.

법산 스님은 "이처럼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에 대해 관심과 연구가 끊이지 않는데 세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간 학문적 교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학자간 교류를 통한 학문적 활동 영역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산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보조사상 연구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상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연구자들 대부분은 보조사상연구원과 직 ·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대부분의 자료들이 있으나 국외 연구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를 통해 보조사상연구원은 국내는 물론 국외 연구자들의 연구방향 및 인적사항 등을 새롭게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학자들 간의 교류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산 스님은 "보조의 사상이란 곧 한국 조계종단, 나아가 한국불교의 행동방침이다. 그러므로 보조사상을 널리 알리는 것은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문화의 세계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학술대회는 10월 7~8일 서울 법련사 대웅전에서 '보조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열린다. 첫째 날에는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이 '한국불교의 전통과 보조 지눌 스님'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는다. 이어서 △강건기 교수(전북대)의 '오늘의 세계, 왜 보조사상인가?' △성원 스님(미국 하와이주립대 교수)의 '박한영(1870~1948)의 선 종파주의 비판'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보조추붕사기>에 대한 소고' △니시무라 에신 교수(일본 하나조노대)의 '지눌선의 사상적특수성과 그 현대적 의의' △요시즈 요시히데 교수(일본 고마자와대)의 '<화엄론절요>에 있어서 교판론의 의의' △신규탁 교수(연세대)의 '보조지눌에 대한 규봉종밀의 영향' 등이 발표된다.

둘째 날에는 △광싱 교수(홍콩대 불교학센터)의 '중국문화에서의 선불교의 영향'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 자연치유학과 교수)의 '간화선에 기반한 명상상담 일고찰' △정승석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의 '돈오점수와 진심식망(眞心息忘)의 요가 철학적 성격' △임승택 교수(경북대)의 '위빠사나에 비추어 본 보조지눌의 수행체계' 등이 발표된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지눌의 선사상' 한국 대표서

동아시아출판회의, 동아시아 대표 인문서 100권 선정

2009년 전주에서 열린 제9회 동아시아출판회의에서는 <지눌의 선사상>(소나무 刊)을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100권의 책(표)' 중 한국 부문의 책(총 26권)으로 선정했다.

한국 비교종교학의 권위자인 길희성 명예교수(서강대)가 저술한 <지눌의 선사상>은 보조국사 지눌의 삶과 불교 이론의 핵심을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짚고 있다.

길희성 교수는 지눌 선사를 한국불교사에서 세 명의 큰스님으로 꼽으면서, 그 스스로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승으로서의 면모도 함께 갖추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지눌 선사가 철저한 수행승이면서도 깊은 교학(敎學)적 학문적 소양을 갖춘 학승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길 교수는 오늘날 이따금 지성인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선불교의 불립문자(不立文字)적 태도와 달리 그의 선사상이 지니고 있는 합리적 성격을 잘 드러내 여전히 매력적임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길희성 교수는 지눌 선사가 당나라 종밀(宗密)의 관련 사상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종밀과는 달리 간화선 전통을 수용하고 한국에 간화선이 주류로 자리잡게 하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는 데서 그 기여를 뚜렷하게 규명해내고 있다.

길희성 교수는 또한 지눌 선사의 사상이 단순히 선교일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불교 내의 천태종과 정토종은 물론, 불교 밖의 유교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상이었음에도 주목했다.

한편 동아시아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는 동아시아를 대표할만한 인문서 100권에 대한 해제집 <동아시아 책의 사상 책의 힘>(한길사 刊)을 펴냈다.

<동아시아 책의 사상 책의 힘>에는 20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간행된 명저와 문제작 등을 해설하고 있다.



동아시아출판인회의는 중국 · 홍콩 · 대만 · 한국 · 일본의 3개국 5지역의 대표 출판인들이 동아시아의 서적교류촉진을 목적으로 결성한 민간비영리회의이다. 이 회의는 2005년 가을, 도쿄에서 열린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해왔다.

김언호 회장은 "동아시아출판인회의는 유구한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신적 전통을 공유하고, 갈등과 반목의 역사적 관계를 극복해 동아시아의 연대를 추구하는 한중일 주요 인문 출판사들이 펼치는 새로운 출판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한국〉
김구 〈백범일지〉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전상운 〈한국과학사〉
김두종 〈한국의학사〉
이기백 〈한국사신론〉
김원용 · 안휘준 〈한국미술의 역사〉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장사훈 〈한국음악사〉
김열규 〈한국인의 신화〉
김용운 · 김용국 〈한국수학사〉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길희성 〈지눌의 선사상〉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
윤사순 〈한국유학사상론〉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유동식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오주석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김동춘 〈전쟁과 사회〉
민두기 〈시간과의 경쟁〉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박희병 〈운화와 근대〉
김우창 〈풍경과 마음〉
김복영 〈눈과 정신〉

〈중국〉
주광첸 〈시론〉
량쓰청 〈중국건축사〉
취퉁주 〈중국법률과 중국사회〉
페이샤오퉁 〈향토중국〉
펑유란 〈중국철학간사〉
량수밍 〈중국문화요의〉
슝스리 〈원유〉
왕리 〈한어사고〉
탕융퉁 〈위진현학논고〉
젠보짠 편집 주관 〈중국사강요〉
리쩌허우 〈미의 역정〉
후성 〈아편전쟁에서 5 · 4운동까지〉
첸중수 〈담예록〉
쑤위안레이 〈불교와 중국전통문화〉
탄치샹 편집 주관 〈간명중국역사지도집〉
천쉬루 〈근대 중국사회의 신진대사〉
리쉐친 〈의고시대를 벗어나자〉
왕밍밍 〈촌락의 시야를 통해 본 문화와 권력〉
자오위안 〈명청 교체기의 사대부 연구〉
천인커 〈한류당집〉
왕후이 〈현대 중국사상의 흥기〉
우훙 〈의식 속의 미술〉
리링 〈전쟁은 속임수로 성공한다〉
장페이헝 · 뤄위밍 편집 〈중국문학사 신저〉
후안강 〈중국정치경제사론〉
천라이 〈동아시아 유학구론〉

〈대만〉
모종산 〈정치의 도와 통치의 도〉
원하이광 〈중국문화의 전망〉
슈후관 〈중국예술정신〉
예롱종 〈일제치하 대만 정치 · 사회운동사〉
리이위안 · 양고슈 편 〈중국인의 성격〉
탕쥔위 〈중화민족의 결실의 몰락을 논함〉
유윙시 〈역사와 사상〉
팡동메이 〈중국 철학의 정신과 그 발전〉
창광치 〈중국의 청동기 시대〉
린위성 〈사상과 인물〉
레이황 〈만력15년〉
창하오 〈유암 의식과 민주전통〉
초왕야오 〈대만역사도설〉
왕더웨이 〈세기에 걸친 풍채와 문재〉

〈홍콩〉

첸무 〈중국 역대 정치의 득과 실〉
두웨이밍 〈인성과 자아수양〉
장포취안 〈자유와 인권〉
뤄샹린 〈홍콩과 중서문화의 교류〉
허빙디 〈황토와 중국 농업의 기원〉
샤즈칭 〈중국현대소설사〉
선충원 〈중국고대복식연구〉
쑤빙치 〈중국문명기원신탐〉

〈일본〉
사토 신이치 〈남북조의 동란〉
마루야마 마사오 〈강의록〉
요시모토 다카아키 〈공동환상론〉
이시무레 미치코 〈고해정토〉
이시모타 다다시 〈일본의 고대국가〉
마쓰시타 게이이치 〈도시정책을 생각한다〉
히로마쓰와타루 〈세계의 공동주관적 존재구조〉
우자와 히로후미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야마구치 마사오 〈문화와 양의성〉
가와이 하야오 〈그림자의 현상학〉
우메사오 다다오 〈수렵과 유목의 세계〉
아미노 요시히코 〈무연 · 공계 · 악〉
사이고 노부쓰나 〈고전의 그림자〉
사타케 아키히로 〈만요슈 발초〉
쓰루미 순스케 〈전시기 일본의 정신사〉
후지타 쇼조 〈정신사적 고찰〉
마에다 아이 〈도시공간 속의 문학〉
나카이 히사오 〈분열병과 인류〉
이즈쓰 도시히코 〈의식과 본질〉
시라카와 시즈카 〈자통〉
니노미야히로유키 〈전체를보는눈과역사가들〉
다키 고지 〈천황의 초상〉
이타니 준이치로 〈자연의 자비〉
노마 필드 〈천황이 죽어가는 나라에서〉
이치무라 히로마사 〈작은 것의 제형태〉
하야시 다쓰오 〈정신사〉

이론의 '바라밀' 실천의 '보현행원'

불광연구원 11일 '광덕사상 학술연찬회'



김영진 교수



최원섭 상임연구원

불광사를 대표하는 표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마하반야바라밀'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이다. 이론적 측면은 '바라밀'을 바탕으로 하고, 실천의 측면에는 '보현행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바라밀과 보현행원은 불광사와 광덕스님을 상징하는 용어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9월 11일 불광사 교육원 강당에서 '보현행원의 길, 왕생극락의 길'을 주제로 제3차 광덕사상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섭 상임연구원(성철사상연구원)이 '광덕 스님의 보현행원 사상'을, 김영진 교수(인하대 한국학연구소)가 '반야바라밀 염송과 법신염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원섭 연구원은 <광덕 스님 전집> 제3권에 수록된 '보현행원품강의'를 중심으로 스님이 바라보는 보현행원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오늘날 불자들이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최 연구원은 "광덕 스님은 반야바라밀만큼이나 보현행원을 정확한 설명 속에 간곡하게 그 실천을 당부했다"며 "스님의 보현행원을 한 마디로 하자면 '부처님으로 살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광덕 스님은 보현행원은 불도를 이루겠다는 차원의 수행이 아니라 이미 깨달음을 얻은 자가 펼쳐내는 불행(佛行)차원의 행위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며 "관건은 오직하나다. 내가 부처임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영진 교수는 '바라밀염송과 법신염불'의 주제발표에서 "광덕 스님이 제시하는 바라밀염송은 염송의 대상이 부처님의 명호가 아니라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점에서 정토염불과 차이가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광덕 스님의 사상에 대해 "스님은 염불을 통해 사후에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가진 무한생명을 가작하고 바로 지금 이 공간을 긍정함으로써 보현행원의 실천으로 나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 전통의식 3기 수강생 모집

단기 속성 - 3개월 과정
(범음 범패 - 1년 과정)

불광불교대학에서는 예불, 불공, 천도재 등 각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을 교육하고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안내
- 입학자격 : 스님, 남 • 녀 재가 불자 및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사찰 및 포교원 개원 하실 분(종단 등록 가능), 수료 후 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분
  《초심자 및 재가 불자 환영》
- 개강일시 : **2010년 10월 6일(수요일) 오후 2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도동 불광불교대학

2. 교육내용
- ▶ 단기 속성(3개월)과정 : 도량석, 조석종성, 상단예불, 각단예불, 신중청, 관음청, 지장청 등
  천도재, 49재, 시달림, 관음시식, 화엄시식 (사물 - 북, 요령, 목탁)
- ▶ 1년(법사과정) 과정 : 천도의식(범음범패)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 옹호게, 상단권공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특강 : 승무, 살풀이(무형문화제 제7호 전수자 류희연 개인지도)

※ 초심자에게 불교전통의식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함

3. 접 수 처 : 불광불교대학 종무소 (053-986-1080)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도동 불광불교대학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44 (팔공IC 5분거리) ☎ 053)986-1080 / 010-5470-8730

종무법인 (법원등기 제 000006호)
禪農教團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建法幢立宗旨 明明佛勅曹溪是 第一迦葉首傳燈 二十八代西天紀 今朝禪農立家風」

"法의 깃발 높여 이 道理 세움이여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제일조 가섭의 등불 始發로 하여
스물 여덟 등불이 서천의 불 밝혀
우리 불교 선농의 가풍을 세움이라"

- 永嘉玄覺證道歌中引用 -

◆ **입 종 비** : 없음
◆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각 사찰 인감등록 및 발급 (차량구입 및 부동산 취득시)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 사무국 : 070)8843-7620 / FAX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누굴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꾸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A 세상을 살면서 남을 미워하는 일은 다반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분별심으로 인해 미움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일체동근(一切同根) 삼라만상의 존재는 모두 연결돼 있어 상호의 존적 존재입니다.

이런 분별심에서 오는 미움을 자비심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정진을 계속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다스려 집니다. 마음 다스리는 것이 참는 것만으로는 불가하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어머니가 절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으나 집안의 벽에 부처님 그림을 붙여놓고 향과 초를 피우면서 새벽기도를 드리십니다. 어머니의 이런 절하는 모습이 TV에서 봐왔던 무당집 같아 상당히 거북합니다. 주위 분들도 집안에 그런 그림을 함부로 들이면 좋지 않다고 해서 더욱 걱정입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지금까지는 뭐라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주위에서도 어머니를 무속신앙에 빠진 것으로 걱정을 해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A 어머님께서 벽에 부처님 그림을 붙여놓고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절에서는 부처님을 모신다거나 탱화를 모신다거나 할 때는 점안식이라는 절차를 거쳐 모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 닿는 곳 처처(장소)가 다 도량(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부득이 절에 가지 못하는 불자 분들은 집에서 기도드릴 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경전을 올려놓고 향이나 초를 피워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향과 초를 피우는 건 자신의 온갖 잡념과 망상을 털어버리고 부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불자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해도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어지간한 정성 가지고는 행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머님의 기도가 정법이다, 무속이다 편 갈라서 걱정하기보다는 새벽마다 올리는 어머님의 기도가 자식과 가정을 위해 얼마나 정성이 갸륵한 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더욱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Q 며칠 전 친구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들 둘을 둔 친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화 통화를 할 때에는 심한 감기몸살이라고 하더니, 결국 폐암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병을 알고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신히 기운을 차리고 나니까 이젠 제가 죽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제 친구는 혼자서 죽음의 세계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울까도 생각해 보게 돼요.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저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걱정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는 게 싫습니다. 주변엔 아무 것도 없고 저 혼자 칠흑 같은 어둠속에 던져질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A 가까운 친구가 먼 길을 떠났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으셨나 봅니다. 어쩌면 친구가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울 거라 염려되는 마음에 생전처럼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보니 어둠 속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생과 사를 넘나 들것 같은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 충격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하나요
분별심에서 오는 미움은 자비심으로 이겨내세요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혜문 스님(왼쪽)이 일본을 방문해 조선왕실의궤 반환의 당위성을 담은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스님 4년여 반환운동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모두 반환돼야 마무리

2010년 8월 10일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간 총리는 담화문에서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가까운 시일에 넘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언급하기까지에는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의 활약이 컸다.

혜문 스님은 9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문화재제자리찾기의 '조선왕실의궤환수 경과보고회'에서 4년 여의 조선왕실의궤 반환 운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김부겸 국회 문광위 의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명성왕후 국장을 기록한 다큐 영화 '잃어버린 제국(감독 김아지)' 등을 시청했다.

환수위는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강탈당해 일본 왕실 도서관 궁내청에 소장된 '조선왕실의궤'가 4년 여의 환수운동 끝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조선왕실 의궤 반환은 온 국민의 승리"라며 " 의궤가 잘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모두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행사에서 스님의 경과보고와 저서 <의궤, 잃어버린 조선의 보물>을 통해 혜문 스님의 환수운동 과정과 소감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국권 침탈 100주년이 되는 올해 광복절에는 틀림없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었지만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왕실에서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일본 총리의 입에서 일본이 조선왕실의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포기한 문화재를 민간이 싸워서 되찾았습니다. 나는 이번 조선왕실의궤 환수가 우리나라 승병 · 의병운동의 전통에 한 줄을 더 남긴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금강경>에 '환지본처(還至本處)'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중생에게 본래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나는 문화재 환수 운동이 불교사상을 사회화하는 과정이며 또 다른 수행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토서 유학중이던 2004년 8월 고서점에서 일본인 학자가 쓴 <청구사초(靑丘史草)>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고 <조선왕조실록>이 도쿄대에 소장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즉시 실록을 열람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되찾기 위해 2006년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반환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 한일협정 당시 반환받은 1432점의 문화재 목록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환수 목록 중에는 짚신, 막도장, 우체부 모자 같은 것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런 허접한 것들을 한국에 돌려주면서 "문화재 반환이 종결됐다"고 한 것에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력 끝에 결국 도쿄대는 서울대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돌려줬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오른쪽과 왼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록과 의궤가 모두 반환돼야만 조선왕실 기록물 반환이 완전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눈앞에 둔 지금을 '유형의 물건'의 차원을 넘어 '역사적 자존심'을 되찾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운동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혜문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

지난 4년 여의 반환과정을 지내오며 나는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행이라 생각하고 반환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4년 동안 내가 어쩌다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됐는지를 반문해 봤습니다. 좀 더 유능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운동을 진행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고….

환지본처.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동섭 기자 · 사진제공=중앙신도회

적중도최고효과성 최대효사활인천역집2010완결보정판 구입교환및육임활용서학습서구입안내

1. CD프로그램

교환대상	효사활인천역집 Ⅰ,Ⅱ,Ⅲ, 완결판 소지자	
교환가격	효사활인천역집 Ⅰ 교환	15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Ⅱ 교환	12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Ⅲ 교환	8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교환	50만원
신규구입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 보정판	500만원
기 능	원터치 · 매일 매시간별 자동화면 · 동일 시간내 다수방문자 구분식별 · 상담 메모리 · 자료출력 등등	
장착목록	(아래 제 3항참조)	

2. 미리보고 먼저 알게되는 자동화면의 우선항목들

- **시보**(時報 : 왜 왔는가?)
- **내정**(來情 : 어떤 정황인가?)
- **득지**(得知 : 무슨 비밀사정이 있는가?)
- **아타**(我他 : 저지른 일인가, 일어날 것인가?)
- **미기**(未旣 : 이미 일어났는가, 일어날 것인가?)
- **귀신**(鬼神 : 어떻게 죽은 · 누구의 귀신이 침범했는가?)
- **병귀**(病鬼 : 무슨 귀신침범으로 병이 났는가?)
- **사숭**(邪崇 : 신변 · 가택 어디에 무슨 부정이 들었는가?)
- **산소**(山所 : 누구 묘지, 무슨 좌향 · 물형, 어떤 경관인가?)

◆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소 시킬수 있는가?**
◆ **비방 · 부적 · 굿 · 천도재 · 불제 등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며칠 후 언제 해야만 좋은가?**

• 이외 **24개항목**의 길흉성부를 결정지어 놓았고, **50여 인사(人事)문제**도 **미리보고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화면 배치 했습니다.

3. 육임활용서(위 1항 CD프로그램에 장착 됨)

① **효사육임산책**	2010최신판(휴대용)	1 · 6 · 60권	250만원
② **효사육임복변집**	2010 보정판(좌정용)	1 · 6 · 60권	250만원
③ **육임대계전서**	2010개편본(휴대용)	1 · 6 · 60권	250만원
④ **육임풍수**	2010개편본(휴대용)	1 · 6 · 60권	70만원
⑤ **육임1년신수비결**	2010개편본(좌정용)	1 · 6 · 60권	35만원
⑥ **육임래정비법**	2010개편본(휴대용 · 좌정용)	1 · 6 · 60권	50만원
⑦ **도사에게 물어봐**	2010증보판 **육임길흉성부상담지침록**(휴대용)		10만원
⑧ **육임사주감정법**	2010개편본(좌정용)		20만원
⑨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좌정용)			12만원
⑩ **효사숙 사주**(CD전용)	⑪ **성명학**(CD전용)	⑫ **매화역수**(CD전용)	
⑬ **월영도**(CD전용)	⑭ **부적보감**(CD전용)	⑮ **동의보감**(CD전용)	

4. 육임학습서

① **효사육임강론** 2010개편 증보 제 8판본 **上권 종합학습편** 1800쪽
② **下권 활용편** 1800쪽 사과 삼전표 · 천지반표 · 과 · 격 체출법 및 각 상의 · 국수 해설 · 24개 항목별 단정 및 대별 교체 적시함

구입 승인 교환 안내 011-9795-1773 담당 양광표 / 계좌번호 : 농협 356-0340-6628-13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 우주의 빛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9월 11일 동국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청소년 교리경시대회 초등부 시험장. 참가학생들이 답을 써 높게 들고 정답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붐비니동산? 불좌문? 퀴즈로 푸니 재미 두배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전국 청소년교리경시대회
"어린이법회에 활력" "학생 · 스님 모두에 영향"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동산은 어디인가요?"
"붐비니동산(정답: 룸비니동산)"
"절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지나는 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불좌문(정답: 일주문)" "몰라요"
"깔깔깔깔"

300여 초등학생들이 화이트보드에 저마다 답을 써 들어올린다. 한 문제 한 문제 풀며 정답을 맞출 때마다 하나 둘 자리를 뜨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진짜 재밌어요. 8문제만 맞히고 떨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나 봐요. TV에서만 보던 걸 제가 직접 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구요."

김주화(속초교동초 5 · 속초 신흥사)양은 '도전! 범종을 울려라' 50문항 중 8번째에 떨어졌다. 패자부활전으로 겨우 살아났지만 2번째 문제에서 또 떨어지는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김양은 행사가 진행 중인 동국대 체육관을 친구들과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오늘 행사가 마냥 즐거웠다.

초등학생 300여 명이 전국에서 올라왔다. 제2회 초등부 교리경시대회는 지난해와 방식을 달리해 퀴즈 맞추기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행사장의 세트나 진행 방식은 어린이들에게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됐고, 프로그램 중간 패자부활전, 댄스공연 등은 재미를 더했다. 응원석에서는 지도교사와 부모님이 함께 응원하면서 분위기를 살렸다.

문제는 중 · 고등부와 공통된 문제도 많았다. 사전 배포된 200개의 예상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서인지 어린 학생들은 중 · 고등부와 내용, 난이도의 측면에서도 전혀 차이가 없는 문제도 술술 풀어갔다.

재미난 답은 참가자는 물론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룸비니 동산을 '붐비니 동산'으로 일주문을 '불이문, 불좌문'으로 쓰거나 당당하게 '몰라요'라고 답을 쓰는 등 함께 웃고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한정민 지도교사(서울 옥수동 미타사)는 "미타사에서 2명만 참가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며 어린이법회 학생들과 함께 직접 만든 응원문구를 흔들었다. 한 지도법사는 "법회에 억지로 오던 어린이들도 시험준비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교리를 물어보고 법당을 찾았다. 교사들도 학생들과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자연스럽게 교리공부는 물론 기본 예절 및 신행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저학년 중 가장 끝까지 남았던 김태환(파주 통일초 2 · 상도선원)군은 40문제 이상을 풀었다. 지권인을 설명하는 문제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김태환군은 형, 누나들보다 답을 쓰는 속도가 느려 애를 먹기도 했다. 김태환군은 "아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가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공부해줬어요. 안타까운데 다음에 또 도전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김태환군의 어머니 조민경씨는 "어른들도 재밌다. 아들이 이곳에서 만난 어린이들과 친구로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도선원 일상 스님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스님들은 불자들을 이해하고, 불자들은 가족이 함께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행사가 고학년 위주로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쉽다.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고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가 이뤄지면 더욱 좋을 것 같다"며 행사의 발전을 기대했다.

이날 5~6학년 형 누나를 제치고 '결가부좌' 문제를 맞춰 범종을 울린 안현준(명신초3 · 서울 청룡사)군은 수상소감에서 "마지막 문제는 찍었는데 주지스님이 결가부좌를 가르쳐줬던 것이 생각났다. 얼떨떨하다"며 마지막까지 침착한 모습이었다.

청룡사 주지 정명 스님은 "안군은 일곱살 때부터 청룡사 유치원을 다니면서 늘 어린이 불교 서적을 읽고 수행하는 남다른 어린이였다. 작년에는 둘이서 성도재일에 3일 동안 매일 3시간씩 결가부좌를 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울고 웃기도 했었다"며 누구보다 행복해 했다.

이날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주최하는 제2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가 9월 11일 전국 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골든벨 형식으로 처음 치러진 초등부 경시대회는 어린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물론 신행활동의 뚜렷한 동기부여, 어린이 법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나와 여느 시험과 똑같이 서로 작성한 답안을 확인했다. 각 사찰 청소년법회 지도 법사 스님이나 교사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재확인하면서 답을 써 내지 못한 안타까운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제1회 교리경시대회에 참가했던 재응시생들도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재도전한 것이다.

시험을 마친 34명의 학생들은 안양 한마음선원 중고등학생 법회 지도법사인 혜모 스님과 동국대 명진관 앞에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눴다.

학생들은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스님에게 설명하자 스님은 "잘 했다"며 격려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안심과 자신감을 얻으면서 문제를 곱씹었다.

혜모 스님은 방학동안 학생들과 틈틈이 문제를 뽑고 함께 생각하면서 서로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혜모 스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경시대회 참가를 통해서 의욕적으로 법회에 참석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좋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뿔뿔이 흩어진 불교 상식을 정리하는 기회는 물론 불교적인 사고 함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스님도 의욕적으로 법회를 진행하게 됐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불교공부를 접하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등부 우수상을 수상한 최소연(성포고 1, 한마음선원)학생은 고등부 우승을 노렸다. 최소연 학생은 "지난해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청소년 불교입문>을 10번 정도 읽었는데 중등부 시험문제와는 달리 고등부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았다"며 "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불교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며 매년 시험에 응시할 뜻도 밝혔다.

구동규(과천외고 2 · 한마음선원)군도 1학년 때 시험을 봤었다. 구동규군은 "주관식에 나온 '법등명 자등명'은 평소에 많이 듣고 좋아했던 내용들이어서 쉬웠는데 객관식은 1학년 때 시험보다는 약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 참가자는 제1회 대회 응시자 1913명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중등부는 1345명 지원자 중 972명, 고등부는 1293명 지원자 중 1293명이 응시했다. 초등부는 전국에서 320여 명이 '범종을 울려라'에 참가하면서 이날 행사에는 2200여 명이 참가했다.

시험장은 서울 동국대, 부산 금정중, 대구 능인중, 대전 보문중, 광주 정광고, 평택 청담정보통신고, 전주 동대부속 금산고, 남양주 광동고 등 8곳 설치됐다. 중 · 고등부는 오전 11시부터 전국 각 시험장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초등부는 서울 동국대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시상식은 10월 23일 제1회 군종병불교교리경시대회 수상자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시험 출제경향

제2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문제 출제는 제1회 경시대회와 비슷했다. 조계종출판사에서 펴낸 <청소년 불교입문>과 <부처님의 생애>, 중 · 고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내용에서 불교 신행에 대한 이해를 유도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됐다.

출제 문항은 초 · 중 · 고등학교 공통 50문항. 집중도와 학습수준을 고려해 고등부는 오지선다형 35문제, 단답형 주관식 9문제, 서술형 1문제로 45문항이, 중등부는 오지선다형 30문제, 단답형 주관식 9문제, 서술형 1문제로 40문항이 출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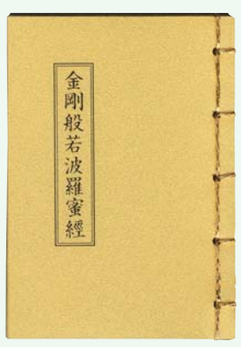
특히 서술형 문제는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중등부는 전도선언(傳道宣言), 고등부는 부처님 열반 당시 아난존자에게 설한 법등명자등명(法燈明自燈明)을 통한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또 기본 교재 외에 행적을 보고 법정 스님을 답으로 쓰는 문제가 출제돼 눈길을 끌었다.

출제위원장 법인 스님은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통한 청소년의 불교적 가치 함양에 초점을 맞췄다"며 "학생들의 세계관과 신행관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제위원장 박경준 교수(동국대)는 "실생활 속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푸는 과정에서 재미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문제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등부 시험문제 같은 경우는 단답형 답안에 기초한 단순암기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건조한 문제와 답안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불교에 대한 일반 상식과 학문적 내용에 따라 정답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호남지역 가을맞이 다채로운 문화행사

도원사,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등 산사음악회 등 열려

한여름의 무더위와 태풍, 집중호우 등의 물난리 끝에 가을이 찾아왔다.

호남지역 사찰 및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산사음악회와 지역민이 하나 되는 문화잔치 등이 열렸다.

전남 화순 모후산 도원사(주지 진철)는 9월 11일 경내에서 국태민안기원 및 국운융창을 위한 영산대재와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형편의 초 · 중 · 고등학생 20여 명에게 장학금도 전달됐다.

행사는 1 ·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원법회는 풍물단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작법시련, 법고시연, 육법공양, 봉행사, 축사, 법어 등으로 진행됐다.

2부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김상배, 우연이, 정현, 현진우, 주권기 등이 출연했으며 불자들의 노래자랑이 이어져 흥겨운 마당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성오 스님, 화순군사암연합회 회장 지명 스님, 광주전남신도회 지용현 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15일 추석맞이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복지관 난타팀의 북 공연 모습.

주지 진철 스님은 봉행사에서 "이번 영산재와 산사음악회를 통해 많은 생명들에게 부처님 복덕과 지혜가 담긴 간절한 축원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은 한가위를 맞아 9월 15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2010추석맞이 복운(福雲)행사'를 진행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완 스님과 복지관 종사자들 및 지역주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오전 행사에는 기념식에 이어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의 난타팀의 북 공연과 레크레이션 및 품바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에는 2010 한가위 어울림마당이 펼쳐졌다. 어울림마당에서는 지난 9일 열띤 경쟁과 함께 예선을 통과한 11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노래자랑을 했다. 이날 노래자랑에서는 1등에 김영규님, 2등에 이경순님, 3등에 최대식님이 영광을 안았다.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한 특별공연도 펼쳐졌다. 특별공연에서는 고창초등학교 이현민 외 1명의 설장구 공연과 고창여중 김채은 학생의 재즈댄스공연 등이 진행됐다.

도완 스님은 기념식에서 "올 한해 농사를 짓느라 수고하신 지역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오늘만큼은 복지관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공연을 마음껏 즐기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통사찰음식서 배우는 올바른 식생활

사찰음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
템플스테이, 익산 숭림사

서구인의 식습관에 적응된 청소년들은 고지방 · 고열량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과다섭취해 비만과 성인병 등을 앓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 속에서 먹거리를 직접 자연 속에서 기르고 채취해 영양파괴가 최소화된 조리법으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는 의미있는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은 9월 11~12일 '사찰음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친환경적인 사찰 발우공양을 통해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또한 직접 채취한 피마자잎, 모시잎, 당귀잎 등을 조리하는 체험도 가졌다.

주지 지광 스님은 "이번 템플스테이 참가 청소년들은 사찰음식을 통해 식생활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자아존중감을 강화함은 물론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직접 채취한 피마자, 모시, 당귀 잎 등으로 사찰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진가 양병주 명상 사진전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만을 모아 전시하는 사진전이 열린다.

양병주 작가의 '찰나의 꿈' 명상 사진전이 '천년의 꿈, 불국사에서'를 주제로 9월 12일 부터 약 한달간 경주 문화엑스포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만으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전시회다.

양 작가는 기존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불국사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시도했으며, 불국토를 현실세계에 구현해보겠다는 신라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불국사를 통해 천년 속에 찰나가 있고 또한 찰나 속에 천년이 있음을 렌즈에 담아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대불청 전북지구 박동창 회장

"청년회활동은 불교의 미래"

전북 모악산은 어머니 품안같이 포근한 산세로 전주와 김제에 걸쳐 자리하고 있다. 이곳 모악산 아래에는 전북 유일의 불교종립학교인 금산 중 · 고교가 있다.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 · 고 교내 법당인 선재원에서 대한불교청년회를 5년째 이끌고 있는 박동창 대불청 전북지구 회장을 만났다.

박 회장은 1992년부터 모교 금산중 · 고 교법사로 부임해 주당 8시간씩 종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파라미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족전통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심과 시민의식을 기르고, 전통정신과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돕는 중이다.



박동창 대불청 전북지구회장

박동창 회장은 모악산 금산사 아래서 나고 자랐다. 고향마을 이름도 미륵세계를 의미하는 용화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불심이 돈독한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박 회장은 어린 시절, 집과는 지척이었던 금산사에 자주 들르며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 녹이며 자랐다.

박동창 회장은 현재 교법사로 근무하는 금산중 · 고 출신이다. 전북대에 진학해서도 대불련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불교활동을 벌이던 박 회장은 금산사 청년회 소속으로도 신행활동을 이끌어 나가 1999년도부터 6년간 금산사 청년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남다른 불교활동을 해온 그를 위한 자리였을까? 2006년부터는 갑자기 공석이 된 대불청 전북지구회장 소임을 맡아 현재까지 지구회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이다.

박 회장은 "종립학교 교법사로 근무하면서 대불청 전북지구 회장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늘 젊은 불자들과 함께 불교활동을 할 수 있어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말에서 청소년들과 봉사활동과 문화 활동을 하며 포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껴진다.

박동창 회장은 금산사 청년회 활동을 해오면서 매년 초파일이면 금산사에서 15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베풀고 있다. 청년회를 이끌며 전주와 김제에서의 연등축제 진행을 돕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일이다. 또, 매년 여름과 겨울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회원들의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불교청년회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와 환경보호 운동을 겸한 가족 등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청년회의 활동은 이뿐 만이 아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동학혁명 당시 희생 당한 이들의 무연고 묘지를 찾아 벌초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남달리 불교 청년활동을 열심히 벌여 온 박 회장이지만 그에게는 요즘 고민이 있다.

"회원 감소로 인해 청년회 활동이 침체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젊은 불자들이 적극적인 신행활동에 나서야 불교의 미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보다 많은 청년불자들이 청년회 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지사 소개 세번째 이야기
불신관(삼신론) ①

'오직 현지사에만' 상주하시는 보신의 부처님

부처님 회상 영산불교에서 법보화 삼신(佛身觀 · 三身說)의 진정한 의미를 인류 역사 앞에 밝힙니다



◆ 우주 온 법계에 두루 편만하신 부처님〈法身佛〉

중생들이 윤회하는 육도, 실로 부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에도 땅 한줌에도 그 어떤 생명체에도 부처님의 찬란한 광명은 편만하여 온 법계를 비추고 계십니다. 우주 온 법계와 완전한 계합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형상도 없고 생각도 없으며 말하지도, 행위하지도 않고 그저 우주 자체가 되어 여여하게 계실 뿐입니다. 바로 이 부처님이 교학에서 말하는 법신불(法身佛)이십니다.

◆ 부처님은 현지사에만 계신다〈報身佛〉

이 선언은 진실입니다. 불과를 이루게 되면 한분의 부처님은 세 개의 몸(三身)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세 몸을 각각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데 '현지사에만 상주하신다'는 부처님은 보신의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 중심이 되는 보신부처님

중생이 수억겁의 수행을 통해 불과를 이루게 되면 형체와 인격,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보신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음성과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고(32상80종호), 지혜와 복덕, 원력과 자비, 신통과 위신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신의 몸은 형체를 지닌 불신이기 때문에 법신처럼 여기에도 있고 동시에 저기에도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닙니다. 한분의 붓다에게는 오직 하나의 보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 절반정도의 여타 사찰에는 화신부처님〈化身佛〉

보신부처님의 위신력은 상상을 초월하여 가히 우주적이며 창조주적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셀 수 없는 자신의 분신을 법계 곳곳에 동시에 나툴 수 있으며 각각의 분신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이를 화신이라고 합니다. 일반의 사찰에 가 계시는 부처님은 화신불이십니다.

◆ 사바세계의 성지들

세계 곳곳에는 성지가 있습니다. 절반쯤 되는 사찰에는 화신의 부처님이 계시지만 이곳을 성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보신의 부처님께서 계신곳을 성지라고 합니다. 인도 영축산(석가모니부처님), 중국 청량산(문수보살님), 한국의 오대산 상원사,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관세음보살님)를 비롯 사바세계에서 보살행 하시는 여러 보신 부처님들께서 종종 머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을 성지라 부르고 이 곳을 찾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큰 가피를 입는 것입니다.

◆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빛의 도량, 성지중의 성지 현지궁 현지사

만일 보신의 부처님께서, 그것도 기라성 같은 여러 보신부처님들께서 사바세계에 항상 머무시는 곳이 있다면 이곳은 성지 중의 성지이며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곳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지사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불과를 이룬 당신의 큰 제자가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과를 이루기 위해 사바세계에 제자가 몸을 받아오면 제자를 외호하고 공부를 이끌기 위해 보신의 부처님들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성지 중의 성지가 됩니다. 현지사는 사바세계 유일한 성지입니다. 이제 사바세계 곳곳에서 보살행하시는 부처님들마저도 이곳에서 상주하시게 됩니다.

◆ 중생들의 복전, 수행의 도량

보신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성지, 현지궁 현지사에서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수행 중 빙의하게 되는 외마가 철저히 차단됩니다. 그 어떤 외마에 의해서도 공부를 방해받지 않는 청정한 수행도량입니다.
이곳 현지사는 보신부처님의 크신 위신력이 발휘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주의 이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못 이룰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세세생생의 복전이 될 선근공덕을 쌓는 겁에 한번 있을까 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16쇄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한글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대형서점 종교서적 부분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겹겹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하시어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 영육아 시기의 교육과 편안한 사후를 위한 완벽한 대비책을 제시한다.

■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인 칙천무후!
그녀가 불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되짚어 불교사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

효(孝)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증유한 천도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재는, 부부 각각의 친 · 외가쪽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윗대 무주고혼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주소를 파악,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 더 맑을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또한 조상 영가님들을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천도해 드립니다. 네 번이면 무주고혼과 지옥의 영가들을 하늘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재입니다.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④

선원의 하루 일과(1)-기상과 새벽예불

오경에 대종 울려 새벽을 열다

〈五更〉

천 년 전 당송시대 선원의 하루 일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취침했으며, 하루 좌선 시간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과 없어진 것은 무엇일까?

선원의 일상생활과 규칙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또 각 청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송시대 선원의 하루 일과를 고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당 중기(800년대) 백장회해가 선종총림을 창설한 이후 당말오대까지 선종사찰에서는 불전을 따로 두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히 불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하루 일과에서 예불이란 있을 수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종사원의 가람 배치'에서 자세히]

좌선도 후대에 와서는 하루 3번 또는 4번 하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백장선사가 총림을 만들던 시대에는 개인의 능력과 신심에 맡겼다. '남악마전의 공안(南嶽磨塼, 매일같이 좌선한다고 하여 부처가 되는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해진 시간에 좌선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또 공양도 아침과 점심 두 끼만 먹었고 '오후불식(午後不食)'이라고 하여 저녁에는 먹지 않았다.

그러나 송대에 와서는 선종사찰에 불전이 들어섬과 동시에 법식을 갖추어 예불을 하게 되었고, 좌선도 하루 3, 4회로 정례화 되었다. 또 저녁 공양도 '약석(藥石)'이라고 하여 상례화 되기에 이르렀다.

선당(선원)의 하루 일과는 기상(起床) · 세면(洗面) · 새벽 예불(勤行, 朝課) · 새벽 좌선(後夜 좌선) · 아침 공양 · 청소(淸掃) · 조참(朝參, 早參) · 오전 좌선(早晨좌선) · 점심 공양 · 오후 좌선 · 저녁 예불(晩課) · 약석(藥石, 저녁 공양) · 저녁 좌선(황혼 좌선) · 취침(=開枕)이다. 이것이 대략 송대에 정해진 선당의 하루 일과이다.

선종사원의 새벽 기상은 인시(寅時) 즉 오경(五更, 3시-5시)이다. <선원청규> 10권 '백장규승송(規繩頌)'의 '수좌송(首座頌)'에 "인시에 대중이 집합할 때(寅時衆集時)"라는 말이 나오고, 또 6권 '경중(警衆)'에는 "오경(五更, 인시)에 대종을 치는 것은 잠을 깨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무량종수 선사가 지은 <일용궤범> '입중법(入衆法)'에는 "일어날 때는 남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오경의 종이 울리기 전에 몸을 가벼이 들고 미리 일어난다" "오경에 세면(洗面, 세수)하는 것은 본래 수행을 위해서이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선원에서 새벽 기상은 인시였다.

우리나라 사찰은 모두 새벽 3시에 일어나므로 당연히 옛 중국 선원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시계가 만들어지기 이전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도 하루 24시간을 12시간으로 구분하여 12간지(干支)로 표기했다. 자시(子時)는 밤11시-새벽 1시까지이고, 축시(丑時)는 새벽1시-3시, 인시(寅時)는 3시-5시까지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준 시간 즉 시점(時點)이 있었다. 시점을 '정시(正時)'라고 하는데, 중간이 정시였다. 예컨대 낮 12시를 '정오(正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12시가 오시(午時, 11시-오후1시)의 정시이기 때문이다. 밤 12시를 자정(子正)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선원은 1시간 앞당긴 3시가 기상 시간

예불 모습은 송대 이전 백장 때와 같다

새벽 기상 시간은 4시

오늘날 중국 선원과 사찰도 마찬가지지만, 옛 선원의 새벽 기상 시간은 인시의 정시인 4시였다. 이것은 아마도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제도일 것이다.

얼마 전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김호성 선생의 안내로 간화선의 발상지인 중국의 아육왕사(대혜종고의 주석처)와 묵조선의 발상지인 천동사(굉지정각의 주석처)를 답사한 적이 있다. 그 때 하루 일과 시간표를 보았는데, 새벽 기상 시간은 모두 4시였다. 귀주(貴州)의 대표적인 사찰인 홍복사를 소개한 <문화총림(文化禪林)>(중국 민족출판사, 2005)에는 사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4시에 일어난다고 소개되어 있다. 일본 조동종 영평사의 기상 시간은 여름에는 3시 30분이고 겨울에는 4시 30분이다. 임제종 선원도 마찬가지이다. 붓다시대의 새벽 기상은 5시 이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시간 앞당겨 3시에 일어나고 있다. 왜 3시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부터였을까?

조선시대에는 밤 10시-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새벽4시(인시, 오경)에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종을 '오경종(五更鐘)'이라고 불렀다. 서울에서는 보신각종을 33번 치고 4대문을 열었다. 사찰에서도 새벽 기상을 알리는 종을 '오경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선시대 말까지 우리나라 사찰의 기상 시간은 4시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새벽 기상 시간을 '인시(寅時, 3시-5시)'라고 했으므로 1시간 앞 당겨 3시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야운선사의 <자경문>에는 "삼경(6시간. 9시 취침-3시 기상) 외에는 잠을 자지 말라(除三更外 不許睡眠)"는 말이 있는데(삼경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음), 혹시 이런 것이 어울려서 3시에 일어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예불(근행, 조과)은 4시 30분

예불(근행, 조과)은 4시 30분경에 시작된다. 30분간 세수 양치 등을 하면 4시 30분경이 된다. 새벽 예불을 '근행(勤行)' '조과(早課, 朝課)'라고 하는데, 오늘날 중국이나 일본은 그대로 쓰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는 '근행(勤行)'이라고 했다.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지은 <계초심학인문>에는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근행하라(須朝暮勤行)"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아육왕사는 새벽예불을 '상조전(上早殿)'이라고 한다. 아침(早)에 불전(殿)에 올라간다(上)는 뜻인데, 조전(早殿) 자체가 예불을 뜻한다. 저녁 예불은 상만전(上晩殿)이다.

중국 선원에서 새벽 예불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같지만 '능엄주' '대비주(신묘장구대다리니)' '십소주(十小呪, 열 개의 작은 진언)' '반야심경'을 각각 한 번씩 외운다. 이것을 '풍송(諷誦)'이라고 하는데, 소리 내어 읽는다는 뜻으로 독송과 같다.

예불을 마치면 약 5시-5시 10분쯤 된다. 이때부터 새벽 좌선을 시작하여 5시 50분쯤 마치고 6시에 아침 공양을 한다. 아침 공양은 죽(粥)이다. 그래서 아침 공양을 '조죽(朝=早粥)'이라고 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당말오대(959년경)까지만 해도 선종총림에는 불전(대웅전)이 존재하지 않았다. 송대에 와서 비로소 불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으므로 그 이전에는 법식을 갖춘 예불은 따로 없었던 것이다. 굳이 '예불'이라고 한다면 4시에 일어나서 세수와 양치를 한 다음 선당 안에 모셔져 있는 승형(僧形) 문수보살상에 3배를 하는 것으로 끝냈다. 3배를 하는 시간은 1-2분 정도이다. 이어 늦어도 4시 40분경부터 좌선을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선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선원은 선방 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 또는 문수보살상을 향하여 입승스님의 죽비 소리에 맞춰 3배를 한다. 능엄주 · 대비주 · 십소주 등 염불은 일절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선원의 예불 모습은 송대 이전 즉 백장 때와 같고, 중국이나 일본 영평사 등은 송대, 원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은 특히 '능엄주' '대비주' '십소주' 등 진언, 다라니가 많이 들어가 있다.

송나라 때 장로종색 선사가 1103년에 편찬한 <선원청규>에는 불전에 대한 언급이 겨우 한곳 나온다. 불승이 되고자 갓 입문한 행자들을 훈계하는 '훈동행(訓童行, 9권)' 장에 "매일 만참(晩參, 저녁 법문)에는 불전 앞에서 부처님께 예배하라"는 한마디가 있을 뿐인데, 그것도 행자들을 가르치는 '훈동행'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불전 앞에서 부처님께 예배하라"는 것은 행자들에게 한정된 것 같다. 하여튼 이때쯤 비로소 선종총림에 불전이 들어서고는 있었지만 그 규모가 작았고, 역할이나 기능도 크지 않았다. 그저 신자들을 위하여 전각의 하나로 두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능엄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또 '능엄경'에 대한 언급도 없다. 말하자면 이때까지만 해도 선불교에서 '능엄경'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선원의 기상 시간은 새벽 3시다. 왜 이때 일어났을까?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였을까? 사진은 새벽 도량석 모습.

능엄주 외우면서부터 선정신 퇴색

그런데 그로부터 약 235년 뒤인 1338년 즉 원나라 순제 지원 4년(고려 충숙왕 7년)에 동양덕휘가 칙명에 의해 편찬한 <칙수백장청규>에는 '능엄주'에 대한 언급이 많고 <능엄경>을 독송하는 능엄회까지 만들어진다. 또 왕의 축성을 비는 축리장과 보은장이 등장한다. 이것은 칙수이므로 당연히 원나라 즉 몽고와 티베트불교의 영향일 것이다. 이 시기 원(元)의 지배하의 고려도 만다라 성격의 후불탱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또 원나라 고승들의 내왕이 빈번했는데 부인을 대동하고 주육(酒肉)을 하는 이들도 꽤 있었다. 어찌되었든 피지배국으로서는 칙사 대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서 선사상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입만 열었다하면 '돈오견성' '확철대오' '살불살조'를 주장하는 선불교에서, 그리고 타력(他力, 정토신앙)보다는 자력을 주장하고 있는 선불교에서, 선의 경전인 <유마경>이나 <금강경> 또는 <화엄경>도 아닌 '능엄주' '대비주' '십소주' 등 밀교의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때부터 사실상 선불교는 변질되어 당대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정토 밀교화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십소주(十小呪)의 내용이다. '십소주'란 열 개의 짧은 진언을 한데 묶은 것인데, 그 목록을 보면 소재길상다라니 · 불모준제신주 · 약사관정진언 · 칠불멸죄진언 · 왕생정토신주(往生淨土神呪) · 대길상천녀주(大吉祥天女呪) 등으로, 즉심시불,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표방하는 선종에서 조석으로 진언을 염송한다는 것은 선의 정신이 얼마나 퇴색되었나를 알게 해 준다. 이로부터 선은 꼴이 아니라고 매도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당당했던 선불교의 정신은 사실상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옛날 백이숙제는 수양산에 들어가 채미가를 부르면서 굶어 죽었다. 당시 선승들의 긍지와 기백, 정신이 백이숙제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다시금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남악회양이나 마조도일 · 백장회해 · 조주 · 운문 · 임제 · 원오극근 · 대혜종고 · 천동정각 같은 선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판국으로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달마 이래 불조의 정법안장은 어록 속에서 깊은 탄식을 하고 있었다.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 열둘로 나눈 하루

12시(十二時); 자시(子時, 저녁11시-새벽1시) · 축시(丑時, 새벽1시-3시) · 인시(寅時, 새벽3시-5시) · 묘시(卯時, 오전5시-7시) · 진시(辰時, 오전7시-9시) · 사시(巳時, 오전9시-11시) · 오시(午時, 오전11시 오후1시) · 미시(未時, 오후1시-3시) · 신시(申時, 오후 3시-5시) · 유시(酉時, 오후5시-7시) · 술시(戌時, 오후7시-9시) · 해시(亥時, 저녁 9시-11시). 이 가운데서도 기준은 정시(正時)로서 가운데 시간이 정시이다. 또 2시간 즉 120분을 다섯으로 나누어(120분 나누기 5=24분) 1점(一點)에서 5점(五點)까지 다섯으로 세분화하였다. 또 1시간을 15분씩 나누어 1각(一刻), 2각, 3각, 4각으로 나누기도 했다. 「대한화사전」 1권, 오경(五更) 항목 참조」



서산의 법이 달마산에서 피어 세상을 밝혔네

㊷ 법이 상주하는 도량 미황사


미황사 부도밭 전경.


설봉당 탑비.

달마산 미황사. 뒤로는 기암괴석이 이룬 기이한 산봉우리, 앞은 아스라이 펼쳐진 바다. 미황사는 한 폭의 풍경화 속에 있습니다. 산 이름이 법이 상주하는 곳임을 드러내고 있으니 미황사가 담겨진 풍경화도 예사로운 그림은 아닙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의 불사로 절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전국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절 미황사'라고 부릅니다. 풍경이 아름답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물들이 아름답고 세간살이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그 자비가 아름다우니 '아름다운 절'이란 수식은 아무리 써먹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절 아랫마을 서정리에 들어서면 울퉁불퉁 바위들이 힘차게 기운을 내뿜는 달마산 능선이 보이고 산 중턱에 미황사가 보입니다. 막돌을 정교하게 쌓은 석축은 한 층 한 층 부처님의 세계로 중생들을 인도합니다. 앞에는 '자하루(紫霞樓)' 뒤에는 '만세루(萬歲樓)'라는 현판이 달린 누각을 지나면 누구나 아! 하고 감탄사를 쏟아내게 됩니다.

단청의 흔적이라곤 한 점도 찾을 수 없이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대웅보전(보물 제947호)이 달마산의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떡 버티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정면 3칸의 팔작지붕은 겹겹이 쌓아올린 공포를 드러내고 있는데, 기둥과 공포가 백골을 연상시킬 정도로 완전하게 탈색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자의 형해(形骸)가 저토록 고요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한참동안 마당에 서서 산 쪽으로 몸을 향하여 대웅보전을 바라봅니다. 대웅전 뒤의 응진당(보물 제1183호) 앞에서는 산을 등지고 먼 바다를 응시합니다. 산과 바다 그 사이에 절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바다에 서 있다면 절과 산은 그저 먼발치의 풍경일 뿐일 것입니다. 산 정상에 서 있다면 절과 바다가 눈에 걸리는 경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순례자는 절 마당에 서 있습니다. 절 마당에서 보는 산은 산이 아니고 바다도 바다가 아닙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도 물도 아닌 곳에서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수 있을 때가지 산도 바다도 절도 이미 한 줌의 허공에 불과할 것이니 말입니다.

아름다운 절집 마당에서 어정쩡한 망상을 피우다가 문득 부도밭으로 향합니다. 요사로 쓰이는 세심당과 일심관을 지나 등산로에서 '부도전 가는 길'이란 팻말을 만납니다. 길은 오솔길, 바닥이 잘 골라진 길을 따라 500m 쯤 걷습니다. 부도밭으로 가는 동안이 길은 그저 한적한 오솔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도밭을 둘러보고 돌아올 때는 이 오솔길이 그냥 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미황사 부도밭은 두 곳입니다. 마당에 절의 사적비가 서 있는 부도암(浮屠庵) 옆의 남부도밭에는 21기의 부도와 5기의 탑비가 모셔져 있고 그 200m쯤 아래 숲속에 있는 서부도밭에는 6기의 부도가 한 줄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부도나 탑비들은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 세워진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대개의 부도와 탑비는 웅장하게 멋을 부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소탈합니다. 그다지 큰 것도 아니고 위엄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절이 피폐하면서 관리도 잘 되지 않았을 세월이 아주 오래된 느낌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벽하 설봉 연담 등 조선 중기 거장들 숨결 느껴져
'아름다운 절'에 숨겨진 수행 흔적 깨침의 길 안내

미황사 대웅보전 주춧돌에 게와 거북 등 어류들 조각이 있는데, 부도밭의 부도와 탑비의 대좌에도 그러한 어류들 조각이 다양하게 보입니다. 어류들뿐 아니라 사슴이나 새 같은 짐승들의 조각도 중대석이나 상대석에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양은 대흥사 부도밭에서도 볼 수 있고 송광사 일주문 옆 비림(碑林)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한 숲속의 부도들이 몸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명들을 문신(文身)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도의 주인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대자유를 누리며 뭇 생명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남부도밭의 21기 부도 가운데 2기를 제하면 모든 부도의 탑신에 새겨진 이름이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서부도밭의 부도 6기는 모두 주인의 당호(堂號)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행장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피해 부도암 마루에 걸터앉습니다. 조용한 절 마루에서 <동사열전>(범해각안 지음 김윤세 옮김)을 펼쳐 봅니다. 남부도밭에 부도가 모셔진 세 분의 생애를 읽습니다.

벽하당(碧霞堂) 대우(大愚 1676~1763) 종사. 벽하당은 영암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이씨의 태몽이 기이합니다. 푸른 빛을 띤 새들이 어깨위로 모여들고 푸른 노을이 품 안으로 내리 비치는 형상을 보고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벽하당은 새들이 구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출가할 것을 결심했다니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던 가 봅니다.

출가하여 조연(照淵) 장로에게서 머리를 깎고 화악(華岳 1629~1707) 대사에게 경교(經敎)를 배웠으며, 환성(喚醒 1664~1729) 선사에게서 선맥을, 고압(孤鴨) 선사에게서 계율을 전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가르침을 준 4명의 스승은 모두 청허휴정 서산대사의 5세 법손들입니다. 화악 선사와 환성 선사는 대흥사 13대종사의 4번째와 6번째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벽하당은 7번째 대종사입니다. 선의 가풍을 전한 환성 선사는 "동국의 대종장은 벽하 장로일레라. 서녘 강 만리 물을 한 입에 삼키겠고녀" 라는 시로 제자를 격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미간에 백호(白毫)가 나 있어 보는 사람마다 기이하게 여겼다는 벽하당은 입적을 맞아 담담하게 시 한 수를 썼습니다. 시를 다 쓰고 붓을 놓고 앉아 곧바로 적멸에 들었다고 합니다. 임종게를 읽습니다.

삶이란 타향살이
죽음이란 고향 가는 길
흰 구름처럼 오고 가는 속에
여여한 그 무엇 변함없어라.

조선 숙종 정월 보름날 영암에서 태어난 설봉당(雪峰堂 1678~1738)의 법명은 회정(懷淨)입니다. 대흥사 13대종사 가운데 8번째에 해당하는 스님입니다. 어머니가 신인(神人)에게 구슬 한 알을 받는 꿈을 꾸고 잉태했다고 하며 9세에 달마사 조명(照明) 장로를 찾아가 출가했습니다. 16세에 머리를 깎고 당시 제방에 명성을 떨치던 화악문신(華岳文信)으로부터 법통을 이어 받았습니다.

법통을 이어 받은 후에도 수행에 게으르지 않고 홀로 참구하여 깨치고 그 깨친 바를 경전을 통해 점검하기를 반복하여 자재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한번 법석을 펴면 수많은 대중들이 탄복하며 성성한 가르침을 즐겼으나 이름과 자취를 감추고 토굴 수행을 즐겼습니다. 회갑을 맞은 해 9월 7일 임종게를 짓고 다음날 적멸에 들었습니다. 임종게에 스님의 생애와 수행의 영롱한 열매가 담겼습니다.

뜬구름 자취 없이 오고
갈 때는 종적 없이 가고
구름 오가는 것 자세히 보니
다만 하나의 허공 뿐일레.

조선 후기 한국 불교를 진흥시킨 걸승으로 꼽히는 연담유일(蓮潭有一 1720~1799) 선사는 화순에서 태어나 5세 때 이미 <천자문>을 배우는 등 남다른 총기를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숙부의 보살핌 속에 세속의 글공부에 전념하다가 18세에 나주 법천사로 출가했습니다. 이승에 오기 전부터 수행의 인연과 공덕이 컸던지 선지식들을 두루 참방하여 배웠고 스스로 참구해 깨친 경지도 높았던 스님은 당대의 10대 법사로부터 차례로 공부하여 교리에 두루 통달했습니다.

무엇보다 화엄학의 대가였던 연담 스님은 당시의 또 다른 화엄 대가인 묵암(默庵 1717~1790) 스님과 학문적 논쟁을 벌여 불교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담 스님의 화엄에 대한 견해는 '마음이 곧 만물'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그의 저서 <임하록(林下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동사열전>에 한 대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성인이나 범인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같이 그 근본 바탕은 허철영명(虛徹靈明)하며 뚜렷이 홀로 존재하는 실재이다. 나지도 소멸하지도 않고 시간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속되어 있는 것이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허공과 같아 공간적으로 없는 곳이 없고 시간적으로 끊임이 없는 것이다."

미황사 부도밭에서 만난 선지식들은 서산대사의 법손들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정진력으로 교학을 익혔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선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염불을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교를 둘로 여기지 않은 서산대사의 가풍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산대사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의발을 대흥사에 보관토록 하라고 말한 까닭을 미황사 부도밭에서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서산의 법이 달마산에서 피어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푸짐한 감동이 미황사로 돌아가는 오솔길의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연꽃처럼 아름다운 수행자들의 삶을 그려보게 합니다. 부도밭에서 절로 가는 길은 깨달음의 길입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3〉

염하는 자가 누구인가?
〈念〉

조주 스님이 문하 대중에게 설법했다.
"부처를 염(念)하는 일이나 법(法)을 염(念)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학인 자신의 염(念)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염하는 자가 누구인가?"
학승이 말했다.
"반려(伴侶)가 없습니다."
조주 스님은 혀를 차면서 야단치듯 소리를 질렀다.
"이 당나귀야!"

師示衆云 不得閑過念佛念法
僧乃問 如何學人自己念
師云 念者是誰
學云 無伴 師叱者驢

자기 자신에 대한 염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염법(念法)을 말한다. 오늘날 간화선과 비슷한 선불교 초창기의 염법이다. 조주 스님이 학인에게 "염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물은 것에 대해 학인은 "반려(伴侶)가 없습니다"하고 대답했다. 사실 이 대답은 흠잡을 곳이 없을 듯해 보인다. 나(我)는 원래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는 것이므로 짝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혀를 차면서 야단치듯이 "이 당나귀 같은 놈아!" 하고 소리를 냅다 질렀다. "그래가지고는 천방지축으로 이리저리 날뛰는 당나귀 밖에 더 이상 될 것이 뭐있나?" 하는 소리이다.

염하는 자에 대해 학승은 분명 일리가 있는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조주 스님은 호통을 쳤다. 도대체 이 말은 어디에서 흠이 있는 것일까? 독자들은 한번 연구해 보길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해 만일 본 납자에게 "염하는 자가 누구인가?"하고 묻는다면 본 납자는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하고 말하겠다. 천하의 납자들이여, 이때 어떻게 해야 조주 스님에게 야단을 맞지 않겠는가?

조주 스님이 법당에 나와서 대중에게 설법했다.
"만일 제1구라면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 되고, 제2구라면 인간계 · 천산계의 스승이 된다. 제3구라면 자신도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하리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제1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불조(佛祖)의 스승이 된다."
조주 스님이 거듭 말했다.
"그런데 앞의 것부터 제기[頭起]한 것은 참 잘한 거야."
학승이 다시 한 번 더 묻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웬걸, 이번에는 인천(人天)으로 갔군."

上堂示衆云 若是第一句 與祖佛爲師 第二句 與人天爲師 第三句 自救不了
有僧問 如何是第一句
師云 與祖佛爲師
師云 大好從頭起
學人再問
師云 又卻人天去也

제1구는 첫 마디이고, 말의 우두머리이고, 선(禪)의 핵심을 요약한 한 마디이다. 제2구는 재차 설명하는 말이고 좀 쉬운 말이다. 제3구는 거듭거듭 아주 쉽게 해석한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제2구나 제3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이해는 하겠으나, 제2구나 제3구에서는 절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서는 한낱 어떤 지식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선사가 하는 첫 마디, 제1구에서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가히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 되고도 남는다.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오늘날 깨달음을 얻은 붓다라면 오래 전의 붓다들에게 가르칠 것이 참 많을 것이다. 그동안 남기고 간 수많은 붓다들의 이력을 다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 붓다들에게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묘한 방편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선사의 첫 마디 제1구에 깨달아야
조사 · 부처의 스승이 되고도 남는다

그런데 제1구란 도대체 어떤 류의 말인가? 여기서 조주 스님은 분명 학승에게 제1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인이 제1구를 알아채지 못하고 거듭 물어보므로 해서 학승은 제2구, 3구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주 스님의 1구는 무엇인가? 바로 "불조(佛祖)의 스승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제1구이고 선문(禪門)의 오묘한 법을 일러준 한 마디이다.

납자들은 이제 제 1구가 보이는가? 만일 보인다 해도 이미 본 납자의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2구를 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조주 스님의 이 1구는 무슨 뜻인가? 이것을 설명하면 금방 2구가 되므로 설명은 할 수 없고 이와 유사한 말을 대신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불조(佛祖)는 불을 지르고 제1구를 아는 자는 불을 끈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일렀다.
"이것은 그가 끄집어내지 않음도 아니고 내가 대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장차 무엇으로 대하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은 길게 일성(一聲)을 울렸다.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장차 그것으로 대답하시는 것이라면 학인의 부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가 조금 전에 나를 긍정했다면 나는 그대의 부탁을 저버린 것이고, 만일 나를 긍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대의 부탁을 저버린 것이 아니야."

師是衆云 是他不是不將來 老僧不是不祗對
僧云 和尙將什麽祗對
師長叮一聲
云和尙將這箇祗對 莫辜負學人也無
師云 你適來肯我 我卽辜負 若不肯我 我卽不辜負你

선객들의 주제는 항상 도(道)나 선(禪)에 대한 것이다. 대담 중에 주제어가 빠져있으면 그것이 곧 도에 관한 주제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학승들이 선사에게 와서 질문할 때마다 사실 그것이(道) 들어있지 않음이 없다. 다만 학승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선사가 어떠한 방편을 쓰던 역시 그것이(道) 들어있지 않음이 없다. 다만 눈이 어두운 자는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알리는 것일까? 학승의 이 질문에 조주 스님은 '장탄식'을 해 보였다. '장탄식', 이 어찌도를 들어 흔들어 보임이 아니겠는가? 그러하지만 눈 밝은 납자라면 이 '장탄식'에 하자(瑕疵)가 있음도 보여야 한다. 다행이 학승이 그 하자를 찾아내어 조주 스님에게 "그런 표현을 하시다니, 대단히 실망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그대의 부탁에 부응코자 한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마쳤다. 이 또한 2구가 되지만 대중을 위해 마지막에 부언해둔 것이다.

그런데 학승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 곧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 했으니, 납자들은 조주 스님의 그 내밀한 의도를 알겠는가? 이 뜻은 황벽 스님이 임제 스님의 질문에 주장자 3번을 내린 뜻과도 같다.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빨리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기 바란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⑭ 전심법요

달마선의 근본을 해명하다

선의 목적은 깨침이다. 깨침은 궁극적으로 지혜의 계발이다. 이런 까닭에 선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한 자성의 개현으로서 결국 심(心)의 문제로 귀결된다. 애초에 청정한 마음에 계합되는 즉심즉불(卽心卽佛)이라든가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승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과 같은 말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표현한 말이다. 일찍이 혜가는 달마에게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원컨대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시오"라고 문의했을 때 달마는 곧장 "그 마음을 보여달라. 그대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리다"라고 말했다. 그 사실(史實)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8세기 말부터 9세기에 걸쳐 마조 – 백장 – 황벽 – 임제가 활약할 무렵에 위의 안심문답은 선의 기원(起源)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달마의 이름에 가탁한 다양한 어록이 등장했다. 황벽의 〈전심법요(傳心法要)〉는 그와 같이 심법의 요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마선의 근본적인 진리를 해명하려는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전심법요〉는 황벽희운의 설법을 속가 제자인 배휴(裴休: 797~870)가 필록한 것에 근거한다. 그 필록이 강서의 종릉(鐘陵)에서 회창 2년(842)의 설법과 완릉(宛陵)에서 대중 2년(848)의 설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본서문에서 배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


고행(苦行)(40×60㎝) 2007 봄, 한지수묵담채. 담원 김창배.

황벽희운은 복건성 복주의 민현 출신이다. 그 전기는 〈조당집〉 권16, 〈전등록〉 권9, 〈송고승전〉 권20, 〈천성광등록〉 권8 등에 수록돼 있다. 복주의 황벽산에서 출가하고 천태산에 유화하고 강서성 백장산의 회해에게 참문해 그 법을 이었다. 배휴의 청에 응해 강서성 종릉에서 고향의 산을 본따서 황벽산이라 이름하고 선풍을 거양했다. 842년에는 용흥사에 주석하고, 848년에는 안휘성 완릉의 개원사에 주석했다. 시호는 단제선사이다.

황벽희운은 그 문하에 임제의현(?~867)을 배출했다. 〈송고승전〉에 수록된 그 전기의 말미에는 "그 어록이 세상에 유행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이 어록(語錄)이라는 용어의 최초이다.

배휴(791~864)는 선종황제 시절에 재상을 지내면서 큰 공적을 남겼다. 유학자이면서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규봉종밀(780~841), 동경 봉선원 원소(811~895), 청량징관(738~839), 경사 대안국사 단보(781~836), 경산지현(809~881), 보수원 신지(819~886), 위산영우(771~853), 황벽희운, 천경초남(813~888) 등과 교류를 가졌다. 또한 종밀의 〈선원제전집도서〉 및 〈원각경약소〉에 서문을 쓰고, 황벽의 〈전심법요〉의 서문을 썼다. 방온거사, 무진거사 장상영, 동파거사 소식, 이고거사 등과 더불어 중국 불교의 대표적인 거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전심법요〉는 훌륭한 기본적인 선학개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논리적인 근거가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전심법요〉는 전체적으로는 〈황벽산단제선사전심법요(黃蘗山斷際禪師傳心法要)〉와 〈황벽산단제선사완릉록(黃檗斷際禪師宛陵錄)〉의 2부로 구성돼 있다. 대중 11년 10월 8일자 배휴의 서는 전자에 대한 서문이지만 그것이 인연이 돼 다른 제자들이 완릉에서 행한 설법을 정리한 것이 후자이다. 곧 전자는 배휴에 의한 종릉과 완릉에서 행한 설법의 기록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완릉에서 행한 설법의 기록이다. 다만 완릉에서 행한 설법의 기록은 이 이외의 기록도 달리 남아 있는데 명대의 〈사가어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심법요〉의 텍스트는 예로부터 일정했다. 마조도일 – 백장회애 – 황벽희운 – 임제의현 4대의 어록을 모은 〈사가어록〉이 편찬된 것은 원풍 8년(1085)이지만 〈전심법요〉는 그 중요한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사가어록〉은 명나라 시대에 재편된 것으로 〈완릉록〉의 후반에 현저하게 증보된 흔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천성광등록〉 권8의 본문을 그대로 부가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본래의 텍스트는 유포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가어록〉의 편집에 앞서 영명연수의 〈종경록〉에 부분적으로 인용돼 있는 것과 경력 무자년(1048)에 남송의 천진(天眞)이 〈전등록〉 권9에 부가한 그 수부(首部)는 현재의 유포본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북송 말기부터 남송 초기에 걸쳐 복주 지역에서 출판된 2종류의 대장경에 포함된 텍스트는 현재의 유포본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한국에 전해진 〈선문촬요〉 상권의 텍스트도 또 완전히 동일하다. 다만 명판 대장경에 포함된 〈전심법요〉로서 대정신수대장경 제48권 수록본 및 명판 대장경 〈고존숙어록〉 권5에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는 후세에 수정된 것이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당신의 운을 열고 발복(發福) 시키는 천도 도자기 출현?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 조상이 저승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 이승에서 자손들도 정리정돈이 안되며 발복이 안되는 것이니라"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성공 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 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 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세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 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 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 **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 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쳐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몽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도자기를 처소에 두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 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히여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 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 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치우천왕 검색

◆ **무료사은품 :** " 기도의 비밀 " 책자 + 치우천왕 CD + 치우천왕 적령부 카드 2장
내마음의 절에서는 현대과학이 개발한 기(氣), 측정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을 측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 치우천왕 氣가 나오는 도자기 " 대박상품!! 가격 : 49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 내마음의 절) ■ 전화 : **1661-2575**

사)대한불교전통문화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본 불교대학(부산무형문화재제9호 작법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범음범패 불교의식반을 모집합니다.

- 아 래 -

1. 과 목 :
- **부산영산재 무형문화재** 제 9호(나비) 작법무
- 천수바라 (다게작법, 운심게작법, 사다라니작법, 삼귀의작법)
- 삼신이운, 거불, 복청게
- 사물

2. 교육시간 : 매주 월 · 화요일
(2010년 9월 6일 입교)
오후 1시~3시 : 범음 범패(통영안정사소리) 및 사물 다루는 법
오후 3시~5시 : 제 9호 오공양 작법무. 천수바라

3.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1동 447-4 해동사
1) 부산 영산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스님 직강
2) 수료기간 1년 (10개월)
3) 성적우수한 학인 무형문화재 작법무 전수장학생 추천
4) 사)대한불교전통예술원 입학식 및 수료식

접수처 : 010-2563-5550 / 051)336-8975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귀 해동사
부산영산재 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 연수원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3-01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내어쓸 줄 아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

각화사 주지
혜담 스님

혜담 스님은 ...
1949년 울산 출생.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 졸업. 해군군종법사 대위로 전역.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선우도량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과 재심호계위원 역임. 지금은 검단산 각화사 주지이며 재단법회 대각회 이사. 역 · 저서로는 〈반야경의 신앙〉 〈반야불교 신행론〉 〈대품 마하반야바라밀경〉 〈방거사어록강설〉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등 다수 있다.

'마하반야바라밀' 그 자리를 보는데 40년 걸려
광덕 스님 "불자의 수행은 기도와 함께 시작된다"

검단산 깊은 골에 자리 잡은 각화사는 신선이 사는 곳이다. 소나무와 굴참나무들이 울울창창하여 빛살이 쉬이 내려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늘져 있다. 이런 곳에 절이 있기나 할런지 의구심을 품고 몇 구비를 돌고 돌았다. 저 멀리 단청을 입힌 당우가 얼핏 눈을 스친다.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골이 깊어서 바람과 구름이나 쉬었다 가는 이곳에 바랑을 내려 놓은 스님의 마음을 헤아려본다. 아마도 견성하고야 말겠다는 분심 하나로 이곳에 터를 잡았을 것만 같다.

각화사에 들어서면 바깥소식은 귓등 밖 소식으로 들릴 것 같다. 혜담 스님의 거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슴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먼저 자리를 차고앉은 푸른 소나무와 구름과 산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생각이 부질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통유리를 통해 보이는 풍광은 더욱 선명해 보였다. 산 너머의 산 그리고 또 산 너머의 산이 겹겹이 두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 너머의 그곳에 가 닿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킨다.

혜담 스님은 선방 수좌이면서 학문연구에도 열정을 바치는 분이다. 불광법회를 만들고 불자들의 문사수(聞思修)교육에 열과 성을 바친 은사 광덕 스님을 가까이서 모셨다. 스승의 사상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하반야바라밀'을 이어받았다. 스승은 영민한 혜담 스님을 상좌로 도반으로 생각하였고 많이 아꼈다. 광덕 스님은 반야바라밀을 "일체 허망을 깨뜨리고 진실만이 온전히 드러난 궁극적 진실이며, 영원히 변치않는 궁극적 실체이며, 실상생명"이라 했다. 혜담 스님은 '마하반야바라밀' 연구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3년 동안 경상 앞에서 밤을 낮 삼아 공부하였다. 그 공부를 이어 방대한 <대품 마하반야바라밀경>을 번역하기도 했다.

불교와의 연이라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도덕교과서에 실린 설산동자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사람은 나도 언젠가는 죽고 꽃은 피어도 곧 진다/ 이것은 생명 있는 것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담임선생님께 묻고 싶었지만 어린 마음에 선생님도 틀림없이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이 문구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출가를 하고 보니 그 이야기가 나와 있더란다. 스님은 전생에 아뢰야식 속에 남아있던 그것이 큰 의문으로 작용한 것이라 여겼다. 고등학교 때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었고, 그때 불교신문도 받아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남짓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출가해버렸다. 출가하고 보니 속가에서의 이런저런 인연들이 출가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 날 걸망을 메고 칠불암 선방으로 갔다. 졸업식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바람같이 쌩 하고 칠불암을 찾았으니 선수행에 대해 얼마나 목말라했는지 알 수 있다. 화두를 참구한지 40여 년이 되니 구멍 난 좌복을 몇 개나 버렸는지 모를 일이다. '마하반야바라밀' 그 자리를 보는데 출가하고 40년이 걸렸다면서 스님은 자신의 공부를 뒤돌아보는 것으로 법문을 열었다.

"수좌들 중에는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을 화두로 들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무문관> 제1칙에 이미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에 대해 '있다 없다'를 떠난 세계라고 답을 해놓았어요. 화두는 의심인데, 이미 알고 있는 화두를 잡고 있으니 공부가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화두란 의심이다. 온 몸이 전체로 그 문제와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태가 의심이다. 의심이란 간절하게 생겨야 하는 것인데 억지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불교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의 거침없는 말씀은 오랜 세월 치열하게 자신의 공부를 챙기고 점검한 데서 나온 것이기에 진실하다. 좌복에 구멍이 나도록 수십 년 간 화두를 참구하다가 그만 뇌혈관이 터져버린 일이 있었다. 이태전의 일이다. 선객이 화두가 터져야 할 일인데 뇌혈관이 터져버렸으니 암담하고 난감한 것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마음을 관하기 위해 머리를 너무 혹사시켜 버렸으니 자신의 공부에 문제점이 있음을 절감한 사건이기도 하다.

본래가 공이고 '마하반야바라밀'인데, 머리는 어디에 있으며 터질 머리는 또 어디 있는가? 자신의 공부를 돌이켜보았다. 광덕 스님의 '마하반야바라밀' 법문을 다시 들어보았다. 출가하고서부터 공을 깨닫기 위해 화두에 매달렸을 뿐, 기도에 대해 그다지 달갑지 않게 생각해 온 터이다. 그런데 "불자의 수행은 기도와 함께 시작된다"는 은사스님의 그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광덕 스님의 법문 중 '마하반야바라밀'에 관한 법문만을 뽑아서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라는 책을 내었다.

"마하반야바라밀에 관한 법문을 책으로 엮는 5~6개월 동안 '마하반야바라밀' 화두가 절로 들리더니, 어느 날 마하반야바라밀 그 자리가 보이데요. 조사스님들이 '견성하라'고 '마음을 보아라'고 왜 그렇게 절실하게 당부했는지도 알겠더군요."

마음자리를 보았더니 허공처럼 생겼더란다. 허공은 지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듯이 우리 마음도

제8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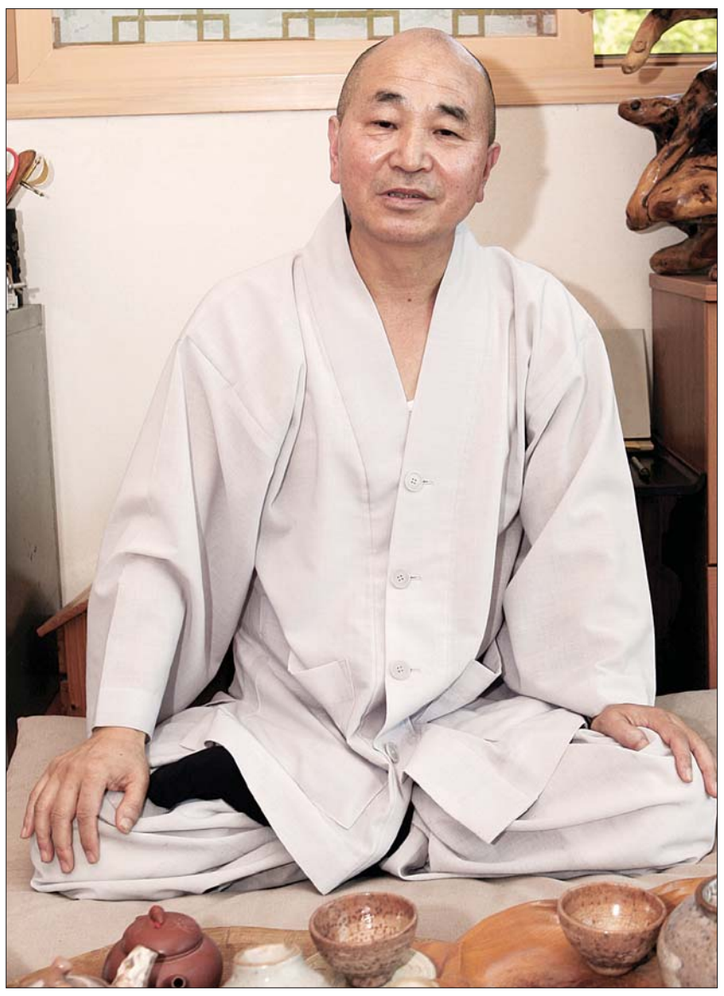
- 일 시 : **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음, 9월 3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0일 (음, 9월 3일)
  - 3재 : 양력 10월 24일(음, 9월 17일)
  - 5재 : 양력 11월 7일 (음, 10월 2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1일 (음, 10월 16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천도재 준비관계로 미리 접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약천사 방생법회 : 2010년 11월 28일 (음, 10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아침마다 '금강경' 읽으세요



지구 이전부터 있었다. 허공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증불감이다. 허공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절대청정이며, 원만구족하여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즉 내 마음이 본래 허공과 같기에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허공과도 같은 내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내어 쓰면' 된단다.

스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해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의 내 마음을 보셨는지 갑자기 질문이 날아왔다.

"불생불멸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생기는데 왜 생기지 않는 것이며 멸하는데 왜 멸하지 않는가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예,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혹은 '질량불변의 법칙'을 떠올리면 불생불멸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혜담 스님은 나의 대답에 긍정도 부정도 아니 하시고 전깃불을 예로 들어 법문을 이어갔다.

"음극과 양극이 합해져서 불이 켜지잖아요. 전등불은 1초에 60번 깜빡거리는데도 우리 눈에는 필름이 돌아가듯이 계속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요. 말하자면 1/60초 동안에 전극이 붙어있다가 1/60초 동안에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전깃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붙어있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지요. 전기가 없는 1/60초 그 순간에 무엇이 있는가?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하여 그 사이에 없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있는 그 순간'을 알아야 합니다. 있는 순간에도 있고, 없는 순간에도 있는 것이 부처입니다."

범부들은 있다는 세계와 없다는 세계만을 인식하는데, '있다 없다'를 초월한 그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한단다. '없는 것이 있는' 그 순간이 공(空)인데, 그것을 보아낼 줄 알아야 한단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우리는 죽으면 없다고 하지만 죽으면 살아있는 것이 없어진 것이다.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도장에 비유한다면 살아있는 것은 양각이요, 죽어 있는 것은 음각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것이며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불이(不二)의 관계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무한정으로 내어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여쭈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창공을 거침없이 날아가고 있었다. 스님은 새를 가리켰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성경>에 '저 하늘을 보아라. 저 새 들이 언제 먹는 것을 걱정하더냐, 하늘의 새가 잠자리를 달라고 하던가. 그런데 여호와가 다 준다'는 대목이 있어요. 이것을 불교식으로 바꾸면 '저 하늘을 보아라. 저 새들이 언제 먹는 것을 걱정하더냐, 하늘의 새가 잠자리를 달라고 하던가. 그런데 이미 다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가 되겠지요. 이 말은 태어날 때 내가 불성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갖추어진 불성을 그대로 내어 쓰면 돈이 생기게 되어 있고 밥이 생기게 되어있고 건강이 생기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새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본성에 따라 먹이를 찾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을이면 남대천에 연어가 올라오는데 이때 수많은 새들이 본성적으로 알고 몰려옵니다. 우리도 본성을 보면 본성자리에 서게 됩니다. 본성자리에 서면 본능적으로 돈이 있는 곳을 알고 명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광덕 스님의 이 법문은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잘 살고 싶어도 부처님께 기도해야 하고, 저쪽 세계를 보고 싶어도 부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내어 쓴다'는 깊은 뜻을 알고 싶었는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오히려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다. 스님은 한때 장안의 지가(紙價)를 올렸다는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느냐고 물으셨다. 고개를 끄덕였더니, "이 책은 불교의 '일체유심조'를 차용하여 일반인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았어요. 그런데 광덕 스님께서 설한 마하반야바라밀 법문도 이와 똑같은 것이네"라고 했다.

시대가 물신(物神)주의이다 보니 종교가 물신교가 되고 기도가 점점 더 기복화 되어가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기도를 통하여 바깥에서 무언가를 구하려는 기도는 불교적인 기도가 아니란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 쓸 줄' 아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란다.

기도에 대한 개념이 깨어지는 순간이다.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침에 <금강경>을 한 편 읽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부처님 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공덕을 내어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관세음보살기도를 할 때 우리 불자들은 자연적으로 관세음보살이 '나를 낫게 해줄 것이고 나에게 열쇠를 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젠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관세음보살' 화(化)해야 하고 내 안에 관세음보살이 지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그것을 '내어 쓴다'는 믿음이 굳건하게서 있어야 합니다. 100% 믿는다면, 새가 먹이를 찾아가듯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저절로 가게 되어있어요."

임제 스님이 '수승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승함이 온다'고 했듯이 불성자리를 익히게 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저절로 오게 되어있단다. 기도란 '내 생명 속에 넘쳐흐르는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 온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젠 선계(仙界)에서 속계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다. 옷자락에 묻혀올 것 같은 안개도 그 자리에 두고, 마주했던 소나무도 그 자리에 두고, 휘장처럼 겹겹이 둘러쳐진 산도 그 자리에 두고 산문을 나섰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객원기자)



한국불교 승려열전

용성진종(龍城震鍾, 1864~1940)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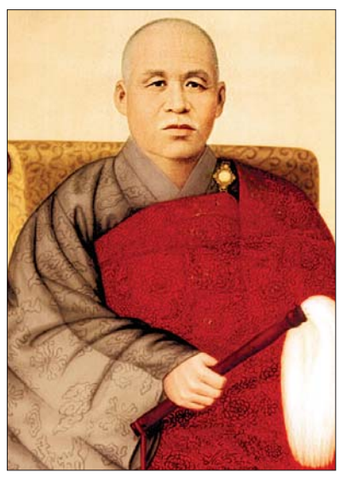
대각사 창건… 현대 한국 불교의 출발점

불제자 그것도 승려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걸어가는 데는 적지 않은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일이고 견줄 길이 없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 부처를 전하고 부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부처를 전하고 부처를 만들어내는 데는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나누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음은 자명하다. 지난번에 운허용하 스님을 소개하고 다시 이번에 용성진종 스님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말 우리 글로 부처를 만난다. 그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혹여 생각해보자. 한문으로 경전을 읽고 한문으로 부처를 말한다. 혹자는 쉽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도통 모를 것이 또한 남의 나라 말이기도 하다. 그것이 우환 많은 식자(識者)가 아니라면 더군다나 그렇다.

누구나 알다시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1443년이고 그것을 세상에 반포한 것이 1446년, 다시 수양대군이 지은 <석보상절>을 따라서 세종대왕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노래로 지은 것이 <월인천강지곡>이니 1447년의 일이다. 이후 적지 않은 불경 언해본들이 조선시대에 등장하였지만,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곧장 불교를 전하는 데 크게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훈민정음, 달리 말해서 우리 문자인 한글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제대로 활용되기까지는 다시 그로부터 5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 혹은 한글이 승려들에게 다시 발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이 땅의 중생들에게 좀 더 쉽게 부처를 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서 한글에 부닥쳤던 최초의 인물이 이 땅에 등장한 것이 1920년에 이르러서였기 때문이다.



용성진종 조사 진영.

용성진종(龍城震鍾, 1864~1940).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의 한 분이자, 그 33인 중 승려로서 참가한 단 두 분 중의 한 분이다. 스님의 속성은 수원 백씨이고, 이름은 상규, 법명은 진종이고, 법호가 용성이다. 1864년 고종 원년에 태어났으며, 1940년에 입적하였다.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2번지. 대로변은 아니다. 종로3가역에서 창덕궁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2차선 도로에 바로 면한 것도 아니고, 한 골목을 들어가서야 나타나는 크지도 않은 사찰이 있다. 대각사(大覺寺)이다. 한국불교의 기나 긴 전통을 담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도 않는다. 2011년 4월 8일이면 창건한 지 100년이 되는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조그만 사찰이다. 하지만 여기가 현대 한국 불교 100년의 또 다른 출발점이자 역사의 산실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10년 만해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했고, 1913년에 출간하였다. <조선불교유신론> 탈고 이듬해인 1911년 빼앗긴 도성의 한 귀퉁이에 지어진 조그만 사찰, 그것이 대각사였고, 그 대각사를 창건한 이가 바로 다름 아닌 용성 스님이다. 수행에 전념하던 스님이 경술국치를 당한 다음 해에 세상을 향해 열어 제친 그 문이 바로 '대각사'였고, 거기에서 하화중생의 오르막길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후 입적하기까지 40년 동안 용성 스님은 만해 스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의 중생들에게 불교의 문을 열어 보였다.

만해 한용운이 대중들에게 익숙한 것과는 달리 스님은 일반대중들에게는 그리 익숙한 인물은 아니다. 만해가 갔던 길과 스님이 갔던 길이 같으면서도 서로 달랐던 까닭이다. 승려로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이다. 스님은 만해보다 15년 연상이었는데, 때로는 만해의 동반자였고 때로는 만해의 비판자였다. 하지만 세상을 향하고 중생을 향해 열린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두 스님 모두 주저함이 없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각사를 창건한 때부터 기미년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의 10년은 부딪침의 세월이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우리 불교전통마저도 빼앗길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중생을 구하고자 중생에게로 왔지만, 중생을 돌볼 틈이 없었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준비되었을 때 거침없이 서명에 동의한 것 또한 그 돌볼 틈이 없었던 중생, 빼앗긴 한숨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하기로는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 중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지를 쾌히 발표하라"는 내용은 스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미얀마 문화원

미얀마 연방정부 우 냔 위인 외무부 장관 내방 목탁스님께 빈민가 우물 파주기 성과에 감사의 뜻 전해



미얀마 연방정부 우 냔 위인 외무부 장관이 종로구 청진동 소재 미얀마 문화원(원장 목탁)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목탁 스님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문화원을 이끌고 미얀마를 위해 실질적인 봉사운동을 진행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우 냔 위인 장관은 목탁 스님께 "앞으로 미얀마를 바르게 알리는 한국의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 하며 어떠한 지원도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양국 관계가 더 큰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글을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앞서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빈민가 우물파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미얀마 양곤 빈민가 지역 중 식수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극빈 마을에 5기의 우물을 파주는 행사를 진행하여 현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협회는 한 번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년 30여기의 우물 파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얀마 연방정부가 공식인정한 미얀마 문화원은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를 바르게 알리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스님, 재가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경제성장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 나와야”

2008년 세계경제 대란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평화재단이 경제난 타계를 위한 강좌를 마련했다. 한국 경제에 대안이 있기는 한걸까?

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수석은 1970년대 한국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경제에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한다. 대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김종인 前 수석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문제이며 이로 인해 경제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경제에 정부의 개입이 일정정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사 : 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 수석 · 前 국회의원)

일시 : 2010년 9월 9일

주제 : 한국경제, 대안을 찾는다

장소 : 평화재단 서초이오빌

주최 : 평화재단


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수석은 9월 9일 평화재단에서 ‘한국경제 대안을 찾는다’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현재 한국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해답 저출산 · 고령화 · 경제우위 위험하다”

#한국경제의 대란이 올까? 이를 타계할 대안은 있는가?

경제라는 것은 특별한 대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속도로 압축성장을 해오면서 신흥국가로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국가가 됐다. 민주화도 마찬가지로 압축된 기간 속에 이뤄졌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이후 한국경제에 대해서 지나친 과신을 하고 과장된 이야기를 하면서 과대 포장을 해왔다. 나라의 규모, 인구의 구조를 보고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모르면 경제 성장을 잘 이끌어 왔지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보다 낮고 조화를 이루면서 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는가? 잘 산다는 것은 경제문제를 어떻게 잘 풀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경제 하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을 물질이 풍부하면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에 전력을 다했다. 그래서 경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면서 상당한 성장을 이뤘다.

서구에서 100년 간에 이뤄낸 것을 한국은 30년 만에 일궈냈다. 하지만 압축성장을 하면서 사회구조는 어떻게 됐는가? 자유민주주의, 평등이라는 헌법과는 동떨어지게 나라 운영을 해왔다.

당시 나라에 돈이 없으니 투자가 없고 소득이 늘지 않자 빈곤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해외저축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여 투자하게 하면서 경제성장과 소득을 이끌어 왔다. 시장경제에 맡겨서 똑같은 전제조건으로 출발하려고 하면 경제가 언제 성장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했다.

부족한 자원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일부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오늘날 재벌 구조가 시작된 시발점이다. 특정기업들에게 자원을 배분하다보니 특정기업만 성장했다. 중소기업은 자본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집중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은 재화가 늘고 부를 이룰 줄 알았지만 보이지 않는 세력을 키우게 됐다.

이때부터 점차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됐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치세력이 경제세력을 앞섰다. 하지만 비등해진 이후부터는 정치세력이 힘을 못 쓰면서 경제세력의 힘에 눌리기 시작했다. 경제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을 움직이는 형태가 됐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론의 광고, 학자의 연구비 모든 것은 기업의 경제력에 의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차 양심마저 잃어가게 됐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비판적인 소리를 내야할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하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경제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한국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여 년 전만해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행동했다. 일본은 1950~1975년 동안 매년 8%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고 80년대 중반까지 4~5%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재테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빠른 경제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1985~1989년 동안 닛케이지수가 3배가 뛰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1995년까지 닛케이지수가 계속 올라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며 세계는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요인이 됐다.

이 문제는 일본이 자국의 한계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일본 인구는 1억 600만 명으로 미국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 나라였다. 일본은 자원도 풍부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 시장에 수출해서 얻은 수익으로 세계 제2의 선진국가가 된 것이다. 모든 국가가 일본을 부러워했다.

1990년대 초 미국에서는 미국의 적 1호가 일본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던 일본경제는 1989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 제패를 호언장담하다가 90년대부터 고꾸라져 지금에 이르렀다.

“가라앉은 일본경제 따라가선 안돼 한국경제만의 대안 찾아야”

1970년대 일본 경제를 경고한 사람들은 일본의 고령화에 집중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 경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펼치지 않았다.

일본의 문제 중 또 하나는 경제의 정치 간섭이었다. 돈과 정치를 연계해 오늘날까지 일본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저환율 정책으로 수출만 늘렸다. 저환율정책은 저소득계층에 고통을 떠넘기기 마련이다. 외환을 벌어들여 국채를 사고, 부동산을 사면서 국내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증권으로 돈의 흐름을 유도하면서 일본경제를 이끌었다. 그러던 중 1985년, 미국은 적자발생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선진동맹국 재무장관들을 모아 뉴욕 맨하탄 플라자호텔에서 플라자 협정을 맺었다. 일본 · 독일 · 프랑스 · 영국 화폐의 가치 절하시켰다.

1달러당 250엔이던 엔화가치를 1달러당 125엔으로 50%가까이 절상시키면서 일본 수출업체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됐다. 이에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부동산 투기가 바람을 일으켰다. 일본경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금융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가

2008년 7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폭삭 가라앉았다. 전 세계가 경제공황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2010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경제가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회의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했음에도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가 금방 추락할 것이라고 긴장했으나 막상 상황이 그렇지 않자 회의에서는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다.

금방 호전될 것으로 예측했던 미국경제의 회복이 왜 느려지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성장은 소비에서 비롯됐다. 미국 경제성장은 소비로 이뤄졌다. 싼 금리로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경제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7000억불 국가수지가 적자를 내도 겁내하지 않았다. 이로 득을 본 것은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다. 달러를 벌어 외환보유를 늘리고 국채를 사서 경제를 살렸다.

최근 미국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소비의 여력이 없어진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경제운영을 하면서부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민영화 · 자유화로 시장경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 미국금융위기다.

우리도 한동안 그렇게 경제운영을 해왔다. 일본은 자국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땅 넓은 미국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만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리=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9월 9일 평화재단 특강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김종인 前 경제수석의 강의를 듣고 있다.


이재복 지음 (270면)

빛 살림
정골요법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요절복통 여래네 집

#27. 엄마의 절약정신



스튜디오 돌













이주일의 화두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법구경



정성들여 만든 불교달력 주문하시면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 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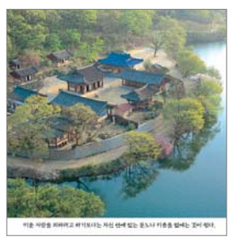
불서보급 37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판매합니다. 달력 1~40호 {국6절·12절·미니·다이어리·한지·탁상}

www.buddhashopping.com

12절 1,100원 (200부 이상)



3호 붓다의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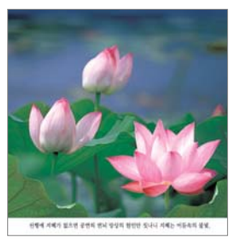
4호 산사로 가는 길



11호 들꽃의 향기가 머무는 산사



8호 관음도



16호 부처님의 꽃



38호 행복달마도 (한지)



30호 나를 다스리는 말 (다이어리)



17호 복 많이 받으세요



15호 반야심경



14호 반야동자



20호 홀로있는 시간



29호 들에도 꽃이피네 (미니)



25호 동승일기 (미니)

달력 할인 가격 표

국6절(大)	1,900원	1,400원(200부이상)
4*6 12절	1,600원	1,100원(200부이상)
차 걸 이	650원	450원(200부이상)
미 니	800원	450원(200부이상)
다이어리	1,000원	650원(200부이상)
한 지	2,200원	1,700원(100부이상)
탁 상	2,700원	2,200원(100부이상)

• 대량주문시 사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 달력·용품카다로그가 필요하신분은 (051)515-8888로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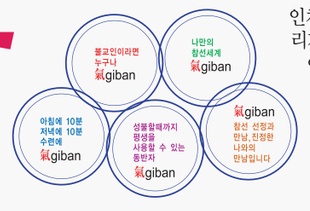
동진기획·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대표번호 : (051)515-8888 H·P : 011-554-2988, 011-879-0889
Tel : (051)515-2988, 555-1087, 508-9377~8, 070-7425-0518
Fax : (051)508-0101 E-mail : dongjin8888@naver.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초기불교 수행 심도깊게 설명

각묵 스님 '초기불교이해' … "해체해서 보기가 핵심"

"대승불교가 가지라면, 초기불교는 뿌리입니다. 가지를 거부하는 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초기불교는 대승불교를 살찌우는 뿌리입니다. 뿌리를 통해 자양분을 흠뻑 빨아들일 때 진정한 대승불교, 올바른 한국불교가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초기경전 연구자이자 번역자인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이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에서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초기불교이해>를 출간했다.

스님은 "이번 책은 빨리 니까야에 바탕해 초기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그 동안 초기불교는 일본과 서양 책을 번역한 것이 고작이었다. 스님은 "이번에 발간된 책은 빨리 니까야에 대한 한국불교의 깊은 이해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책은 빨리 '삼장'을 토대로 한 초기불교 개론서이다. 특히 빨리 '경장' 가운데서도 니까야를 토대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기불교의 토대는 <니까야>와 <아함>에서 비롯되는데 스님은 <니까야>만을 근거로 저술했다.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56가지 주제별로 모은 <상윳따 니까야>를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 <상윳따 니까야>는 5온 · 12처 · 18계 · 22근 · 4제 · 12연기와 37보리분법으로 잘 조직돼 있으며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심도 있게 다룬 경들을 잘 모으고 있다. 또 <청정도론>과 <아비담마 길라잡이>와 주석서의 문헌들을 의지했다.

기존 한국에서 발행된 초기불전의 책들은 단지 초기불교를 쉽게 설명한 입문서일 뿐, 교학과 수행체계를 심도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각묵 스님은 "<초기불교이해>는 초기불교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라며 "초기불교의 입문서를 접해보거나, <니까야>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 책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초기불교에 대해 "초기불교의 핵심은 한 마디로 '해체해서 보기'"라고 말했다.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5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를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를 18계로 해체해서 보고, 생사문제를 12연기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온 · 처 · 계 · 연 등으로 설해지는 법들의 무상 · 고 ·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본문 81쪽)

책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교학과 수행, 둘로 크게 나눠 설명하고 있다. 교학편에서는 온 · 처 · 계 · 근 · 제 · 연의 6가지 주제를 담고 있으며, 수행편에는 37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총 4편으로 나눠져 있는 책은 초기불교의 기본주제, 초기불교의 교학, 초기불교의 수행, 초기불교의 주요 술어로 구성돼 있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읽을 때 딱딱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독하게 되면 초기불교의 교학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각묵 스님은 "초기불교의 이해는 자주적인 한국불교를 구현하는 길"이라며 "부처님의 원음을 통해 중국불교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효 스님이 추구했던 자주불교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묵 스님은 2006년에 빨리 니까야의 첫 번째인 <디가 니까야>를 번역했으며, 2009년에는 <상윳따 니까야>를 번역 · 출간했다. 이어 스님은 <디가 니까야>를 번역한 공로로 2006년 제3회 보현학술상을 수상했으며, <상윳따 니까야>를 번역한 공로로 2010년 제19회 행원문화상을 수상했다.

초기불교의이해|각묵 지음|초기불전연구원 펴냄|2만3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혼자만의 생각을 극락전 마당에 내려놓고 홍척 선사 부도 앞에 섭니다. 겨울 햇살을 등지고 바라보는 부도는 단아하면서도 선명한 세부조각이 화려하기만 합니다. 사각의 지대석 위에 팔각으로 치석된 하대석부터 능숙한 석공의 솜씨가 눈길을 빨아들입니다. 중대석 안상을 장식한 팔부성중의 형상은 위엄이 깃들어 있고 상대석의 연잎 조각들은 지난 여름에 연못에서 따다가 붙여놓은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본문 88쪽)

부도는 흔히 스님들의 무덤이라 말한다. 저자는 그런 부도를 죽음의 공간이 아닌 또 하나의 설법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삶과 죽음은 본래 둘이 아니기에 삶 속에서 죽음을 바로 봐야 하고 죽음 속의 삶을 형형하게 알아차려야 함을 가르치는 곳이 부도밭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법향이 느껴지는 부도밭 28곳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감성을 녹여 부도밭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28곳에서 만난 역대 고승들의 부도탑과 탑비를 통해 사찰의 역사, 고승들의 행적, 부도탑의 조각수법 등을 저자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단정한 문장으로 풀어낸다.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부도탑이야기가 20년 간 불교전문기자로 활동한 저자의 뛰어난 식견과 감성이 어우러져 읽는 재미가 느껴진다.

현재 저자의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은 본지에서 격주로 연재중이며, 책은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의 내용을 묶은 것이다. 2009년 부도를 연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임연태 지음|클리어마인드 펴냄|1만5800원

이은정 기자

데바닷다, 석가모니를 고소하다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꼽히는 석가모니가 소송을 당했다. 석가모니를 고소한 원고는 다름 아닌 석가모니의 제자이자 그의 사촌이었던 데바닷다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미 해탈해 윤회에서 벗어난 인물로, 영혼만 온다는 역사공화국에는 올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데바닷다는 석가모니를 대신해 석가모니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나다고 손꼽힌 사리푸트라를 상대로 재판을 벌인다. 역사 속 라이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판을 벌이는 내용의 '역사공화국 세계사법정'은 원고와 피고, 다양한 증인들의 입을 통해 역사이야기를 흥미롭게 펼쳐나가고 있다. 기존의 역사 도서나 교과서가 단순히 설명으로 전개돼 이해하기 힘들었던 사실들을 법정식 구성으로 극적 재미를 더하고 있다.

'역사공화국 세계사법정' 시리즈 중 <왜 석가모니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을까?>역시 데바닷다과 석가모의 제자였던 사리푸트라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세계사법정에 선 데바닷다는 자신도 석가모니와 마찬가지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했는데 사람들은 석가모니만을 칭송하고 자신을 악인으로 부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리고 그는 석가모니가 여러 제자들 중 유독 사리푸트라만을 편애했고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석가모니의 교단을 떠나 스스로 교단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반면 소송을 당한 사리푸트라는 자신의 동료인 앗사지를 비롯해 아소카 왕 등을 증인으로 불러 석가모니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을 설파한다. 세 차례에 걸친 치열한 공판을 통해 독자들은 고대 인도와 불교의 역사, 석가모니의 사상을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왜 석가모니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을까?|박금표 · 박선영 지음|자음과모음 펴냄|1만1000원

이은정 기자

선이란 무엇인가? 본질에 대한 고민

현각 스님 '선학의 이해'

선(禪)은 언어나 문자 같은 것은 내세우지 않고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심전심의 형식을 전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선을 애초부터 문자로써 설명한다거나 논리적 서술로써 그 실상을 논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선이 우리나라에서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불교학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지만, 선의 경우 선학(禪學)으로 성립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 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선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류적인 해석의 작업과 더불어 선의 의의와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몸담고 있으면서 선학의 방향제시와 역사와 사상, 수행과 선정 등 종합적인 입문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선학을 강의하고 본격적으로 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저자는 틈틈이 준비해 둔 강의안과 단편적인 이론서 등을 참조해 세 가지 방향으로 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부는 선의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인도에서 발생한 선의 근원과 선의 전개에 대해 개설적으로 피력했다. 2부는 선에 대해 선전과 수행으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선전에서는 선경과 선어록에 대해 개괄적인 조망을 했으며, 수행에서는 수행의 방식에 대한 분류와 함께 선문답과 청류를 통해 선의 본질과 그 특성에 대해 조명했다. 3부에서는 그 동안 저자가 주장하고 제기해 온 문제를 중심으로 선사상의 전개에 대해 정리했다.

저자는 "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좌선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 진리를 현실화 하는 것"이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묘수(妙修)"라고 말했다.

저자 현각 스님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출가해 동국대 석 ·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선의 길> <인도의 선 · 중국의 선> <행복에 이르는 뗏목> <날마다 좋은날> <아난의 입 가섭의 마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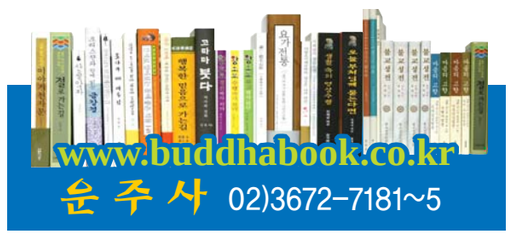
선학의 이해|현각 지음|동국대학교출판부|2만2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6	기도하는 즐거움	보경	불교시대사
7	붓다 브레인	릭 헨슨	불광출판사
8	깨달음으로 가는 즐거움	법산	운주사
9	대의단의 타파, 무방법의 방법	성엄	운주사
10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지난해 '소명'을 시작으로 '위대한 침묵' '회복' '선라이즈 선셋' 등 종교영화의 잇따른 개봉은 일반 극영화에서 느낄 수 없었던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최근 이런 종교영화의 붐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영화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10월 14일 개봉되는 영화 '할'은 2010년 상반기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불교와 기독교 교리를 접목시켜 영혼, 실존, 방황, 출가 해탈 등에 관한 화두를, 유려한 영상과 해학으로 풀어내고 있다.

'할'은 불교 선종에서 그릇된 생각이나 미망 등을 꾸짖어 깨우침을 주는 격려의 소리를 뜻하는 말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형제처럼 자란 고아 우천과 미카엘은 함께 성장하면서 풀리지 않는 종교적 갈등을 겪게 되고, 신부가 된 미카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천은 출가의 삶을 선택한다.

영화는 이렇게 삶에 회의를 품고 출가한 청년 우천과 큰스님 청송이 만나 일명 '부처수업'이라는 1박2일 화두여행을 통해 스승과 제자가 서로 문답해 가며 깨달음을 찾아가는 일종의 멘탈 로드무비다. 감독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카메라에 담은 수려한 경관과 자연의 소리는 영화의 백미를 장식하고 있다. 영화의 중간 중간에는 불경과 성경의 구절을 교차시켜 보여주며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인터뷰- '할' 윤용진 감독



'할'은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의 광고영상을 제작한 중견 CF감독 윤용진의 첫 영화 데뷔작이다. 윤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연출 · 각본은 물론 촬영까지 1인 3역을 담당하는 등 영화 전편에 참여하며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윤용진 감독은 "5년 전 우연히 친구에게서 <반야심경>을 선물 받아 읽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인터넷에서 일일이 뜻을 찾아가며 읽었는데, 그 의미를 알고 난후 40년 간 묵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매일 밤 불교TV를 시청하며 불교에 완전 매료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좋은 불교를 왜 사람들이 모르나 하구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교를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윤용진 감독은 그 후로 지금의 영화 '할'의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달랑 카메라 한 대만 마련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당시 로케이션 헌팅을 하지 않고 정말 오만방자하게 다녔는데, 운이 좋게도 좋은 장면들을 많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영화를 만들어서인지 영화촬영 내내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윤용진 감독은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끼는 지는 관객들 각자의 몫이지만, 이 영화를 통해 각 종교가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하고 사랑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공 가로지른 원효와의 조우

국립경주博 '원효대사' 특별전 11월 21일까지

승려이자 위대한 사상가였던 원효 대사의 삶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1월 21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원효 대사(617~686)를 조명하는 '원효대사'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를 세우고, 일구고, 가꾼 사람들을 돌아보는 기획전 '신라 역사 인물 특별전'의 첫 번째로 마련된 전시이다.

전시는 원효 대사의 삶을 다채롭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원효 대사의 독백 형식을 빌려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대기를 연표와 관련 자료를 모아 도입부에 전시한다. 또한 원효 대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원효 대사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진영들을 함께 전시한다.

이 밖에도 원효 대사의 사상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저술들을 전시한다. 현재 일본 중요문화재로도 지정돼 있는 <판비량론>(8세기)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판비량론>은 원효 대사가 55세인 671년에 행명사에서 지은 것으로 현재 일본 오타니대학에 소장돼 있다.

이밖에 <이장의> <보살계본지범요기> 등 국내에 없는 원효의 저술도 이번 전시에 공개된다. 특히 2009년 가을, 200여 년 만에 재발견된 '문무왕릉비편(文武王陵碑片)'과 원효 대사를 추모하기 위해 세웠던 '서당화상비(誓幢和上碑)'가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끈다. 또한 모사본이지만 일본 고산사 소장의 '원효대사 진영'과 '화엄종조사회전'도 눈여겨 볼 만한다.

이번 '원효대사'전을 기념하고 원효 대사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강연회도 마련됐다. △9월 29일에는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의 니시야마 아쓰시 학예부장이 '화엄종조사회전'-의상, 원효, 그리고 묘에(明惠) △11월 13일에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남동신 교수가 '원효의 저술과 사상'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진정환 연구원은 "원효 대사가 창건했다는 절은 국내에 100여 곳이 넘으며, '원효'의 이름을 딴 길이나 다리 등 우리 곳곳에 원효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원효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원효 대사와 시공을 뛰어 넘어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효 대사는 617년 압량군(현재 경산) 남쪽 불지촌에서 태어나 15세에 출가했다. 낭지, 혜공, 보덕스님 등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그의 도반인 의상 대사(625~702)와의 만남은 그의 삶에 커다란 전기를 가져왔다. 의상 대사와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오르던 원효 대사는 그 길에서 깨달음을 얻고 유학을 포기한다. 그 후 원효 대사는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고, 설총을 낳은 후 환속했다. 속세로 돌아온 원효 대사는 저잣거리와 주막, 기생집을 돌며 대중과 함께하고 그들을 깨우치는데 온 힘을 쏟다 686년 혈사(穴寺)에서 삶을 마감한다.

원효 대사는 150여 권의 저술을 남겼으며 '한마음(一心)' '화쟁(和諍)' '무애(無碍)' 등의 사상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으로 남아 있다.

이은정 기자



원효 대사 진영.

도예공예 대표작가전 한국도자문화협회

한국도자문화협회가 주최하는 '2010 인사아트페어'가 9월 26일까지 추석연휴 기간에 인사동 소재의 14개 갤러리(지유갤러리, 토포하우스, 갤러리 이즈, 갤러리 라메르, 통큰 갤러리, 갤러리 M, 우림화랑, 물파갤러리, 갤러리 가이아, 영아트, 백송화랑, 화봉 갤러리, MG 갤러리, 김영섭 화랑 등) 30여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무형문화재 천항봉 명장 외 도예와 공예 분야의 대표작가 100여 명이 참가해 전통 문화 예술을 한자리에서 체험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특히 탤런트 이상우를 비롯한 10여 명의 연예인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이들의 작품들은 자선경매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그 수익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시기간에는 퓨전국악 공연, 다도회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02)6104-5547

'부처가 입을 열다' 목아박물관 한국 회향전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한 주영한국문화원의 초청을 받아 지난 4월 한 달간의 전시를 가졌던 '부처가 입을 열다-나는 누구인가?'가 한국에서 회향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 특별전시실에서 9월 30일까지 전시되며, 타국의 이방인들이 한국불교미술의 아름다움에 찬사와 감동을 표했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전시기간 중에는 풍물공연, 연등 만들기, 현판 만들기 등 특별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031)885-9952~4

전통 불교문화체험교실 여진불교미술관 5주년

여진불교미술관이 개관 5주년을 맞이해 '전통 그리고 불교문화체험교실'을 마련했다. 10월 6일~11월 25일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이번 체험교실에는 △문화재로 풀어보는 한국사 △한국화로 배우는 불교 △염색한지로 만드는 공예 △도자기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전통과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여진불교미술관은 전통문화를 계승해 문화의 뿌리를 알리고, 불교미술을 다양하게 표현해 불교미술의 역사를 재탐구하고자 설립됐다. (042)933-8466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최연의 산 이야기 <27> 가야산(경남) 1



성주쪽에서 바라본 가야산. 골산이면서 모양이 수려하다.

가야산은 고운 선생이 노닐던 놀이터였구나

〈孤雲〉

가야산(伽倻山)은 백두대간이 덕유산(德裕山)에 이르기 전, 대덕산(大德山)에서 동쪽으로 갈라져간 산줄기가 수도산(修道山)을 일군 다음 남은 기운을 다 떨쳐 빚어놓은 산으로 산세가 웅장하면서도 수려하고 또 살기(殺氣)를 띠지 않아 지덕(地德)이 두텁다.

가야산은 신라시대부터 '삼재(전쟁, 가뭄, 홍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삼재불입지지(三災不入之地)의 영산(靈山)으로 일컬어졌다. 임진왜란 때도 소백산(小白山), 오대산(五臺山)과 더불어 왜적의 침략이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가야산 동북쪽에는 <정감록(鄭鑑錄)>에서 말하는 십승지(十勝地) 중의 하나인 만수동(萬壽洞)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둘레가 200리나 되며 오래도록 몸을 보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伽倻山下南 有萬壽洞 周回二百里 可得保有] 정감록에서 말하는 만수동은 합천군 가야면 가천리 숭산(崇山)을 가리킨다. 이 숭산의 정북쪽에 가야산의 연봉이 솟아 있다.

가야산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이 옛날 대가야국이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인도의 불교성지인 부다가야 근처의 가야산(범어로는 '소'를 뜻함)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가야산은 일명 우두산(牛頭山)이라고도 하는데 산 정상에 소머리처럼 생긴 우두암(牛頭岩)이라는 바위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주봉은 해발 1430m의 상왕봉(象王峰)이며 그 둘레를 두리봉, 원기봉, 단지봉, 남산 제1봉, 매화산, 마령, 이상봉 등 1천m가 넘는 봉우리들이 에워싸고 있다.

특히 주봉인 상왕봉에는 날씨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우비정(牛鼻井)이라는 샘이 있다.

가야산은 산세가 두텁고 골이 깊어 사시사철 많은 물을 토해 낸다. 물이 넉넉하여 가야산 아래 가야천(伽倻川) 주변의 들판은 옛날부터 가뭄을 타지 않아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땅도 아주 기름져서 "종자 한 말을 뿌리면 소출이 백이삼십 두(斗)나 되었다"고 <택리지>에 적어 놓고 있다. 또 밭에는 목화 농사가 잘 되어 조선시대에는 이 지방을 일러 '의식(衣食)의 고장'이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이처럼 가야산이 지닌 지덕(地德)으로 이곳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전쟁과 흉년을 겪지 않는 복을 누렸는데, 옛 선지자 중에는 가야산의 정기(精氣)가 가야산에 깃들인 사람들만 보듬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을 거둘 큰 힘을 품었다고 말한 이들도 있다. 예언서 <감결(鑑訣)>에 우리나라 도읍 터가 될 만한 땅을 열거하면서 "계룡산이 8백년 도읍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도읍이 가야산으로 옮겨가 가야산 기슭이 1천년 동안 수도(首都)가 되리라"고 전했다. 청화산인(靑華山人)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에서 가야산을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묘향산, 칠보산, 청량산과 더불어 12명산으로 꼽았다. 이 명산들 중에서도 가야산만큼 입구에서부터 살기를 벗고 수려한 산세를 보여주는 산은 거의 없다.

불교신앙의 보고인 오대산과 비교해 보아도 맑고 깨끗한 기운은 가야산이 더 낫다. 그래서 일까, 오대산은 임진왜란의 전화(戰禍)는 면했으나 한국전쟁 때는 치열한 전투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상대적으로 가야산은 한국전쟁의 참담한 비극이 비껴갔다.

가야산 초입에는 홍류동(紅流洞)이라 불리는 계곡이 있는데, 이곳은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선생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고운 선생은 신라가 망하기 17년 전인 918년 제54대 경명왕(景明王) 2년에 고려 태조 왕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반드시 천명(天命)을 받을 것을 예견하여 경명왕에게 '계림황엽(鷄林黃葉) 곡령청송(鵠嶺靑松)'이라는 내용의 상서(上書)를 올렸다. 신라 서울 계림에는 단풍이 들고 고려 서울 송경 곧 곡령에는 푸른 소나무가 무성하다, 다시 말해서 신라의 국운은 사양길에 있고 고려의 국운이 왕성하니 각별히 경각해야 한다는 사연의 상서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치원은 왕의 미움만 사고 말았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최치원은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에 들어가 숨어 살다가 끝내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후세에 그의 높은 학문을 추앙하여 그를 유선(儒仙)이라 불렀고 그의 예언대로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천하의 주인이 되자 그가 살던 경주 금오산(남산) 북쪽의 저택을 상서장(上書莊)이라 불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고운 선생이 형 현준(賢俊) 스님, 정현(定玄) 스님과 더불어 가야산에 은둔하며 도를 닦다 종적을 감췄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가야산에는 최치원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바둑을 두었던 농산정(籠山亭)과 농산에 대한 시귀(詩句)를 새긴 제시석(題詩石), 독서를 했다는 사운당(四雲堂), 가야금을 타며 신라의 망국한(亡國恨)을 달랬다는 학사대(學士臺) 그리고 그가 심었다는 수령 1천년이 넘는 전나무 등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가야산 홍류동 무릉교 옆에는 고운 선생이 썼다는 시문(詩文)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이 바위를 제시석(題詩石)이라고 한다.

바위에 부딪히며 미친 듯 쏟아지는 물소리, 첩첩한 산 봉우리를 호령하네
사람 말소리는 바로 옆에서도 알아듣기 어렵네
사람들 다투는 소리 귀에 닿을까 늘 두려워
저 흐르는 물소리로 산을 덮어버렸네

狂奔疊石吼重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敎流水盡籠山

고운 선생은 유불선(儒佛仙) 삼교(三敎) 모두에 조예가 깊었다. 특히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관련 저술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유명한 고승들의 비문과 전기를 기록한 그의 사산 비명(四山碑銘)은 금석문(金石文)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다.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에는 최치원이 최승우(崔承祐)에게 선도(仙道)를 전수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후세의 선도인(仙道人)들은 그가 선인(仙人)이 되어 아직도 살아 있으며, 지금도 가야산과 지리산을 왕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집

예초기 돌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기계음에 밀려 잠을 깨는 날은 짜증부터 난다.

또 어떤 놈인가? 윗집 해동이? 아니면 풀이 자란 꼴을 보지 못하는 서남이네 이 씨?

나가서 확인해볼 사항도 아니고 풀을 깎으면 깎나보다 넘어갈 일이어서 나는 이불을 당겨 덮으며 잠을 이어나갔다.

"여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울타리가 없어 아무나 마음대로 마당을 들락거릴 수 있다.) 여자 목소리인 것만은 분명한데 누굴까? 밑에 집 아주머닌가? 그 목소린 아닌데.

"애애애애애애애애앵 애애애앵 애애애애애애애앵–"

근데 이번엔 예초기 소리가 가깝다. 마당 어디처럼 가깝다. 소리의 크기도 잠을 이어나가기엔 벅차다. 상체를 일으켜 창밖을 보았다. 낫을 든 아주머니가 돌담을 돌아 집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모르는 사람이다. 순간, 뇌리를 스치는 무엇이 있었다. 가만 오늘이 며칠인가? 벌초 하러 왔구나!

"아니 뭔 사람들이 아침에 벌초를 하고 난리야."

"일찍 하고 빨리 가려고 그러나보지."

"아니 그렇게 빨리 가서 뭐하려구?"

"길이 막히니까 그러겠지. 올핸 할머니가 보이질 않네."

"그래? 아프신가? 하긴 이제 그분도 때가 됐겠지."

아내와 말을 주고받으며 헤아려보니 5,6년은 넘게 흘렀다. 벌초하던 일행 중의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있는 내게 다가오더니 물었다.

"어디서 오셨수? "

"글쎄요. 내가 어디서 왔더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이구 참 그 양반. … 여기가 내 집인데."

'내 집'이라니?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왠지 모를 벽이 느껴졌다.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니 할머닌 허리를 펴고 서서 집과 마주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때까지 이 집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지나간 삶에 대한 회한에 젖어 있던 것이었을까? 할머니처럼 이 집에서 살았다는 사람을 두어 사람 더 만날 수 있었다. 거기에, 이 마을에 살면서 이 집을 거쳐간 가구가 세 집이니 이 집도 내력이 많은 곳이다.

많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위에 무덤들도 많다. 등성이에서 살짝 비켜 지은 집인 까닭에, 등성이를 따라 위에서 아래로 죽 늘어선 무덤 다섯이 집 앞을 막고 있다. 집으로 들어갈 때도 차에서 내려 무덤 옆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죽은 사람의 집 옆을 지나야 산 사람의 집으로 가게 돼 있다. 따지고 들면 이 세상 무덤 아닌 곳이 어디 있으랴. 산 자체가 커다란 무덤이 아니던가?

나는 둥그런 산에 산다
나무와 밭으로 뒤덮인 산,
숲에서 나온 물줄기는 밭을 가로질러 산 아래 들판으로 흐른다
가끔은 구름이 내 오두막을 감싸기도 한다

내 산엔 산 같은 무덤들이 있다
아버지 어머니도 산에 묻혔다
아버진 말이 없는 분이셨다
얼굴을 본 기억이 없는 어머닌 노래를 잘 부르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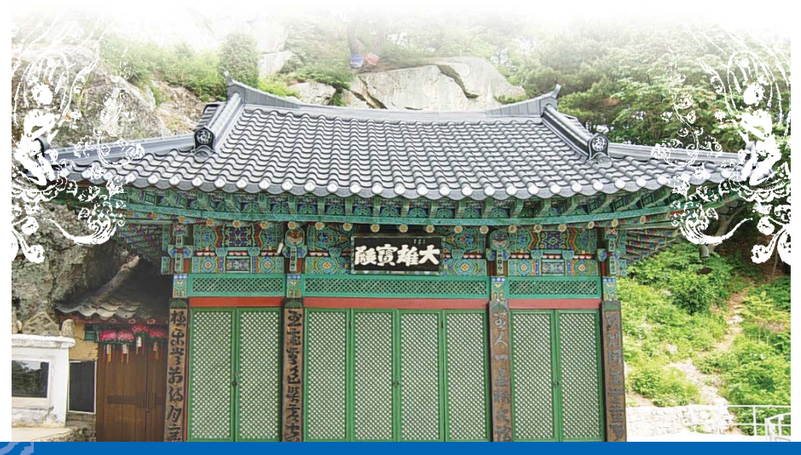
이제 출산 날이 다가온 아내의 배를 보니
무덤을 참 많이도 닮았다

내 첫 시집에 실린 '산'이라는 시다. 무덤에는 죽음과 함께 탄생의 모습이 어려 있다. 죽음이 곧 사라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무덤의 풀을 깎는 사람들의 손길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무덤의 풀을 깎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 땅과 저 바람 · 구름 · 별빛으로 이어지는 집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야 어찌 사라질 수 있을까?

■ 유승도 (시인)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 문의 : TEL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 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 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 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 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 점안식
011-243-3587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바라무,
작법무, 범음범패
010-4870-8359

사찰 종무실
여 사무원 구함
pc, 운전 능숙자
▷부산
051)365-0524
011-9323-3712

절에 일하실 공양주, 처사 구함
가능하면 부부 원합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
011-404-1284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현재의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 분 환영)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011-885-8989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정릉 보림사
02) 919-04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괴산군 천년고찰
010-6414-5600
043)832-6148

읍내 옆 소나무 향기 그윽한 사찰 공양주 모심
▷영덕
010-7109-3281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053)851-108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011-527-0637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혜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1. 극락사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대학) 수시 접수중
2. 극락사 명상대학 (위빠사나-간화선) 수시 접수중
3. 극락사 행자모집 안내 (4대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1) 교육복지 2) 의료복지 3) 노후복지 4) 노후연금
4. 극락사 추모원 (맑은숲 걸어서 극락으로..(나들이공원) 개인단 • 부부단 • 가족단(조상,부모,형제 합동) • 특별단
5. 위치 : 서울시 지하철 양원역에서 300m 나들이 공원 약수터



대한불교 조계종 극 락 사
[종무소문의: 02)434-1717]

기문둔갑 실전 특강
개업, 영업반, 20년 경력 교수 직강
2010년 2학기 (스님 특별우대)
동방대학원대학교
문의처 02)3668-9890 / 010-7178-8709

미국에서 부전 수행하실 스님모십니다
공양주보살, 사무장 모십니다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전망 좋은 신도시와 근접하여 지내기 좋은 곳.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살이 운영하는 사찰입니다
▷경남 김해
055)323-4136
010-3499-3721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하십시요.
☎ 032)664-0048 / 011-741-0867

사 찰 건 축 전 문
사찰 설계, 신축, 보수, 해체, 이전, 토목공사 일체
단순히 목(木)공사를 전문으로 한 한옥 목수의 시각이 아닌 사찰건축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경험으로 생각이 다른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화 070)7433-9919, 031)637-8886

불 사 안 내
산승은 아미타불 대불 조성을 발원하고 천일기도 중입니다.
불사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께 월하 큰스님 친필글씨 전지 2점과 청남 오재봉 선생 친필글씨 2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인연을 지으셔서 세세생생 성불하십시오.
054)853-3855 / 010-9890-1237 만성 합장
이 전화로 연락 주실분은 오전 7시~8시, 12~14시, 17~19시 사이에 연락 주십시오.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031)774-5067 /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佛教儀式 (범음, 범패) 學 人 모 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타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051)524-9406 / 010-6569-1010(법선)

회 원 모 집
世界佛教 宇州 大圓 宗團發展 總聯合會
◆회원종단 : 韓國佛教 一大圓 曹溪宗
大韓佛教 宇州 大 法王宗
世界佛教宇州大圓 宗團發展 總聯合會는 종단연합단체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함께하실 회원종단 및 종도를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회(종)서류
● 입회(종) 신청서 1부
● 사찰 사암 등록증 1부
● 승려(법사) 등록원부 1부
● 사진 3매
● 기타 서류
▣ 특 전
각 회원종단의 화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사찰 사암 개인 재산은 협회 및 회원 종단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世界佛教宇州大圓 宗團發展 總聯合會 회장 도원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8
전화 011-286-2439 / 031)953-7045. 952-4077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영남범패 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 진주 및 울산교육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9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진주교육원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울산교육원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진주교육원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울산교육원 - 울산시 동구 방어동 990-2 〈화봉사〉
■ 문의전화 : 진주 055)747-8419 , 울산 052)201-1468
■ 수 강 일 : 진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 ~ 6시
울산 - 매주 수 ·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7평
- 요사 : 27평 외 3동
- 부지 : 26,000
- 가액 : 15억(조정가)

- 위치 : 강원도(동해안)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50평(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 위치 : 대구
- 법당 : 20외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17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지리산 무릉도원

- 대지 : 2,100평
- 법당 30평, 요사 40평, 토방 10평
- 주차장: 300평(버스 진입 가능)
- 사계절 첩첩, 계곡물 철철
- 야생화 만발, 마당 넓은 사찰
- 가액: 6억 3천만원

부산 근교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6000평
- 전통형 목조 법당 : 35평, 지장전 25평
- 요사채, 산신각, 기타 전각
-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산세완벽
- 텃밭 1500평, 주차장 300평(버스진입 가능)
- 총금액 : 15억 (감정 40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입구
- 2층 건물 중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호신불 200불
- 산신각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4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2702-1149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 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4억 3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대지 : 약 300평
- 법당 : 23평 (90%완성)
- 요사채 : 31평(완공)
- 산신각, 창고
- 가액: 8천만원(절충불가)
- (총공사비는 1억 5천만원소요)
  50년이상된 사찰임

010-9215-47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 아래
- 평수 : 67평(7층중 3층 전체)
- 법당 : 34평
  (방4개, 종무소1, 시설 A급)
- 보증금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됨 ● 즉시 법회

011-329-6606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요지
  4차선 도로 접
- 대지 315평, 건물 3층 180평
- 3층 60평 법당
- 1층 2층 120평 요사
- 12억짜리 8억에 급양도
- 연등 1000개, 인등 500개
- 대출 가능

011-869-8608
큰스님 직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 평수: 2층 건물 중 2층, 35평
- 주차장 완비, 모든 시설 A급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2천만원 월 35만원
  전세, 월세 조정가능
- 시설비 7백만원(조절가능)

010-4870-8359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종교용지 300평, 건평 100평
- 법당, 산신각, 용신, 연못공사중
- 요사채 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 시설용도,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 주택 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대연동 재래시장 부근
- 평수 : 2층 60평
- 법당 30평, 방 3, 주방 大 1
-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9342-9794

주 택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부북면
  운전학원에서 북쪽으로 500M지점
- 대지 200평
- 건물 3동(총평수 109평)
- 3동 중 2층 건물 1동
-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 가액: 2억 1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017-390-335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허심청후문 온천시장
- 평수 50평, 방2, 주방1, 화장실
- 최고시설, 최고위치, 위치 좋음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 평수 약 70평, 3층
- 옥상같이 사용
- 시설완비 주차장 有
- 보증금 전세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0-2972-919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내
- 대지 66평, 사용평수 120평
- 1층 37평, 2층법당 20평
- 법당뒤 밭, 대나무밭 바다가 보임
- 교통편리, 주차가능,
- 도시가스, 화장실 4개
- 가액 : 2억 7천만원
- 주인직

010-3133-001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
- 대지 600평
- 건물: 법당 50평, 요사 30평
- 다용도실 10평, 방사4개
- 가액: 2억 5천만원

010-4775-2799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절충가능)
  사찰터, 전원주택지도 좋음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오창면에서 천안시 사이
- 부지 : 2,000여평
- 법당, 관음전 2동 55평 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2층건물 1동
- (방 많음).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3억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 5천만원

011-452-8374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 대구 부산 IC에서 2분거리 밀양시내 10분거리
- 전답, 임야 388평, 텃밭 200평
- 법당: 30평(원불: 200불, 부처님 11불)
-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10평
- 가액: 2억 2천 5백만원

011-824-5939
010-9418-593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 전기시설 완비, 단독 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남양주 진접 장현리
- 법당 30평 ● 요사 30평(심야보일러)
- 방3, 주방거실, 화장실3
- 공양실(콘테이너) 3m×9m
- 대지 264평(시유지: 50평)
- 가액: 5억(융자 2억포함)
- 전세 1억 5천만원(부동산 사절)

010-8643-6676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내동 3층건물중 2층 60평
- 법당: 삼존불, 지장보살, 후불, 신중, 지장탱화, 인등400, 소불 108
- 시설: 방 3, 종무소, 산신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절충가능
- 소임관계로 급하게 안내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450-7712

사 찰 안 내

- 위치 : 아산시 호서대부근
- 천안과 아산 중간 지역
- 부지 312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창고
- 가액: 1억 7천만원

010-6236-1775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명시 (위치 좋음)
- 3층건물 3층, 총 45평
- 법당 20평, 분리됨
- 방2, 공양간 12평
- 보증금 2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 8년 포교 불사관계로 급 임대

02)2618-09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중구 남성로 약정골목 38번지
- 2층, 3층 합 60평
- 3층 법당, 2층 요사, 방 3 식당거실
- 인테리어 – 황토방 시설A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461-1626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대조동 (연신내역, 구산역 5분거리)
- 총 100평, 지하1층 지상2층
- 대지 72평, 시설은 A급 주차장 있음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10억(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4725-921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내 사찰
- 법당 15평, 요사37평, 방2, 주방, 거실, 컨테이너 방2
- 납골 2,000기 봉안 가능
- 전세 2천만원(양도도 가능)

063)543-5551
010-4427-22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당감동
- 큰도로 시장부근, 위치 좋음
- 대지 62평
- 3층 건물 3층, 법당 32평
- 2층 요사채 32평
- 1억 전세, 보증금 7천만원 월 45만원 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877-54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 평수 : 약 35평
- 5층건물 중 4층
- 청동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지장, 산신 탱화
- 법당, 방1, 주방1
- 모든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317-0582

사찰 전원주택 안내

- 위치: 고양시 삼송신도시 산아래(계곡)
- 대지 300평, 건평 60평
- 2층 신축건물
- 남향, 주차장완비(연못, 산신각가능)
- 전철 3호선 지축역 10분거리
- 가액 : 12억(문의시 안내해드림)

011-347-502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 시내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 38년된 조그마한 절 (비구니 암자)
- 가액 : 9000만원

010-4623-5495

대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 대웅전 108평, 무량수전 50평 외 강당, 요사
- 부대시설 현대식 완비
- 부지 3800평, 주차 동시 80대
- 가액 : 37억
- 가능자 면담

010-9580-3712

시 내 포 교 원

- 위치 : 청주시 단독주택
- 1층 : 방4, 주방, 거실, 욕실
- 2층 방3, 주방, 욕실, 옥상
- 3층 법당 삼존불 모셔서 있음
- 대지 50평, 지하실, 창고 있음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 절충가능

011-753-0768

사찰부지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 (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5)638-1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부근
- 법당 1, 방2, 산신각, 공양실 28평
- 모든 시설 완벽
- 보증금 3,500 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934-5520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10분거리
- 요사채 35평(철근슬라브)
- 공양실 7평, 상담실 4평, 법당 가건물, 삼성각 4평
- 대지 200평, 전 200평
- 가액: 1억 7천(융자 8천되 있음)
- 법사, 보살님 운영하기 적합함

010-4605-01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역6번 출구 옆
- 평수: 55평(7층)
- 시설: A급 모든시설완비(법회중)
- 동삼존불, 원불 500불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0-3579-93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반월당 지하철 중심
- 단독 건물(3층) 전체
- 옥외주차장, 지하, 옥상사용
- 1층 : 종무소 등,
- 2층 : 법당, 3층 : 법당, 후원
- 황토방 원목시공
- 보증금 2,500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

010-6780-6271

도 심 포 교 원

- 위치 : 서울 강동구 5호선 도보 2분거리,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4층건물중 2층, 45평
- 삼존불, 고급무늬목 상단
- 접견실 1, 방3, 실내화장실1, (대형) 복도화장실 1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 집기일체, 도시가스
- 도심속 최고자리, 주차장 완비

011-716-3811

전원주택 인법당 안내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30-1
- 면적 380평, 주거용 주택 38평 (방 3, 거실1, 주방1, 다용도실1, 화장실 2)
- 컨테이너1, 전 60평, ●업무용 주택(법당용) 22평(탕비실1, 화장실2, 주차장완비)
- 인근 대한민국 최대의 예당호와 임존성
- 가액: 3억 8천만원, 전화상담후

011-425-6054
041)333-60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전남 목포 산정동 아파트 1,200세대 입주 예정지, 사거리 대로변
- 총 43평 , 4층 건물에 3층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535-24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봉천동 3층에 3층
- 55평(주차1대)
- 법당,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용왕탱,
- 영가단, 종무소, 스님방, 주방, 화장실2, 창고2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보증금 시설비 절충가능
- 꼭 하실 스님만 오후 2시 이후에 전화주세요

010-4768-0108

암 자 ·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4천만원(절충가능)
- 거창 토굴터, 1017평

055)632-3840
011-9393-49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역전 근처
- 건물 특 A급, 법당, 부처님관세음, 약사 지장 칠성, 동자 분수대 종합탱화
- 평수 3층, 주택 중 1층 25평
- 주차장용도 창고 있음
- 1층 단독 사용, 방3, 주방, 거실, 화장실
- 법당 확장 관계로 이전했으니 소원성취 이루실 분 환영, 스님, 보살님, 철학인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675-316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보성 대원사 벚꽃길 중간에서 산속 200m 전용도로 끝 지점
- 백련암 옛 절터, 홍송, 편백나무 숲
- 주위 산은 국유지, 부지 1000여평
- 법당 10평, 요사채 3, 누각 1, 연못
- 가액: 4억 5천만원, 전세 1억 가능

061)322-3269
010-6512-5367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35 발뒤꿈치

각질 제거보단 자세교정이 우선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가면 자신의 발뒤꿈치 각질을 없애고자 깎고 문지르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전신의 체형관절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하나의 톱니바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연결구조상 한 부위의 문제가 전신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뒤꿈치의 각질은 전신 체형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발뒤꿈치에 각질이 생기는 이유는 전신의 체중 하중이 유독 발뒤꿈치에만 쏠리는 신체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상체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골반과 배가 튀어나오며 무릎관절이 구부러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무릎, 골반, 상체의 무게중심이 앞쪽에 실리는 것을 막고자 체중 쏠림 현상이 생기는데 체중 하중이 유독 발뒤꿈치에만 쏠리게 됩니다.

상체가 지나치게 앞쪽으로 쏠리면 골반과 무릎의 상태는 자연히 발뒤꿈치에 하중을 전달시켜 족부 계측기(Press Cam) 측정 시 발뒤꿈치에 심각한 하중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발뒤꿈치 이상과 동시에 체형 불균형을 갖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만성적인 무릎, 허리통증과 함께 발뒤꿈치 질환과 각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장시간 하이힐을 착용해 발이 변형되고 발뒤꿈치 각질이 늘어난다는 여성들이 상당히 급증했는데, 이것도 전신체형과 골반이 틀어지고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걸을 때 갑자기 발뒤꿈치가 심하게 아프고 발을 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하중을 받는 뒤꿈치 중앙의 통증 때문인데, 아침에 바닥에 발을 처음 딛을때 그 통증이 가장 심하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갑자기 운동량을 늘려 발에 긴장을 가할 때 발생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뒤꿈치뼈(Heel Spurs)가 너무 크거나 근막자체의 만성염증이 생길 때 나타나며, 발바닥의 부드러운 부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얇아지고 퇴행성변화를 겪게 될 때에도 나타납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압박을 일으키고 뒤꿈치 부위에 만성염증을 야기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과도한 운동 (마라톤, 등산, 조깅 등) △급격한 체중 증가나 비만 △오래 서있는 경우 △평발이나 아치가 높은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 △노화 △체형 불균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불균형한 체형과 발이 변형된 상태에서 계속된 보행과 불균형한 자세를 지속하게 될 때입니다. 이를 지속할 경우 관절과 근육이 노화되며 이와 함께 심각한 퇴행적 변형이 진행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보통 이러한 발 문제가 낡거나 좋지 않은 구두를 착용할 경우 더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발 건강에서 신발은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는 멋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신발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디자인과 멋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도 발 건강 문제에 한 몫을 합니다. 이제 신발을 고르실 때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강도 함께 생각해 고르는 것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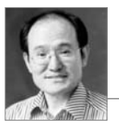
불편한 신발로 체형이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발뒤꿈치의 굳은살과 각질이 생기는 등 이상증상은 계속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 해서 발이 불편하고 변형되는 것은 전신의 체중 쏠림으로 인한 비대칭 현상이 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필자에게 척추와 골반불균형 체형교정을 위해 방문하는 회원 분들은 공통적으로 발뒤꿈치의 각질과 굳은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물론 우선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세교정과 골반·척추교정관리를 통해 전신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발의 변형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발의 변형을 막아주는 깔창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23 몸이 무겁다

'몸에 좋은 것'에 의존하지 마라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몸이 무겁다', '잠이 점점 늘어만 가는데도 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때로는 낮 동안에 갑자기 완전히 힘이 빠진다거나,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오래 자고도 일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허(虛)하다'고 하기도 하고 만성피로라고만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만성피로의 첫 번째 경우는 수면 부족이다. 수면부족과 수면장애가 며칠간 계속되면 낮 동안의 피로는 필연이다. 그러나 잠을 자려 해도 잠을 이룰 수 없거나 습관적으로 잠을 깰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불면이 아닌 경우에도 평소보다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거나, 갑자기 체중이 느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호르몬 장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남성호르몬, 여성호르몬의 저하를 들 수 있겠다.

안색이 창백하다거나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진다거나, 숨이 차고 심장의 두근거림이 심한 경우에는 한 번쯤 혈액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 혈액 내의 적혈구의 농도가 낮아서 생기는 빈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매일 술을 마실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매일 맥주를 3잔 이상 마시게 된다면 알콜중독을 생각할 수 있다. 1주 이상 술을 끊고 잠을 충분히 자면 대부분 해소되는데, 금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집중력과 결단력이 감퇴하거나, 성적인 관심이 저하되거나, 두통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나, 갑작스럽게 힘이 쭉 빠져 걸어가다가 주저앉게 되는 경우, 기분이 착 가라앉는 경우에는 우울증인 경우가 많다.

힘든 일을 몇 주 동안 계속했거나 긴장이 계속됐다면 스트레스로 지쳐버린 경우일 수도 있다. 업무상이나 가정적인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에는 가능하면 업무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무리가 없는 생활습관과 규칙적인 식사를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술 등으로 무리하게 기분을 북돋우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휴가를 얻거나 여유를 가질 시간을 만들거나 가볍게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 등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숨을 돌려 보고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또 열을 동반한 감기나 급성 편도선염, 식중독 등을 앓고 난 후에 피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피로가 몇 주 계속되기도 하는데 상태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초조해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 충분히 한 달 이상 쉬었는데도 피로가 계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여행으로 인한 시차 적응의 장애나, 습관적으로 먹고 있는 약의 부작용으로 오는 만성피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차로 인한 후유증은 시차 한 시간이 회복되는데 하루 정도가 필요하다. 수면 습관이 돌아올 때까지 가능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늘거나, 아침으로 손발이나 얼굴이 부으며 잘 잊어먹고, 항상 머리가 맑지 않으며 팔다리가 저리고 쥐가 자주 나는 경우도 있다. 콩팥의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돼 체내의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피로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병들인데,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검사에서는 별 이상이 없는데도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피로는 인체가 무언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신호이다. 기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탈이 나면 병명이야 쉽게 나타나겠지만, 기능적인 부조화의 경우에는 검사로 나타나지 않는다. 인체에 과부하가 걸린 것일 뿐 고장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체의 균형 이상을 한방에서는 허증(虛證)이라고 한다.

허증이라는 말은 병명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 허증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오장의 장기의 이상인지, 기허(氣虛) 또는 혈허(血虛) 때문인지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 기능적인 부족 현상인 허증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있다. 허하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들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모든 약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전문의의 자세한 진단과 지시를 따르는 것이 소중한 내 몸을 지키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34 철소추

단련 후엔 아무런 통증 못느껴

철비박, 배타공(排打功), 철소추, 족사공, 분수공, 옥대공, 포대공(布袋功), 합마공, 연현공 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외가기공 단련법'들을 말합니다. 이 단련법들은 짧은 인생에 단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무술은 스포츠처럼 체급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약한 신체를 타고 난 사람이 강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무술을 배우면 됩니다. 위의 단련법들은 몸을 무기화하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대련에서 강력한 메카니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소개한 철비박, 철사장과 철소추와 철포삼이라는 단련입니다.

철소추는 발, 특히 무릎 아래 부분을 단련하는 것인데 역시 물푸레나무를 차서 단련합니다. 여기에도 약을 발라야 된다고 하나 필자는 바르기도 귀찮고 이것저것 단련할 시간도 없고 해서 장난삼아 나무를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들리는 바처럼 그리 큰 장애가 오지 않아 약을 바르지 않고 그냥 실행했으며 결과는 한 만큼 얻게 됐습니다.

정강이는 잘못해서 살짝 부딪치기만 해도 너무나도 아플 정도로 뼈가 돌출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철소추를 계속 단련하다 보면 정강이 바깥쪽의 근육이 발달돼 정강이 앞부분을 덮고 더 나아가 철비박처럼 뼈가 울퉁불퉁해지며 후에 아무리 쳐도 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가라대 시연회 등에서는 시범자들이 정강이로 야구방망이를 부러뜨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 철소추 단련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태권도 같이 발을 많이 쓰는 무술은 대련에서 정강이끼리 부딪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격투에서 철소추가 단련된 사람과 부딪치게 되면 단련 안 한 사람의 정강이는 수수깡처럼 부러지고 맙니다. 이러한 장면은 킥복싱 대회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현재 유명한 킥복싱 선수 중에 '쌈코'라는 태국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회에서 왼발만 사용하는데 상대방들은 급소를 맞지 않더라도 그 공격을 몇 차례 막아내다 보면 막아낸 부위에 힘이 빠져 결국 방어를 하지 못하고 공격을 당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쌈코는 '왼발의 달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그의 왼발의 위력에 많은 팬을 보유하게 된 스포츠 선수가 됐습니다. 쌈코는 철소추의 진면목을 실제로 보여주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왼발의 달인 쌈코.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공 고

수신인 : 김포시 북변동 299-16번지 진영빌딩
해인사포교원 보경사창건주 속명 : 하 한수 (법명 : 대위)

귀하와 본인간에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99-16번지 2층 진영빌딩에 위치한 해인사포교원 보경사를 2층은 보증금 오천만원(50,000,000₩)에 월세 30만원, 3층은 전세 오천만원(50,000,000₩), 시설권리금 삼천만원(30,000,000₩)등 총 일억 삼천만원에 임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내용증명 참조)

또한 귀하는 본인이 이사 온 직후에 3층 전세금 오천만원과 시설권리금 삼천만원 등 총 팔천만원의 잔금을 정산하자고 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지금은 위빠사나 수행 처에서 공부중이므로 나중에 짐을 옮길 때 정산하자고 하며 고의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3층 월세(육백만원)를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해인사포교원 보경사라는 기존의 사찰명을 본인이 해인사스님이 아니기에 바꿔야 한다고 하였으나 귀하는 해인사포교원으로 등록한지가 얼마되지 않으니 귀하의 체면을 봐서라도 일년 후에 교체하면 안되겠냐고 하기에 귀하의 말을 진실로 믿고 1년 뒤에 간판을 바꾸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온데 귀하는 본인이 계약의 이행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니 거주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본인의 수차례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 대로 하자며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하께서는 본인이 없는 사이에 3층 출입문에 열쇠를 바꾸는 등에 도저히 스님으로써 용서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만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사를 오고 최초계약서를 작성할때도 본인은 오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의 개념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으나 귀하께서는 본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단서를 미리 작성해두었습니다. 본인이 이사온후에 계약서에 서명할때 단서조항을 읽어보지 않은 본인에 불찰도 있지만 애당초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본인을 철저하게 속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두로 약속하고 이사온 후에 단서조항을 들이대는 행위는 도저히 사기꾼의 행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껏 귀하가 본인에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계약서대로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부하는 수행자로써 본인의 무경험을 악용한 귀하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위의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무효임을 통고하오며, 아울러 귀하가 본인에게 끼친 금전적 • 정신적 손해와 귀하가 본인의 허락없이 3층에 열쇠를 바꾸는 등의 몰상식한 행위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는 본인의 허락없이 3층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찰에 즉각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며, 또한 귀하께서 2010년 9월 23일 까지 3층에 있는 귀하의 이삿짐을 옮겨가지 않을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삿짐센타에 보관조치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2010년 9월 13일

위 통고인 : 최 범수 (도선)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❻ 중국 난주 병령사 석굴2

불교 중흥으로 이어진 법화사상

황하 강변에서 만나는 병령사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불교의 세계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병령사 169번 굴은 중국석굴 중 최초로 조성된 내용 뿐만 아니라 중국 불교의 변천과정을 담고 있다.

병령사 169번 굴을 비롯한 병령사 석굴은 최초 조성된 420년에는 현재의 형태를 띠지는 않았다. 이 석굴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 졌는데 서진시대를 지나 북위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

이 시기 병령사 석굴에는 초기 석굴이 조성되며 만들어진 무량수불상 뿐만 아니라 <법화경> '견보탑품(見寶塔品)'에 나오는 이불병좌상(二佛竝坐像; 석가모니불과 다보여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만든 불상)과 <유마경(維摩經)> '문질품(問疾品)'의 주인공인 유마장자와 문수보살의 석상 등이 등장한다. 이외에도 약왕불상, 미륵보살상, 과거칠불상, 시방불상, 천불상, 정광불상, 명왕상 등 다채로운 불상과 인도에서 불교를 발전시킨 야육왕(아소카왕)의 인연담을 그린 벽화 등도 발견된다.

169번 굴에는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했던 법현(法顯) 스님의 이름이 등장한다. 법현 스님은 실크로드 기행문인 <법현전(法顯傳)>의 주인공이다. 이를 통해 병령사 석굴이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석굴의 불상 조성자 기록에는 도융(道融)스님의 이름이 나온다. 도융 스님은 당시 장안에서 역경불사를 진행한 구마라집 스님 밑에서 활동한 인물로 도융 스님이 이 석굴을 방문해 불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중국불교가 융성히 일어난 장안지역과 병령사 석굴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유마거사상과 문수보살상 등은 당시 <법화경>이나 <유마경> 등 구마라집에 의해 장안지역에서 진행된 역경불사의 스님 기반이 병령사 석굴에 있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밖에 이 석굴의 이불병좌상을 통해 신앙적으로는 법화사상이 지속적으로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불병좌상은 이 시기 가장 많이 조성된 불상이다.

이불병좌상의 다보여래는 과거에 보살로 있을 때 "내 장차 성불해 중생을 제도하고 마침내 입멸하게 되면 온 몸 그대로 사리가 돼 어떠한 부처님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장소에 반드시 출현해 그의 설법을 증명하리라"고 서원한 부처다.



북위시대 이불병좌상. 다보여래와 석가모니가 나란히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정겹다. 시대가 흘러 중국화 된 불상의 표현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법화사상의 지속적인 유행은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무엇인가를 구현하려고 하는 중국인들의 현실적인 성격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성격은 법화사상의 유행에 이어 전체 중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진다. 병령사 초기 석굴 안에도 나타나듯 단순히 부처가 되고자 발원한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바람으로 수많은 경전 및 편찬 등이 진행됐으며 이러한 것이 중국불교의 다양화로 이어진 것이다. 병령사 석굴은 중국인들의 이러한 바람이 고스란히 조영 속에 남아있어 5세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아득한 시간 여행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문무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 51 다시 본 육조단경



"자, 여기까지 단경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대의(大義)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회에 오기 위해서 50년 만에 <육조단경> 전체를 다시 봤습니다. 봉선사 스님들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저를 공부시킨 것입니다. <육조단경>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읽으니 참 큰 뜻이구나 새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날은 봉선사에서 10대 강백 초청 강설대법회가 있었다. 전 직지사 강주 의용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가 있었다. 법석 밑에 앉은 대중이 있어 선지식은 법석에 오르고, 법석에 앉은 스님은 법석 밑의 대중이 가르치고 있었다.

스님은 50년 만에 <육조단경>을 다시 읽었고, 법석 밑에 앉은 대중들은 50년 만에 '다시 읽은 육조단경'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3도 불성중인접임명종시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고 일심으로 염불하면 그 사람의 임종시에 아미타불이 성중과 함께 나타나 극락왕생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판각한 작품이다. 아미타삼존불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과 백호 광명안에는 아미타불에게 인도되는 왕생자(往生者)가 그려져 있다. 이 도상은 8번째의 목판 원판 전반부의 일부와 8번째 목판의 후반부의 절반까지 이어져 있다.

"사리불아, 중생 중에 이 설법을 들은 이는 저 나라(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여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그 세계에 나면 이와 같이 으뜸가는 여러 착한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아, 작은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 저 세계에 가서 날 수 없느니라. 사리불아,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아미타불에 대한 법문을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또는 칠일동안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워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들과 더불어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마음이 휘둘리지 아니하여, 곧 바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사리불아, 여래는 이러한 공덕이 있는 것을 보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누구나 이 말을 듣는 자는 마땅히 저 국토에 가서 태어나기를 발원할지니라."

(舍利弗 衆生聞者 應當發願願生彼國 所以者何 得與如是諸上善人 俱會一處 舍利弗 不可以少善根福德因緣 得生彼國 舍利弗 若有善男子善女人 聞說阿彌陀佛 執持名號 若一日若二日若三日若四日若五日若六日若七日 一心不亂 其人 臨命終時 阿彌陀佛 與諸聖衆 現在其前 是人終時 心不顚倒 卽得往生阿彌陀佛極樂國土 舍利弗 我見是利 故說此言 若有衆生 聞是說者 應當發願生彼國土)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방법으로 염불을 권하는 장면으로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중생들은 먼저 그곳에 태어나고 싶다는 원을 발해야 하고, 원을 발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염불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염불은 많은 선근을 쌓고 많은 복덕을 쌓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해 보자, 그리고 염불공덕에 의지하여 임종 시에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불할 수 있도록 하는 불자들이 되자.

우리 중생들은 입이 보살이라고 입만 열면 남의 이야기나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야기로 밤낮을 지새운다. 이제는 노는 입에 염불하듯이 수행해 임종 시 아미타부처님과 성중들이 나타나 우리를 극락으로 영접해 가는 기쁨을 누리자. 그리해 사후세계가 죽음으로 단절되는 두려운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안락이 있는 극락으로 향하는 환희의 세계임을 확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자.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3도 불성중인접임명종시장엄(佛聖衆引接臨命終時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오미자(五味子)는 열매는 신맛, 껍질은 단맛, 과육은 신맛, 씨는 매운맛과 짠맛으로 오행(五行)의 맛이 있기 에 인체 오장육부에 좋고, 산성 소화액인 담즙분비를 촉진하며, 몸 안의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작물로 알려져 있다.

친환경오미자 인증번호 제43-3-32호

녹색친환경 오미자 (완전무농약)

오미자는 최근 웰빙 붐을 타고 효능이 속속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약용작물이다. 오미자는 콩팥을 강하게 하고 방광을 수축시키므로 남자의 양기가 약해진 경우,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경우, 설사를 오래 하는 경우, 당뇨에 좋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쉽게 감기에 걸리는 어린이에게도 좋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도 있다. 불안해서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는 경우,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도 오미자가 좋다. 인삼이나 홍삼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면, 이젠 오미자의 효능과 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미자가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의 수랏상에 차와 음식의 재료로 쓰여 임금님의 두뇌를 맑게 하고 시력회복을 도우며, 폐기능을 강화하여 감기를 치료하는 등 건강식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새콤 달콤한 오미자가 학습량이 많고, 시신경을 많이 쓰는 수험생이나 어린이등의 건강에 좋다보니 가정주부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혈압이나 뇌졸중 예방은 물론 간장보호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명약으로 통한다. 옛날 의서에도 오미자의 효능을 극찬하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예로부터 영약으로 피를 맑게 하고 식은땀을 줄이며 갈증 해소에 효능이 있다...



·생 오 미 자 1kg 10,000원
·건 오 미 자 1kg 70,000원
·오 미 자 원 액 3kg 50,000원
5kg 70,000원
10kg 140,000원
·오미자즙 1Box(50포) 50,000원

농장소재지 :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256
계좌번호 : 농협 745060-52-032103 예금주 권명숙

주문전화 011-9377-89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볼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대행 스님

그저 항상 남한테 둥글둥글하고 모나지 않게 사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두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바로 내 주인의 심부름꾼이구나. 나는 부지런히 뛸 테니까 주인인 당신만 이 모든 대비 대책을 해서 다 이끌 수 있어.' 하고 다 맡겨 놓으면 그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시, 단 5분이라도 좀 조용히 앉아 있을 때는 '야, 이거 봐! 주인공, 네가 있다는 것은 네가 더 잘 알잖아.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 봐.' 하고 관한다 이 소립니다. '이게 뭣고?'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왔나?'가 아닙니다. 내가 어차피 이 세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화두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나로부터 세상이 벌어진 거지 내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로 있다가도 "여보!" 하면 금방 화해서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아버지!"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 또 화하죠. 저쪽 방에서 "얘,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됩니다, 금방. 여러분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것이 다 우리가 참나로부터 발생하는 작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모른다면 무(無)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인대도 뭐 대책 하나 못 세우고 죽을 거 아닙니까. 몸뚱이 안에서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척추다 척수다 간장이다 위다 식도다 방광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맡아서 자기의 소임으로 알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임을 제대로 안 해 줄 것 같으면 몸뚱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건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버릴 게 있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 버려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얻어 가지고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는 멸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못났든 잘났든 나로부터 생긴 거니까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 켜는 스위치는 딴 데 있지만 전구는 이렇게 많습니다. 전구는 이렇게 다 다르지만 전력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식구들이 다 각각 다르지만 아들이다 딸이다 형제다 어머니다 자식이다 이게 다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가설, 부모라는 가설, 가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뿌리는 다 똑같고 가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자식이 안 들어오더라도 '너만이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 둘이 아닌 까닭에 말이야. 걔 마음도 내 마음도 둘이 아니니까 그 마음에 밝게 불을 켜 주는 것도 너뿐이다.' 하고 관한다면 그게 입력이 돼서 바로 쏜살같이 그 마음에 가서 불이 들어오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저절로 오게 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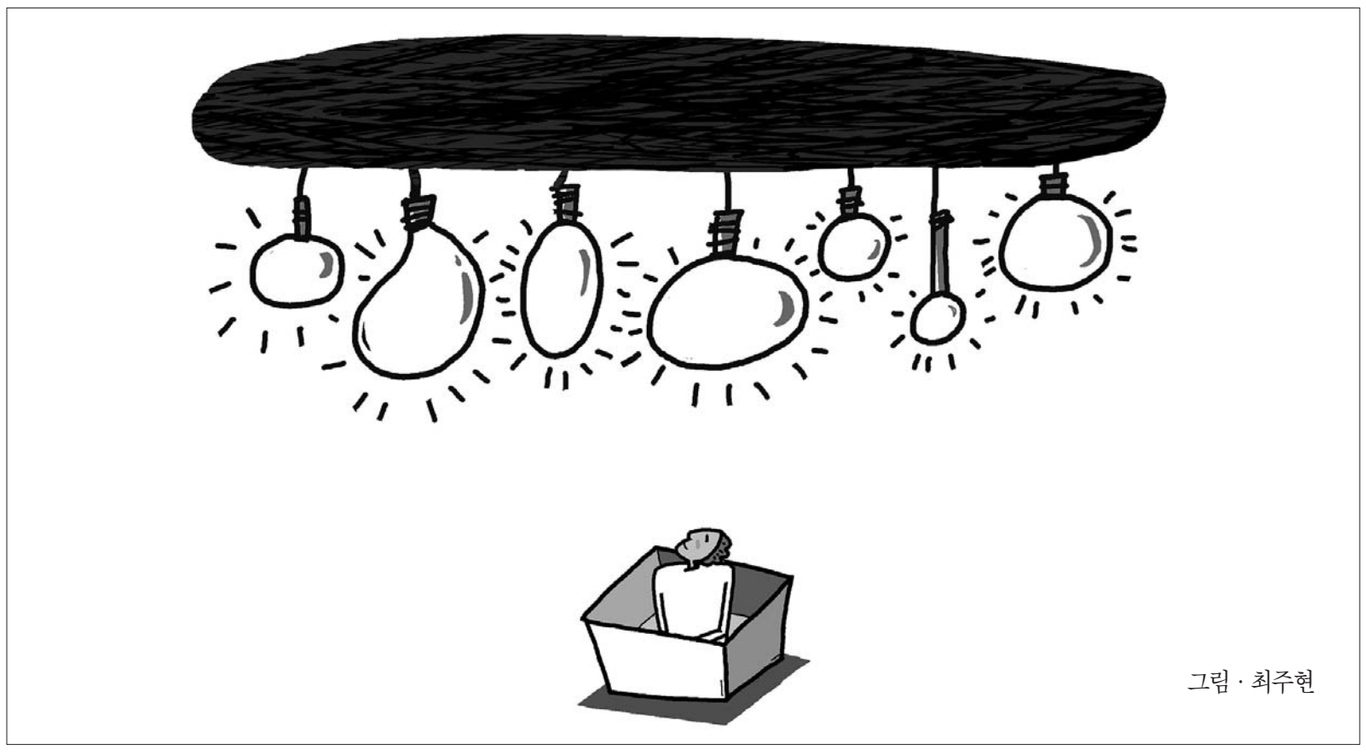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일어난 일들은 마음으로 고쳐야지요. 병든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어디서 온 거라는 것만 알면 대치를 할 수 있겠죠.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100% 맡기십니까? 병원에 가서는 50%만 맡기고 50%는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몸을 집을 삼아서 주인으로 사는 이 생명들과 둘이 아니게 서로 통한다면 손은 의사의 손을 빌리되 주인이 고치는 겁니다. 빌려서 될 일이라면 빌리고 빌리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속에서 보살로 화해서 응신이 돼서 약사 의사로다가 나투어 주시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의사가 돼서 고치는데 뭐가 그렇게 거푸장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느니라. 그러니 부처가 부처가 아니니라.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는데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됐을 때 부처라고 하겠느냐? 부처라는 이름 없는 것이 부처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뭣고? 내가 어디서 왔나?' 이렇게 찾는다면 백네 날이 가도 못 찾아요. 단 5분을 관한다 하더라도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크게 일어났다고 할 때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을 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기 전에 원자라고 합시다.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서 보살의 행을 그대로, 응신으로서 남의 마음과 둘 아니게 돼서 조절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 개가 모인대도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영이니까요. 만 개가 한데 모여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 없이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하는 사이 없이 하는 뜻이라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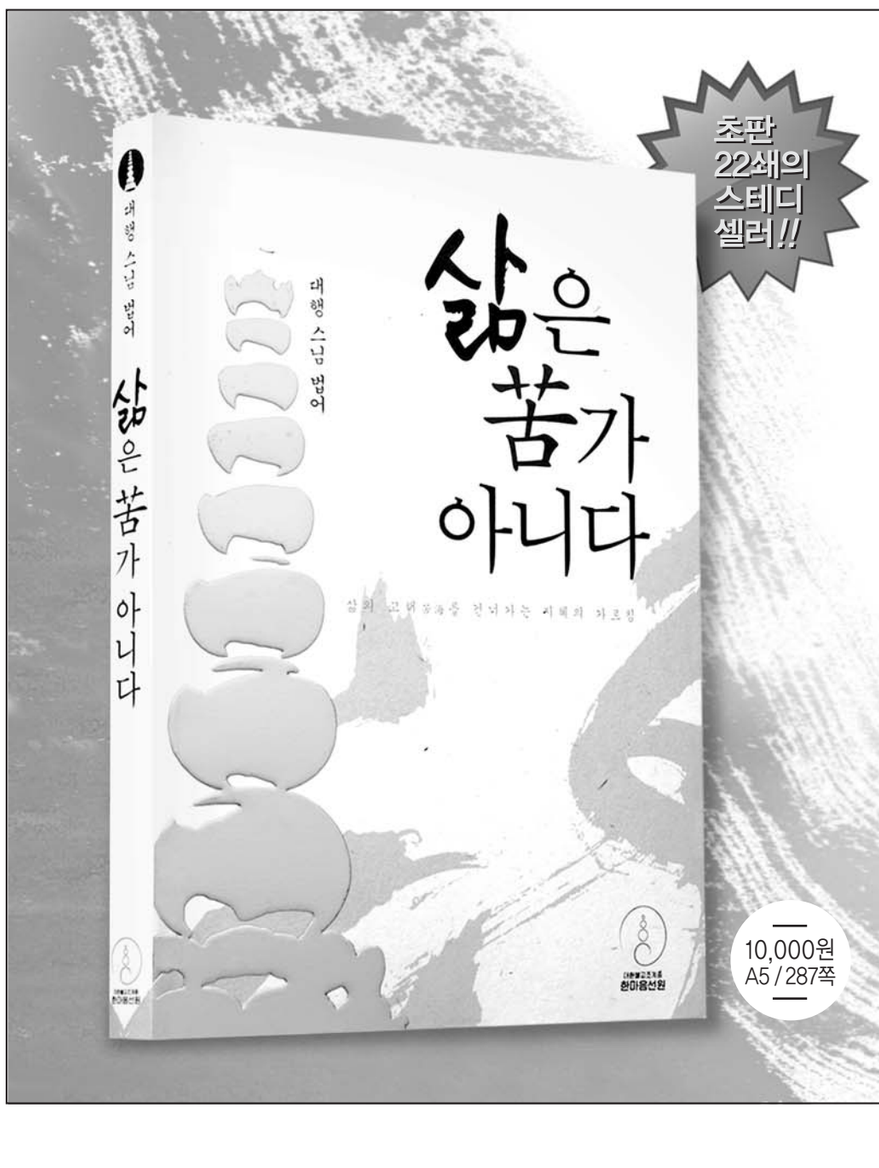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정신계의 이 마음을 제대로 물리가 터지게 하고 발전을 시켜야 물질 발전에 의해서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로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가난하고 거지고 부자고 그걸 떠나서, 권력 있고 권력이 없고 이걸 떠나서, 지식이 있고 없고 학식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둘 아니게 조절할 능력이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태양이 축소되고 타 버리게 된다면 안 되니까 내가 태양이 될 줄 알아야 축소가 되지 않게 하죠? 또 태양이 팽창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태양이 될 수 있어야만이 태양을 팽창시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이끌어 가게끔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계의 발전을 못하면 허공의 에너지도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땅에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허공에도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의 에너지를 꺼내 쓰려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 차원이 돼야만이 꺼내 쓸 수 있지 그 차원이 안된다면 꺼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하고 미묘해서 어디든지 아니 닿는 데가 없고, 조그맣든 크든 어느 거든지 아니 닿는 게 없습니다. 모든 별성을 낳는 생산처, 큰 별성 블랙홀로부터 우주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나 아님이 없고 내 생명 아님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날 요런 웅덩이 안에서 비비적거리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렇게 광대무변하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한 찰나에 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부처님께선 도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줄 알아도 도가 아니니라. 볼 줄 알아도 도가 아니니라. 들을 줄 알아도 도가 아니니라. 그것들이 어디서 온 거를 다 알아도 도가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 내가 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배고프면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배고픈 사람 줄 줄을 알아야만이 그것이 진짜 진리며 그것이 바로 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그 말을 했더니 노래로 그렇게 지어 놨죠. 그런 거와 같이 부처님 법이 따로 없이 일상생활, 일체가 우리의 법입니다, 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계셨다면 바로 그때 시절의 방편을 써서 설법을 하셨겠죠.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변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달구지라고 했던 그 방편을 지금은 무역 비행기라고 해야만 옳은 것이죠. 용도가 그렇게 달라졌으니까 그 말도 이름도 변경을 해서 모두 요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맛있게 먹게끔 해 드리는 게 옳은 일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가정에서도 구덩이 속에서 헤어나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으로 일어난 일들은 마음으로 고쳐야 합니다

☞25면에서 계속

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견디기 어려운 지독한 아픔을 겪고 있잖습니까? 인간은 인간대로 그렇지만 저 닭이나 개, 이런 모든 동물들을 보셔요. 그게 지옥이지 딴 게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딴 데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오산이죠. 이 중세계에 상세계도 있고 하세계도 있고, 지옥도 여기 있고 천당도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가신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될 때에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형제가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한 개체인 인간이에요. 인간뿐이 아니죠.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평등공법으로서 지금 현재 공생 · 공심 · 공체 · 공용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탐내고 무엇을 욕심내며 무엇에 그렇게 착을 두고 그렇게 애절복절하고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끌어 잡아당기면서 애를 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고가 없다.' 한 뜻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걸어오실 때 뒷발자취를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부처님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그 도리를 알면 그대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듯이 모두가 공하고 또 모두가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본 것만 그대로 보고 있으렵니까? 한번 들었던 것 하나만 듣고 여직껏 사셨습니까? 한 군데만 가고 여직껏 사셨습니까? 한 사람만 만나고 여직껏 사셨습니까? 일거수일투족 전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보면 본 것이 사라지고 또 보게 되고, 들으면 들은 것이 없어지고 또 듣게 되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냥 자동차가 막 달리는데 말입니다, 자동차가 달릴 뿐이지 과거는 없다 이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어요, 자꾸자꾸 지나가니까. 앞으로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그 자동차가 갈 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갈 뿐이죠. 아래 위도 없이 그냥 갈 뿐이에요. 그 도리를 알면 지금 생각났던 거는 다 달아나가고…, 이만한 덩어리의 문제가 생겨서 아주 애절복절 생각을 했더라도 그게 달아나가는 거죠. 그 이튿날 또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을 하더라도 이미 앞서 생각한 건 달아나간 겁니다. 또 생각해도 또 달아나갔고 또 생각해도 또 달아나갔고, 달아나가다 보면 그 덩어리가 다 달아나가고 말아 버려요. 그러니 고도 없고 업도 없죠.

여러분한테 유전성과 업보성 영계성 세균성 인과성,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주둔하고 있죠. 말을 하려면 또 조금 길어질 테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 가지고 자기가 형성돼서 태어날 때 바로 부속의 인연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유전성이 거기 섞여 입력이 돼서 왔느냐, 영계성이 유전이 돼서 오게 됐느냐, 또는 업보성이냐 세균성이냐 인과성이냐, 이런 것이 사람마다 어떻게 들어 있는 줄은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뺏어 갈 수도 없고 누가 없앨 수도 없어서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전부 그렇게 나오는 거를 거기다가 되맡겨 놓으면 그게 새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앞서의 그 모든 유전성의 입력 또는 영계성의 입력, 또는 세균성의 입력 인과성의 입력, 업보성의 입력 이 모두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아 버린다 이 소립니다. 좀 안다고 거만하게 '내가 이만하면 됐는데….' 하고 목을 빳빳이 한다면 이거는 영원히 공부 못 하는 일입니다. 어디고 같이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길을 가는데 가재란 놈이 나와서 길 가운데에 앞발을 들고선 요렇게 버티고 섰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아하! 이렇구나. 자기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의 환경이 아니라면 모두가 저항력을 느끼겠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돼지를 건지려면 내가 돼지가 돼 줘야 하느니라 하셨던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글쎄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앞발을 들고 나서 봤자 뭐를 하겠습니까마는 저항력을 느끼고 덤비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에도 벌레 먹은 고목나무하며 천차만별로 다양한 생명들이 있어서 그것이 한데 합치니까 바로 뫼 산(山) 자를 썼지 그렇지 않으면 둥글게 뫼 산 자를 안 썼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죠. 모르더라도 '내가 모르던 때의 모습이로구나.' 하고 '내 모습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친근하고 모두가 형제 같고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고정됨이 없다는 거, 우리 살아나가는 게 찰나찰나 그대로 고정됨이 없이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그 도리를 알면 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 막지 말고 가는 것 잡지 말아라. 그 도리를 알면 전체가 네 것 아님이 없고 네가 아니 하는 게 없느니라.' 한 겁니다.

애를 써서 가는 거 잡으려고 욕심 많게 그러다가 중간에 건너가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지요. 차가 지나간 자취가 없듯이 사람의 발자국도 떼어 놓는 대로 없어지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세상살이가 다 그러하니까 그 도리를 안다면 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고가 있을 리가 있나요? 죽는 것도 겁 안 나고 사는 것도 뭐 그렇게 겁 안 나고 하늘이 무너져 깨져서 가루가 된다 해도 겁 안 나고, 아무것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나 하나를 버리면 겁이 나는 게 없고, 아니 되는 게 없고, 다 대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살아나가는 게 찰나찰나 그대로 고정됨이 없이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그 도리를 안다면 苦는 없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정에서 그렇게 해 보십시오. 꽃 하나도 내가 좋아하면 잘 피어 주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게 시들시들하고 좋질 않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은 남한테 그저 둥글둥글하게 항상 모가 안 나게 사십시오. 그런다면 모두가, 날아가는 새들도, 산에 핀 꽃들도,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잎새 하나하나도 전부 여러분의 손이 되고 발이 돼 줄 것입니다.

오늘 겅중겅중 뛰다 보니까 그저 할 말을 다 못한 것 같지만 말로 다 어찌 하리까? 말로 하는 게 아니니 바로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빛보다 더 빠르고 한생각이면 전체를 감응할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뜻을 잘 아셔야 하실 겁니다. 또 삼천 년 전에 부처님이 열반하셨다고, 지금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 명만이라도 살아 있다면, 풀 한 포기라도 살아 있다면 그 부처님의 마음은 바로 현실에 계신 겁니다.

그 모든 부처님들이, 모든 선지식이, 수만 명이 깨쳤대도 일 불이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만 불(萬佛)이 일 불(一佛)이고 일 불이 만 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았고 그 육체를 불살라 가면서 얼마나 힘든 걸음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때로는 감출 수가 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길을 지나가면서 먹물옷 입은 것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나는 좋아하는데 모두들 외면합니다.왜 그럴까요? 높은 사람이라면 낮은 사람을 돕고 낮은 사람이라면 높은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해서 평등하게, 우리가 자립 자족 해서 모든 나라와 세계, 우주 전체를…. 우리가 그 도리를 안다면, 우주하고 직결이 돼 있고 세상 만물하고도 가설이 돼 있으니 어찌 또 그것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일을 하려면 우주 전체가 들어져야 되고, 작은 일을 하려면 세계가 들어져야 하고, 또 더 작은 일을 하려면 국가가 일어서야 되고, 그거보다도 더 작은 일을 하려면 사회에서 해야 하고 가정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열심히들 하십시오.참선이라고 하는 것도 일을 하면서도 행선이요 누워서도 와선이요 서서도 입선이요 앉아서도 좌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한다고 해서 이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는 것도 참선이니까요. 앉아 있는 것도 좌선이요 서 있는 것도 입선이요 누워서 자는 것도 바로 와선이니 말입니다. 이 지구가 초월해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끝이 있다 시작이 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대로 돌아가니까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도 그대로, 그걸 바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게으르게 생각할 것도 없고 편리하게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아주 유유히 그대로 생활을 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산에서만 공부하라는 법은 없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제자가 은사더러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기가 시끄럽고 복잡하니 산에 올라가서 토굴을 짓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선뜻 대답을 하시고 나서 "그럼 너, 꼭 혼자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혼자 해야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너 혼자 하려면 첫째, 오장 육부에 있는 생명들을 다 꺼내 놓고 둘째, 남이 옷을 짠 거니까 입지 말아야 하고 셋째, 남이 농사를 지은 거니까 먹지 말아야 하고 넷째, 땅을 딛지 말아야 하고 또 물을 먹지 말아야 하고 불도 쓰지 말아야 하고 바람도 쐬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게 따로 생명이 있고 따로 마음이 있고 너 이외에 모두가 딴 거니까 가서 절대로 나무도 베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 재주가 있으면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그냥 무릎을 치면서 '하! 정말 내 몸속에도 그렇게 많은 중생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모두 복잡하다고만 했구나.' 하는 생각에서 회개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 아침 공양 했느냐?" 하니까 "식기 닦았습니다." 하더랍니다. 그건 말하자면 '벌써 밥 먹고 지나갔습니다.' 하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지나간 거를 물으니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나가지도 않고 오는 것도 아직 포착 안됐고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진짜 어떤 차이도 거기 붙지 않고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 몸도 지구와 같이 모든 생명들을 한데 모아서 살고 있구나!' 하고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을 다스리는 나의 주인공이 수억겁을 거치면서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어 왔으니 바로 나의 주인이로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맡기고 실행해 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까 부탁했죠. 집을 나간 자식이나 안되는 자식들이 있는 분들은 다 몸으로 말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잡으려고 하라고요. 마음은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마음에다가 그렇게 입력을 시키면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한다면 강도도 없어질 거고 사기도 없어질 거고 모든 게 다 깨끗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6년 9월 1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불교 vs 선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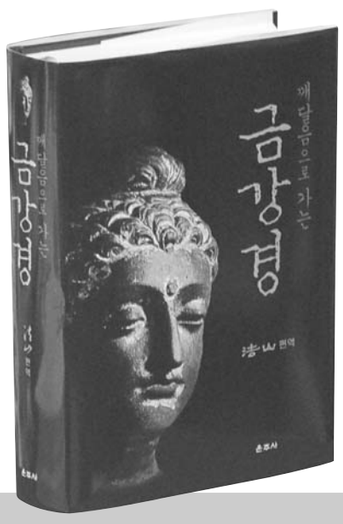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 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득세는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변형 | 296쪽 | 값 13,000원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의 중음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변형 | 144쪽 | 값 8,000원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자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다양한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한 편의 소설을 읽듯 흥미진진한 금강경!
마치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 재미있고 친절한 풀이를 한 장 한 장 읽다보면, 지혜의 완성, 번뇌의 타파에 한 발 다가가 어느덧 참나를 찾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올컬러 | 764쪽 | 값 38,000원



*저자 법산 스님은 국내 제방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 대각사(053-6565-108)에서 불교명상대학 지도와 금강경 강좌를 통해 법연을 나누고 있다.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 주문 (02) 3672-7181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윤리적이어야 잘 산다

얼마 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경제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구매력지수(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2만8036달러이다. 이는 아시아 38개국 가운데 7위에 해당하는 순위라고 한다.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의 소득은 국민총생산액을 전체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명목소득과 달리 삶의 실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액은 2만 달러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의 수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물건들을 앞뒤 가리지 않고 소비하면서 즐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잘 산다는 것은 가난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을 향유하는 방식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인 비난과 함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 인터넷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4억원짜리 명품녀 논란이 바로 그 한 예이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명품녀와 같은 소비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권이지만 BMW자동차를 비롯한 고급 외제자동차와 각종 명품 의류 및 장신구, 값비싼 양주와 와인 등 소비시장 측면에서는 세계 4~5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불과 10여 년 전만해도 IMF구제금융을 받던 나라임을 상기해 본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해외 유명상표 기업의 CEO들이 부쩍 자주 서울을 찾는 것도 결국 소비지향적인 한국인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자사의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하려는 고도의 판매 전략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기 짝이 없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이와 같은 과소비경향이 비단 개인에게만 국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역단위의 광역단체장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호화청사를 짓는가 하면, 각종 채권을 남발하면서까지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무더기로 벌인 결과 현재 지자체가 갚아야 할 순수 부채만 15조원에 육박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행과 사용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봉급생활자인 필자 또한 여기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버는 액수보다 쓰는 양이 커지면 가정이나 국가가 언젠가 파탄이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10년 뒤가 정말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신용카드를 내밀고 영수증에 사인을 해대고 있다. 며칠만 지나도 수북이 쌓이는 영수증을 보고 있노라면 필자 자신도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금세기의 실천윤리학자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피터 싱어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 특히 부의 소비양식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의 말을 빌리면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잘사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나와 남,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배려하고 추구하려는 작은 마음씨들을 곧바로 실천하려는 윤리적 의지의 발휘야말로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관습이 되다시피 한 맹목적 소비중심의 삶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곧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공동체적 미덕이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사 설

장기기증 활성화를 기대한다

지난 9월 11일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창립 선포식이 열렸다.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란 그간 독자적으로 활동해 온 불교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가톨릭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및 의료전문가 모임인 생명잇기(이사장 조원현)가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연대하여 효율적인 장기기증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미 지난 16년 동안이나 지속적 활동을 전개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경우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시신기증 등에서도 보여주었듯이 대내외적인 활약상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의 장기기증운동은 각 단체들의 유기적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중복투자의 우려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콘텐츠의 부족이나 산발적인 이벤트성 활동 등은 효율적인 홍보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일정 시간 안에 주인을 찾아야 하는 사후기증 장기가 서로 간의 소통 부족으로 알맞은 환자를 찾지 못해 폐기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면, 종교 간의 벽을 넘어선 이번 연합단체의 출현은 장기기증이 절박한 환우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재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장기나 골수, 혈액 등도 그것이 절실한 사람에게 가서는 또 다른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다. 대승보살도는 이웃의 아픔을 내 몸처럼 느낄 수 있는 데 있다. 새로 출범한 단체의 활약을 기대하며 장기기증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활짝 꽃피우길 발원해본다.

태고종, 문제 만든 이가 풀어야 한다

태고종이 총무원장 불신임안 종회에 상정할 만큼 내부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다. 태고종은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과 함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4대 종단 가운데 하나라는 불교적 · 사회적 지위에 있다. 이런 종단이 갈등에 휩싸여 정작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미뤄놓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재적의 과반이 넘는 30명의 종회의원들이 불신임안에 지지를 표했다. 불신임을 면했지만 총무원장 인공 스님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인공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이유는 직무유기, 즉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종단에 지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등이다. 운산 스님은 부채 해결을 차일피일 미뤘으며, 그러자 종회의원들이 인공 스님에게 해결을 재촉했다. 급기야 인공 스님이 운산 스님을 상대로 지난 9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前 · 現 총무원장이 피고와 원고가 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그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인천(人天)의 스승이어야 할 종단의 대표급 스님들이 사회법에 의뢰한 현실이 안타깝다. 신뢰의 상실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문제를 만든 이가 풀어야 한다. 이것이 태고종이 정상을 되찾는 길이다.



사부대중 칼럼

황순재
고창군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가을, 김복녕 어르신 이야기

우리 복지관에서 모시는 대상자 중에 김복녕(가명) 어르신이 있다. 이 어르신 댁에서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까지 거리가 멀어서 복지관 프로그램의 이용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시골의 어르신들은 서울 도심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달라서 긴 시간과 먼 거리를 불사해서 복지관을 찾지 않는다. 그 정성이면 차라리 밭에서 작물을 키우시기를 선호한다. 이 분들에게는 한여름 피약볕 아래가 훨씬 익숙하다. 서울처럼 지하철 요금이 무료가 아니라서 버스 이용료가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때문에 김복녕 어르신에게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매주 2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청소와 취사 등의 가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1회당 방문시간은 3시간. 어르신을 위해 이불빨래도 해드리고 병원이나 시장에 모셔드리기도 하고 말벗이 돼 드린다.

처음 어르신을 뵈었을 때 어르신의 얼굴은 어두웠다. 우리 할머니들의 서글서글하고 넉넉한 낯빛이 아니었다. 굳어 있는 인상이 차갑기 그지 없었다. 어르신은 노인 돌보미 선생님, 즉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냥 왔다가 가나 보다, 정부가 보내준 파출부가 제 할 일만 하고 휑 하니 가나 보다 하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별다른 만족이나 기대가 없으셨던 것 같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역시 좀처럼 어르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어르신은 이래도 시큰둥 저래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밑반찬 배달과 푸드마켓 이용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어르신의 낯빛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노인 돌보미 선생님의 신청으로 매주 금요일이면 어르신 댁에 밑반찬이 배달됐다. 한 달에 한 번은 푸드마켓에 진열 중인 상품들이 전달되면서 김복녕 어르신은 자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실감했다.

김복녕 어르신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시다. 버스가 다니는 큰 길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외지고 허름한 가옥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 자식들이 있긴 하지만 자식들로부터 어르신 봉양을 기대할 순 없다. 실직 상태인 아들을 비롯해서 자식들도 어려운 살림 속에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은 오히려 자식들 걱정이 태산이다. 얼마 전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모은 통장을 열어서 손자들의 학비를 보태기도 했다. 본인의 생일날 미역국을 언제 먹었는지는 기억에서 사라졌다. 인근 교회만이 유일하게 어르신의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다.

김복녕 어르신이 가을을 맞았다. 유아기였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꽃다운 처녀였을 때, 새색시가 되어 시집갔던 해, 산고를 치르고 애 엄마가 되던 해, 그 아들이 또 초등학교를 입학하던 해, 다시 그 아들이 입사하고 결혼했던 해, 또 손자를 보았던 해, 그리고 남편과 사별했던 해, 그렇게 해마다 어르신과 함께 했었던 가을을 다시 맞았다. 산골 독거노인 한 분이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 한 가운데서 관(觀)하고 있다.

가을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나는 풍요, 다른 하나는 고독이다. 감, 대추, 밤, 사과, 배를 비롯해서 가을 햇볕을 머금은 나무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우리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들이 그대로 열매로 드러난다. 반면 아침 · 저녁의 선선한 기운은 그동안 무심히 잊고 지내왔던 시간이란 존재를 일깨우며, 일상의 덧없음을 체감하도록 촉구한다. 화려한 단풍 속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쓸쓸함이 가슴을 저며온다.

김복녕 어르신은 풍요를 기약하며 평생을 살아왔다. 지금은 진한 고독과 마주하고 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마냥 아무 말 없이 한해 한해의 가을은 얼굴에 피어난 검버섯과 굵은 주름살로만 어르신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내 찬바람 불어치는 혹독한 겨울도 다가올 것이다. 김복녕 어르신은 얼마나 고독할까?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교회로 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시니 그나마도 다행이다. 김복녕 어르신은 마냥 외롭기만 할까?

고창군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가 김복녕 할머니의 풍요로운 가을을 함께 맞이하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않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 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성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현오스님"이나 "성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성 봉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

세계평화 인류화합 "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성공기원"

세계불교법왕의날 선포식 및 세계평화통일 기원 대법회



- 행사명 :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기원하는 대법회
- 주 최 :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담화문화재단
- 주 관 : 법왕청 승가단, 일붕법왕종, 불교통합종단협의회
- 장 소 : 청원 법왕청 제2청사
- 후 원 : 법왕청신문, 불교TV, 현대불교신문, 경기매일, 월간 노인건강복지, 불교일보, 영문 외교저널, 연합불교방송, 교계신문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담화 이존영 이사장은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일붕법왕문도의 날을 세계불교법왕의날로 재정 선포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9일~10일까지 2일간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기원하고 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3000배 철야 기도 정진 및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를 봉행 한다고 밝혔다.

1. 세계불교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세계불교법왕의날 행사가 오는 2010년 10월 9~10일까지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산7-1번지 법왕청 제2청사에서"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3000배 철야 기도정진 및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한다.

2. 이번 9일에 열리는 철야 3000배 기도정진을 통하여 의장국으로서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성공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최한 역대 국제회의 중에서 최대 규모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우리나라의 국격 및 국가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10일 당일 우리의 큰 스승이신 일붕존자님의 동상제막식을 봉행하고 2부 법회에서는 고승대덕큰스님 문도 및 신도, 내외귀빈 등 총 3000여명이 참가하여 세계인류 평화와 인류 화합을 기원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세계불교 법왕의 날 선포식과 함께 법회를 봉행한다.

4. 당일 법회에 동참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무료로 중식제공 및 T셔츠를 지급 하고 추첨을 통해 TV와 냉장고, 기타 전자제품 및 생활필수품 제공은 물론 가수초청 공연도 함께 할 예정이다.

5. 9일 전야제에 참석하여 3000배 철야 정진기도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상장 및 3000배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6. 본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사찰 및 문.형제들은 02)3216-3216(법왕청) 또는 02)3417-1010(일붕법왕문도회), 국번없이 1644-3668(일붕법왕종 총무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7. 또한 일붕법왕 동상 제작에 있어 동상에 이름을 새길 경우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사찰에서 명단을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비는 1인당 1구좌 5만원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날

- 일 시 : **2010년 10월 9일**
- 전 시 : **오전 9시**
  6.25전쟁 60주년기념 UN에 보관중인 6,25 사진전 및 일붕법왕의 발길따라 사진전 및 백두산 풍경 사진 전시회(1개월간)
- 기 도 : **오후 3시 부터**
  (G20 세계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3000배 철야정진기도 봉행)

둘째날

- 일 시 : **2010년 10월 10일** (일붕법왕문도회)
  - 1부 행사 : **오전 10시 30분** 초대법왕 일붕 큰스님 동상 제막식
  - 2부 법회 : **오전 11시 부터**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위한 G20 정상회의 개최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세계불교 법 왕의날 기념 대법회 봉행
  - 3부 행사 : 시상식 및 어르신 초청 가수공연 및 경연대회
  - 4부 행사 :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초상화 전달식은 담화이사장에 의해 현재 옻칠 문화재 청목 선생님이 천연 옻칠을 사용하여 제작한 다음 판화를 제작하여 필요한 사찰에 무료로 보급하는 시간입니다.

■ 봉행위원

혜륭, 정각, 혜운, 원각, 지공, 공심, 법광, 운송, 법상, 보문, 동봉, 범홍, 청암, 법장, 법열, 공심, 원산, 법선, 법성, 아산, 혜광, 법공, 지허, 보리, 유심, 혜도, 해월, 해문, 도현, 효천, 혜선, 수원, 법성, 혜도, 무심, 혜성, 혜광, 혜원, 도현, 진산, 혜경, 지승, 보광, 혜정, 도성, 도일, 보리, 도우, 혜인, 법진, 일월, 무무 덕산, 청타, 지원, 법천, 법성화, 운각, 법광, 법선, 보문, 해명, 성경, 성수, 성범, 대덕화 법은, 도해, 자광, 혜등, 고담, 법상, 보현, 성각, 현인, 지흘, 지은, 지현, 정률, 정수, 경란 령산, 법우, 혜공, 문학, 지성, 일현, 일선, 보향, 보명, 보련화, 도휘, 보명, 법수, 원명, 현우, 영인, 보명, 원경, 일현, 정암, 무공, 보경, 지연, 묘정, 혜지, 소보, 법연심, 도진 보면, 혜인, 도선, 혜법, 법연, 봉선, 도철, 도심, 도안, 법성화, 천자, 도법, 혜화, 영은 법정, 홍련, 청산, 청암, 은곡, 혜천, 마정, 법안, 성허, 관행, 지광

■ 참가종단

대승불교여래종 세계승왕 인왕, 일붕법왕종 총무원장 원각, 세계불교 세심종 총무원장 범홍, 세계불교 법사종 종정 청하, 국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도천, 세계불교 일화종 종정 황정, 한국불교 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 신풍, 호국불교 효예종 종정 법진, 대승불교 달마종 총무원장 해광, 총남불교 조계종 종정 청암, 대한불교 서각종 총무원장 원각, 한국불교 정토종 종정 월호, 대한불교 자비종 총무원장 도경, 대한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 지장선종 종정 혜봉, 대한불교 대원종 비구니회장 대광, 전통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태함, 사단법인 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 조계종성불회 회장 만공,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사)세계불교평화연맹 이사장 정철, 사단법인 세계평화연합법인회 법왕자,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한국불교자비종 총무원장 해광, 대한불교여래조계종 총무원장 해덕 월명,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법정, 대한불교천인종 종정대행 청산, 대한불교 도생 조계종 종정 청오 사불,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총무원장 대천,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대한불교 활법종 총사 활인, 대한불교 용화조계종 총무원장 해운,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회장 정치호, (사)세계평화미술대전조직위원회 이사장 구미숙, (사)한국옻나무협회 회장 청목, (사)한국옻칠공예협회 회장 김인섭, (사) 신세대문화예술교류단, 단장 김주동, (사)나라사랑 이사장 민기붕,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 이칠용, (사)한국자애인유권자연맹 이사장 최봉실,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통합불교아미타종 이기욱,(사)한국교육문화원 원장 조규호, 한국불교 대승조계종 총무원장 법광,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능인,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혜수,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불, 한국자유총연맹 종교특별분과위원장 이춘섭, 대한불교대성종 종정 대성,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청산,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민, 대한불교약불종 총무원장 보각, 해동불교무량종 총무원장 학성, 한국불교원각종 총무원장 자오, 대한불교천지종 총무원장 대명,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대한불교도천종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대은, 한국불교원광종 총무원장 법륜, 금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명,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무각,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대한불교구화종 총무원장 혜성, 호국불교선미륵종 총무원장 효진, 한국불교석가종 총무원장 원통, 정법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석지, 대한불교위앙종 총무원장 위산, (사)민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당,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성인.

– 무 순 – 추후 참가종단 및 봉행위원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접수처 : 02)3216-3216 / 011-399-3113에서 접수함.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장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산 7-1번지 법왕청 제2청사 043)296-1081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총재 김정각 대종사, 총장 송법장, 종정 해운, 총무원장 원각, 이사장 담화, 법왕청 승가단 회장 운송 대종사, 단장 법상, 유심

■ 가입문의 - 통합불교종단협의회 011-829-9120 / 법왕청 승가단 010-5057-8833 합니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9월 9일 '명절 · 기제사 술(酒) 대신 차(茶)를 올리자' 시연회를 개최했다. 차례상에 차를 올리는 모습.

정종은 일제 잔재… 차 올려서 차례
〈茶〉

차 올림으로 전통제례문화 복원
맑은 기운 흠향해 업식 소멸 기원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명절 · 기제사 술(酒) 대신 차(茶)를 올리자' 시연

추석은 설,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로서 예부터 집안의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이 전통이었다. 지역마다 차례 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례 상의 제주(祭酒)로는 정종 · 청주 등이 올라왔다. 하지만 근래 들어 명절이나 기제사에 이런 술(酒) 대신 차를 올리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사장 직무대행 김규범, 이하 문화원)은 9월 9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2010년 불자 생활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명절 · 기제사 술(酒) 대신 차(茶)를 올리자'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 공양 시연회는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의 생활의례봉사단 제례팀이 불교제례음식을 실물로 진설하고 명원다도예절문화원에서 차를 우린 후 예법에 따라 차례를 진행했다.

이날 시연은 국민대 유양석 교수(명원문화재단 고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주에는 김규범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이사장 직무대행, 좌집사에는 이재우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사무국장, 우집사에는 신현조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이사가 참여했다.

문화원 측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제사문화가 유입되면서 일본식 발효주인 정종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통이 무시된 채 각자의 기호에 맞는 음식들을 제사 · 차례 상에 올린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화원은 "<삼국유사> 등 옛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왕실과 사대부 등 귀족을 중심으로 제례에는 항상 차(茶)를 올렸으며, 가난한 백성은 경우 차를 살 돈이 없으면 정안수로 대신했다"고 밝히며 차례문화의 개선을 주장했다.

본래 차례는 '차례(茶禮)'라 해, 차(茶)로 행하는 모든 예의범절을 뜻한다. 명원문화재단의 김의정 이사장은 "통일신라시대 문무왕(재위 661~681)은 김수로왕의 제례에 차를 올렸으며, 고려시대도 국가적 행사에는 항상 차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제의초(祭儀秒)의 기록에서 시제(時祭)와 기제(忌祭)의 의식에 차를 올리는 풍습이 있다'라고 말하며, 제사상에 차가 오르는 풍습을 설명하고 이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원은 "명절과 기제사에 술 대신 차를 올림으로 인해 잊어져 가는 전통제례문화 복원과 효(孝) 사상 실천 및 예의도덕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선일여(茶禪一如)라 해 차와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술 대신 차를 올리는 것은 조상들에게 차의 맑은 기운을 흠향해 업식(業識)을 소멸하고 서방정토 구품연화대에 안주하기를 기원하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글=이정은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불교차례의 순서 ■

1.재계(齋戒)–차례 전날부터 차례에 참가하는 사람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근신해 오로지 조상만을 기린다.
2.쇄소가묘(灑掃家廟)–차례 지낼 장소를 깨끗이 청소한다.
3.수축(修祝)–지방은 모든 조상(기제를 받드는 4대조상)은 내외(부부)분씩을 따로 쓰고 축문은 한 장으로 쓴다. 봉사자(장자손은 주인이고 주인의 아내는 주부이다)는 제일 윗대 조상과의 관계를 쓰고, 신위(神位)는 윗 조상부터 차례대로 모두 쓴다.
4.설위진기(設位陳器) 척기구찬(滌器具饌) 변복서립(變服序立)–차례기구를 깨끗이 닦아 놓을 자리를 놓는다. 제수를 정성껏 조리해 준비한다. 예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공손한 자세로 정한 자리에 선다.
5.점촉(點燭)–동서 집사가 촛불을 밝힌다.
6.설소과다찬(設蔬果茶饌)–제수들을 진설한다.
7.강신분향(降神焚香)–강신이란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이다. 분향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조상의 영혼이 향기를 타고 오시라는 것이다. 주인이 분향하고 재배한다.
8.강신뇌주(降神酹酒) 강신뇌다(降神酹茶)–향기로운 차를 부어 조상이 차를 통해 감응하시도록 하는 절차이다.
9.참신(參神)–모든 참례자가 조상을 뵈는 절차이다.
10.헌다(獻茶)–주인이 앞에 나가 모든 신위에게 차를 올리고 재배한다.
11.삽시정저(揷匙正箸)–한가위 차례에는 송편이 올라가므로 젓가락을(손잡이 서쪽 방향) 시접(匙楪:수저, 젓가락을 놓는 접시(대접)) 위에 나란히 걸쳐 놓는다. 주인이 재배한다.
12.시립(侍立)–주인과 모든 참례자가 2~3분간 공수하고 공손히 서 있는다.
13.하시저(下匙箸)–주부는 차례상 서쪽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 시접에 담는다.
14.사신(辭神)–주인과 모든 참례자가 모두 재배한다.
15.납주(納主)–신주를 원래 자리로 모셔둔다.
16.분축(焚祝)–지방과 축문을 태워 나는 재를 향로에 담는다.
17.철찬(撤饌)–차례 상에서 제수를 내린다.
18.음복(飮福)–제수를 나눠 먹으며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
19.철기구(撤器具)–제의기구를 원래 자리에 정리해 둔다.

불교차례의식 보급하는 법현 스님

"차례를 지낼 때 대부분 술을 올립니다. 불교식 차례는 술보다는 차를 올리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차례상에 술을 올리는 가운데 서울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차례상에 차를 올리자고 강조했다. 법현 스님은 1990년부터 불교차례의식을 보급하고 있다. 1997년 천중사에서 제1회 불교식 차례시연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열린선원에서 추석과 설 때 차례를 시연하고 있다.

법현 스님은 "차례가 차(茶)를 올리고 대접한 데 기원을 두고 있는 만큼 본 모습에 맞게 차례를 지내자는 것이다. 술을 금지하고 차만 올리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현 스님은 한국의 전통종교인 불교와 유교가 모두 차례를 중시해온 점이 여러 자료에서 발견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삼국유사>에는 다도의 효시로 알려진 충담 스님이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 미륵세존에게 차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큰 스님들의 제사인 다례(茶禮)에서도 차례의 전통을 찾을 수 있다"며 "차례라는 명칭 자체를 보더라도 차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초의선사의 동다송(東茶頌)보다 300여 년 앞서 차시를 남긴 헌재공 이목 선생이 조상에게 지낸 제사 홀기(笏記)에 '국을 내리고 차를 올렸다'는 내용이 발견되는 등 유교에서도 차례에 차를 썼음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현 스님은 차를 올리는 것이 단순히 전통을 잇는 것 뿐만이 아닌 조상을 추모하는 차례 본연의 의미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차례는 조상의 음덕을 빌고, 추모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차리기에 있어서도 홍동백서나, 조율시이 등의 원칙을 따지기보다는 조상님들이 드시고 싶어 했을 것, 또 후손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먹는 것을 공양 올리고, 순서도 드시기에 편하도록 배열하면 된다. 국산과 외국산도 신선하고 귀한 것, 조상님이 지금 계시다면 드셔봤으면 하고 싶은 것을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삼국유사 "충담 스님 미륵에 차례"
며느리 맞으면 사당에 차 공양

이어 스님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차를 올려야 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차를 대단히 귀하게 여겨서 새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사람됨을 알아보는 데에도 차를 썼다"고 말했다.

스님은 옛 양반집에서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사당에 제사를 지내면서 반드시 며느리가 직접 달인 차를 사당에 올리도록 한 고묘(告廟)를 예로 들며 "예전에 차는 제수 품목에서도 귀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다양한 문화가 자리한 현대에도 고품격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현 스님이 차례상에 올리는 다제기를 설명하며 차례의 미를 강조하고 있다.

스님은 끝으로 추석이 조상의 공덕을 이야기하고 가족들간에 대화를 통해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길 축원했다.

스님은 "설과 추석에 조상님께 고하고 감사하는 의식을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지만 그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하다"며 "조상을 떠올리며 가족을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형편에 맞게 3번 고하고 절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한가위는 미덕과 나눔이 담긴 날

즐거운 한가위의 유래와 민속 놀이

폭염과 수해로 큰 고통을 줬던 지겨운 여름이 갔다.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다. 노랗게 익어 고개 숙인 벼, 빨갛게 익은 사과 등에는 불타는 정열의 여름과 농부의 땀방울의 하모니가 담겨 있다. 가을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나타내는 계절이다. 오곡백과의 수확을 기뻐하는 추석은 조상들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열정이 담긴 날이다.

농사일이 마감돼 가면서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고 온갖 곡식이 풍성한 가운데 추석빔으로 새단장 하고 나니, 사람들 입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른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둥근 보름달이 밤을 대낮같이 밝혀 주는 날. 이 날을 언제부터 한가위라고 불렀을까?

<삼국사기>에서 유리왕 9년조에는 도성을 6부로 나눠 왕녀들이 7월 16일~8월 15일 길쌈을 해 어느 쪽이 많이 삼았는가를 겨뤘다는 기록이 있다. 길쌈 경쟁에서 진 쪽은 이긴 쪽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고, 이 때 노래와 춤과 놀이가 있었고 이것이 '가위'라고 불렸다는 기록이다.

일본 자각 대사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이 같은 가위의 풍속이 오직 신라에만 있다고 적혀 있다. 승려인 자각 대사의 기록은 당시 신라에서 민간 뿐 아니라 사찰에서도 큰 한가위행사를 치러졌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한국 불교는 민속과 전통을 이으며 민중과 함께 해왔다.

추석이면 지방마다 온갖 놀이와 민속이 열린다. 씨름 풍악놀이 줄다리기 그네뛰기 소놀이 거북놀이 버꾸치기 소싸움 닭싸움 원님놀이 가마싸움 등. 이 놀이들에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경기도 · 충청 지방에서는 거북놀이로, 충청 이남 지방에서는 소놀이라 불린 놀이는 실상 그 형태는 같다. 두 사람이 엎드린 위에 멍석을 씌우고 머리와 꼬리를 달아 소처럼 만든다. 이 소를 앞세우고 농악대와 동네 사람들이 마을 부잣집이나 농사가 제일 잘된 집을 찾는다. 대문 앞에서 "소가 배가 고프고 여물이 먹고 싶어 왔으니 주십시오"라고 외치면 주인이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일행을 맞는다. 일행은 술과 음식을 대접 받고 한바탕 농악을 치며 춤추고 논 뒤 다른 집으로 건너간다.

장수의 상징인 거북과 농사에 없어서는 안될 농가의 가장 큰 재산인 소를 통해 조상들은 상대방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했다. 또, 떼지어 몰려다니며 잡신을 쫓아내는 지신밟기를 했다.

부잣집과 농사가 잘된 집만을 찾아갔던 것에서는 부의 분배와 베품의 미덕을 알 수 있다. 가진 자는 부족한 이에게 술과 음식을 나눠주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대가로 마음에서 우러난 축원을 했다.

강강술래는 정월 대보름과 추석날 밝은 밤에 마을의 처자들이 모여 둥근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이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속이기 위해 창안했다는 설도 있으나, 신라 이전인 삼한시대부터 유래했다고도 한다.

목청 좋고 가락이 구성진 사람의 선창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강강술래' 후렴을 부르며 여인들은 애환을 달랬다.

한가위면 아이들도 신났다. 서당이 쉬는 틈을 타 아이들은 원님놀이를 했다. 원님놀이는 학동 가운데 재치 있는 아이를 원님으로 뽑고 다른 학동들은 백성이 돼 원님께 소장을 내고 그 판결을 구하는 놀이이다.

아이들은 이웃마을 아이들과 가마싸움도 했다. 가마싸움은 가마를 끌고 넓은 마당에 나아가 마주보고 달려서 가마끼리 부딪혀 부서지는 편은 지게 되는 경기이다. 가마싸움에게 이긴 편에서는 그 해에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속설이 있었다.

이 외에도 전남 진도에서는 한가위 전날인 음력 8월 14일 아이들이 밭에 가서 자기 나이수 대로 밭고랑을 기는 밭고랑 기기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때에 음식을 마련해서 밭둑에 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고 밭농사도 잘된다고 믿었다.

한편, 중국에는 중추절이란 이름으로 추석과 같은 만월제의 풍속이 있다. 이날 사람들은 달에 제사를 올리며 달을 상징하는 월병을 먹었다.

조동섭 기자

명락사 다문화여성 <추석 차례상 차리기와 예절교육>

"한국의 전통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차례 상 차리기 · 한복 입어보기
예절교육 · 송편 만들기 등 배워

"오른손을 위로 가게 해서 두손을 이마위에 갖다 대세요. 그리고 다리는 아빠다리를 하면서 천천히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면 돼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채 어딘가 어설프게 절을 하는 모습에는 즐거움이 역력하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킥킥 거리는 모습에서 개구쟁이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보인다. 한복을 곱게 입고 절을 하는 이들은 모두 한국에 와 가정을 꾸리고 사는 다문화여성들이다.

서울 명락사(주지 무원)는 9월 13일 명락사 경내 다문화교육관에서 추석을 맞이해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차례상 차리기와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명락빌리지 김남수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현재 한글교육, 사경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지만, 추석을 맞이해 다문화여성들에게 뭔가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여한 다문화여성들은 모두 6명으로 캄보디아, 중국, 조선족인 이었다. 이들은 명락사 신도회, 봉사회, 다도회원들에게 차례 상 차리기, 한복 입어보기, 예절교육, 송편 만들기 등을 배웠다.

우선 행사에 앞서 다문화여성들은 한복을 입는 법과 옷고름 매는법을 배웠다. 대부분 결혼할 당시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 있으나 정확히 한복을 입고 옷고름을 매는법은 알지 못했다.

캄보디아에서 온 리나씨는 "한복이 너무 예쁘다"며 "한복을 처음 입어보고, 옷고름도 처음 매보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만 재밌다"고 말했다.

한복입어보기에 이어 예절연습과 차례교육이 이어졌다. 공수하는 법, 절하는 법, 차례 올리는 법은 좀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다문화여성들은 모두 열심히 설명을 들으며 그대로 따라했다.

중국에서 온 차홍숙씨는 "중국에서는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사라져 아쉬웠는데,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님들께 차례를 올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명락사 다도회장인 이수진씨는 "생각보다 행사에 참여한 여성분들이 성실하게 잘 따라해 주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절하는 법 등은 외국인이 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여성들과 신도들은 모두 함께 둘러앉아 추석의 대표 음식인 송편을 만들었다. 예절교육을 받고, 차례교육을 받을 때는 다소 어색해 하던 여성들도 송편을 만들 때 만큼은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연변에서 온 정혜월씨의 송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이 야무지다"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예쁜 모양이 돋보였다.

다문화여성들과 신도들은 그렇게 송편을 빚으며 모국의 명절, 한국에서 맞는 추석 등에 대해 이야기 꽃을 피웠다.

캄보디아에서 온 이수정씨는 "한국에 온 지 4년이 됐지만 아직 송편을 빚어본 적이 없었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 재미있다"며 "이제 추석을 맞으면 송편과 부치기 등을 만들어 차례 상에 올려봐야겠다"고 말했다.

김남수 사무국장은 "오늘 이렇게 다문화여성들이 한복도 입어보고, 절도 하고, 차례도 지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며 "대부분의 다문화여성들이 직장에 나가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 이은정 기자
사진 = 박재완 기자



▲다문화여성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명락사 신도들과 다문화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작은 손길이 행복 만들어

대오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작은 선행을 가볍게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이를 돕는 작은 손길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추석을 맞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불자들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주길 당부했다.

대오 스님은 "민족 명절인 추석에 불자님들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하지만 한 해의 수확물을 나누는 풍요로운 이때에도 우리 주변에는 배고픔과 외로움 등으로 힘들어 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연기적 존재라고 설한다. 우리는 상호 연관된 인연법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인도해 함께 행복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과 나누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힘들게 들고가는 어르신들을 돕고,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밝게 웃는 마음씀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이날 대오 스님은 '작은 선이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비록 작아도 모이고 모여서 큰 그릇을 채우나니 이 세상의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법구경>의 구절을 예로 들며 작은 실천을 강조했다.

스님은 "작은 힘이라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작아서 어떻게'라는 생각을 버리고 단 몇 백원, 천원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고, 나누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오 스님은 그동안 조계종 100여 복지법인과 800여 산하 기관을 총괄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상임이사를 맡아 복지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스님은 복지활동은 수행과 포교와 전법과 뗄 수 없는 불교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스님은 "나눔은 베풂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그동안 진행된 불교계의 복지사업에 대해 "불자들의 인식 속에는 불교가 현대적 사회복지의 후발주자여서 사회복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불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위보,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을 통해 구휼과 의료구제사업을 실시했고 비록 현대적 사회복지 출발은 다소 늦었다고 하나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6월 창립 15주년을 맞아 만행 캠페인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자비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발원한 바 있다. 만행 캠페인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만행 △국내 · 외 빈곤 결식아동을 위한 만행 △저소득청소년 꿈을 찾아주기 위한 만행 △소외계층 난치병 환아를 위한 만행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만행 △호스피스 활동지원을 위한 만행 △국내외 긴급재난구호를 위한 만행 △불교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만행 등 크게 8가지 사업으로 진행된다. 현재 만행 캠페인에는 한화호텔&리조트에서 현금 2000만원, 성인가요 케이블 방송 아이넷TV에서 1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으며, 익명의 불자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사후 기부를 약속하고 500여 불자들이 후원회원으로 동참하는 등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만행 캠페인에 대해 대오 스님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스님은 "사회에서 불자들이 기부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주상보시를 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적 정서와 가치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행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자비실천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불교 위상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얼마 전 미국의 빌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적인 부자들이 전재산의 50%를 사후에 기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불자님들도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도록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창문 밖 들녘은 황금빛 유혹에 못 이겨 길나선 허접한 허수아비의 움직임마냥 부산하다. 몇 차례 닥친 태풍으로 인한 고향의 부모님들의 시름에도 어느새 가을, 올해도 추석은 찾아왔다. 올 추석 가을 햇살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를 돌보는 것은 어떨까. 나눔으로 마음까지 따듯한 사람들을 만나보자.

불자들 선행 알려 동참 유도

정은숙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



정은숙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에게 믿음직스럽고 푸근한 첫째 딸과 같은 존재다. 노인복지관에서 시작해 노인요양시설 근무로 잔뼈가 굵은 20년 경력의 그녀는 현재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각종의 복지사업을 이끌고 있다.

"어려서 장애가 있어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에 다녔어요. 당시 많은 장애우들 중에 제가 제일 신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며 '나도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닌 남을 도울 수 있구나!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느꼈어요."

그래서일까. 정 사무국장은 20년의 활동 중 스스로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볼 때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불자님들 중에도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정작 보시의 손길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며 "서로 돕는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려면 단순한 보시문화에서 후원 대상자는 물론 후원하는 사람까지 행복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참신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국장은 모금 및 후원 모집의 전문화를 과제로 꼽았다. 정 사무국장은 "후원 모집 등은 단순한 재정적 뒷받침을 얻기 위한 행사가 아닌 선행을 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금 교육 등을 실시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필요에서 진각복지재단은 올해 특별한 만남을 시작했다. 한국보다 고령화 등이 일찍 시작된 일본의 복지법인과의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진각복지재단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만월회'는 매월 만원씩 어려운 이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3658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등 불교계에서 성공적인 후원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긴급복지서비스 '진각복지119'는 지금까지 긴급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134명의 가족 및 개인들에게 471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등 풀뿌리 복지의 전형으로 자리했다. 진각복지재단은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해외 복지법인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다각화하고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정 사무국장은 "현재 일본타카타사업협회와 협약을 맺었으며 명조회 외 2곳 법인과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또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진각사회복지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라며 "고령화에 맞춘 성공사례 등 인력양성과 지역교류의 노하우를 배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기대하는 사회는 어떤 것일까. 정 사무국장은 "지역과 함께하며 더불어 잘 사는 즐거운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런 세상이 올까. 밝게 웃는 정 사무국장의 모습에서 희망이 비쳤다.

노덕현 기자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세요

무원 스님

천태복지재단 상임이사



"동체대비(同體大悲)하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편견을 없애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는 것이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다문화입니다."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다문화의 선구자'라고 말한다. 스님은 2009년 10월 한국에서 오고 갈데없는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명락빌리지를 개원했다. 명락빌리지에는 현재 10여 명의 다문화여성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무원 스님은 이런 다문화가정 이외에도 지역민, 새터민, 노인 복지까지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스님의 이런 나눔의 실천은 이미 30년 동안 이어져 왔다.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예식(禮式)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을 다 갖추려면 좀 귀찮거나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도(道)와 예(禮)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조금 바쁠수록 이를 기본으로 삼아 생활해야만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진정 소중하게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원 스님은 "특히 지금처럼 추석인 대명절에는 이러한 도와 예를 더욱 잘 지켜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은 부모님에 대한 예를 올리고, 효를 실천하는 날이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지내는 이주자들에게 추석은 낯선 타국의 문화이면서도 고향을 그립게 만드는 날이다. 무원 스님은 추석에 가장 기억 남는 일로, 인천 황룡사 주지로 있을 당시를 떠올렸다.

"황룡사에 있을 당시, 추석이 되면 노동 이주자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절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곤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공양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런 것이 진정 한 나라의 문화 속에 녹아드는 것이라 생각해 다문화인들에게 우리의 명절문화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원 스님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쉼터를 설립해 운영한지도 1년 여가 다 됐다. 스님은 "예전에는 도와주고 싶어도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됐다"며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천태지자 대사께서도 의식주를 해결해야 도를 잘 닦을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문화인들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그들과 서로 상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불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무원 스님은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여러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는 행사가 많이 진행되지만 너무 일회성이고, 이벤트성이 짙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작아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고 베풀어야 한다"며 "남의 시선을 끌기위한 도움은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도움이 아니다. 실속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들은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앞으로 다문화가정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후대에 국가지도자나 상위층이 다문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때 자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사안을 받아들일지 생각해볼 문제"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자세와 인식을 요구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불교계에서도 다문화 대안학교를 설립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문화 교육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 교육의 고마움을 느끼면, 자연스레 불교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부처님을 꿈꾸게 된다. 불교가 앞으로 해나갈 진정한 포교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밝혔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민족사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현행원이다

9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조계종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에 도법 스님이 강사로 나섰다.

지난 5년 간 지리산을 출발해 전국을 도보로 순례하며 생명평화의 마음을 탁발한 도법 스님. 현재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귀농운동 등 생명살림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은 이날 청중들과 세 시간 가량 함께 호흡하며 불교의 사유방식과 인드라망의 세계관을 문답형식으로 설명했다.

도법 스님은 공연장을 가득메운 300여 불자 자원봉사자들을 향해 함께 하는 공동체적 삶과 그 삶을 위한 한국불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큰 박수를 받았다.

주제 : 인드라망 무늬와 보현행원
제목 : 세계를, 삶을 어떻게 보고 살 것인가
강사 : 도법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실상사 회주
조계종화쟁위원회 위원장
일시 : 9월 9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도법 스님

붓다, 그는 고통으로부터 해탈한 사람, 탐진치가 소멸되어 열반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는 어떻게 해탈했는가? 연기법(緣起法) 즉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재하게 하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사랑의 법칙인 우주의 보편적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고 궁극의 열반에 도달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 붓다의 가르침은 논리적 정합성을 갖는 단일한 체계의 이론서가 아니고 병에 따른 처방전이기 때문에 병의 수만큼이나 처방도 많다. 하지만 팔만사천 법문을 종합해 그 사유방식의 본질적 핵심을 간단하게 함축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자수(自作自受)'다. 풀어보면 자신이 행위 하는 대로 그 삶이 이루어진다. 자신이 만든 것은 자신이 받는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체적이고 자립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 부모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죽으나 사나, 좋으나 궂으나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야 한다. 아무리 길이 잘 닦여져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가야만 그 길이 자신의 길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이다. 여실지견은 사랑의 법칙을 아는 것이다. 여실지견, 사랑의 법칙대로 실천하는 것, 자비의 길이다.

풀어보면 현실적으로 직면한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리고 그 내용(사랑의 법칙)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삶이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면한 존재의 실상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길을 찾을 수 없다. 왜 그런가? 다른 데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바로 지금 여기 직면한 존재의 실상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왜 그런가? 그 곳에 길이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좀 더 간추려 정리하면, 하나는 주체적인 삶만이 그 삶이 참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 사실과 진실, 즉 직면한 실상에 근거하여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언제나 그대가 직접(自歸依) 법의 길(法歸依)을 가면 그 길을 가는 만큼 해탈 열반이 바로 그대의 삶이 된다는 뜻이다.

매우 단순화시켰지만, 불교의 기본 사유방식에 대해 짚어보았다. 따라서 이제는 그 사유 방식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싶다.

(이어 문답으로 진행)

왜 주제가 인드라망 무늬와 보현행원인가?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하게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삶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현대문명의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이다.

왜 인드라망인가?

-인드라망은 제석천이라는 하늘나라의 궁전에 드리워진 구슬 그물의 이름으로,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이다. 일찍이 화엄의 대가들은 화엄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중중무진연기의 세계(겹겹으로 무궁무진하게 관계 맺어 이루어진 세계)라고 했고, 그 세계관을 비유로 인드라망 세계 또는 존재라고 했다.

직면한 존재의 실상 즉 인드라망 존재를 사실대로 보면 화엄의 세계, 화엄의 삶, 중생의 세계, 중생의 삶 그 어떤 것도 본래부터 만들어져 있지 않다. 다만 모든 가능성의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삶의 주체인 당사자가 어떻게 보고 사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세계요, 삶이다.

색안경을 쓰고 있는 한, 눈먼 상태로 있는 한, 꿈속에 있는 한 천하를 다 돌아보고 온갖 고행을 다 하고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볼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세계이다. 반면 눈을 뜨기만 하면, 색안경을 벗기만 하면, 꿈을 깨기만 하면 지금 바로 보이고 실현되는 세계와 삶이 화엄 즉 인드라망 세계이다.

화엄에서 말하는 존재의 실상은 그 어디에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무엇도 불평등하지 않다. 언제나 서로 따로이면서 함께이고, 모두가 평등하다. 온 우주가 연기법 즉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사랑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 그물이요, 낱낱 존재들도 사랑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그물의 그물코들이다. 한 대지의 연못과 연꽃처럼, 한 몸의 두 손처럼 서로를 존재하게 하고 서로를 빛나게 한다.

화엄 또는 인드라망의 세계와 삶은 중생이니 부처이니, 깨달음이니 미혹이니, 기독교니 불교니 하고 분리, 차별, 갈등, 대립하는 등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관념 이전의 세계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삶이다. 사랑의 법칙에 의한 함께와 따로, 긴장과 협력, 균형과 조화의 삶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세계가 인드라망 세계요, 그 실상을 설명해주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왜 인드라망 세계관을 공부하고 수행하는가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삶이 아니라 지금 바로 소를 타고 피리를 부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다. 분리 고립되어 왜소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자아의 울타리에 갇힌 왜곡된 삶이 아니라 내가 곧 우주요 내가 그대로 부처인 인드라망 존재로 탕탕무애하게 살고자 함이다.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삶과 존재의 존엄성이 빛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함인 것이다. 인드라망 세계관은 누구나 찾아가야 할 현실이요 삶이며, 실현해야 할 현실이요 삶이다.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요 실현하고 누려야 할 세계와 삶이기 때문에 인드라망 사상과 정신을 공부하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색안경을 벗기만 하면 지금이 화엄세계
자업자득 여실지견이 붓다가 가르친 불교
<自業自得> <如實知見>

삶의 문제를 다루는 핵심이 직면한 존재의 실상, 즉 삶의 주체인 사람 또는 자기를 아는 일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화두 즉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존재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인간의 원초적 물음에 대해 인드라망 사유방식으로는 어떤 해답을 내놓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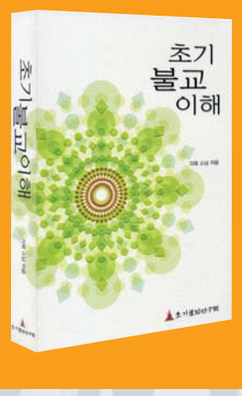
-<불본행집경>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불교서적·음반 도매
불교서점 개설
도서관 납품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초기불교에 대한 개론서이자 본격적인 해설서



초기 불교 이해
각묵 스님 저/신국판/535쪽/
23,000원/초기불전연구원

이 책은,
① 한역 경전이 아닌, 빠알리 『삼장』을 토대로 한 초기불교 개론서이다.
② 빠알리 『경장』에서도 4부 니까야를 토대로 하였다. 부처님의 원음과 직계 제자들의 육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③ 특히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심도 깊게 다룬 경들을 모은 『상윳따니까야』를 중심에 두었다.
④ 초기불교에 대한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라 초기불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본격적인 초기불교 교리서 혹은 초기불교 해설서이다.
⑤ 철저하게 『청정도론』과 『아비달마 길라잡이』와 주석서 문헌들을 의지하여 필자의 주관에만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하버드대 출신의 눈푸른 수행자 현각 스님을
백척간두의 세계로 이끈 스승, 봉철 노선사의
생동감있고 심심미묘한 법문

수개월, 수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스승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소백산 작은 암자에서 매일 아침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참선을 하였습니다. 봉철 큰스님은 정말이지 수행을 위해 나를 절벽 끝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큰스님께선 '좋다, 나쁘다' '성스럽다, 속되다' '맞다, 틀리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 라는 나의 차별심에 대해 참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봉철 큰스님의 가르침과 신행信行, 그리고 본분사本分事에 대해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현각 스님)

노선사가 들려주는
불법의 정수와 대자유인의 삶

극락도 불태워 버려라
김상백 엮고 씀/사룩판양장
252쪽/9,500원/운주사



단순·소박할 때 자유롭고 행복한 삶 실현돼


도법 스님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을 가득메운 300여 불자 자원봉사자들을 향해 함께 하는 공동체적 삶과 그 삶을 위한 한국불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큰 박수를 받았다.

天下唯我獨尊)'이라고 했고,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 존재(因陀羅網存在)'라고 했으며, 선불교에서는 '본래부처(本來佛)'라고 했다. 불교는 병에 따라 처방을 하는 사유 방식이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용하는 개념과 의미도 유아독존, 인드라망, 본래부처 등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의 기본 맥락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생명의 존재인 내가 유아독존의 존재, 인드라망 존재, 본래부처의 존재라면 그 존재는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일반적으로 내 생명은 내 안에 따로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내 생명이 내 안에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기존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우리들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믿음은 내 생명의 실상에 근거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극단의 견해로 한낱 망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 생명이 내 밖에 따로 있단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만일 우리가 기존의 사고와는 반대로 내 생명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 생명의 실상과는 무관한 극단의 견해로 한낱 망상일 뿐이다.

내 생명이 어디엔가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실상과 삶을 왜곡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극단의 견해로 한낱 전도몽상(顚倒夢想)일 뿐이다.

지금 여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붓다는 "유아독존이면 유아독존으로 유아독존답게 살면 된다"라고 했다. 인드라망 존재, 본래부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대답은 다르지 않다.

유아독존으로 유아독존답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에서는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화엄경>에서는 '보현행원(普賢行願)', 선불교에서는 '행역선 좌역선(行亦禪 坐亦禪)' 또는 '대무심행(大無心行)'이라고 했다.

풀어보면, "뭇 생명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전 존재를 바쳐 노력하겠다" "뭇 생명들을 내 생명처럼 잘 섬기고 모시는 삶에 나의 전 존재를 바치겠다" "움직일 때에도 대자대비의 본래부처로 움직이고, 앉을 때에도 대자대비의 본래부처로 앉는 대무심행의 삶을 사는데 전심전력하겠다"이다.

그 가운데에서 본래부처행인 보현십대행원을 간단히 간추려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한 가지,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원래 부처님이라는 인격적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선 '인드라망 존재'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표현했음을 밝힌다.

첫째, 모든 인드라망 존재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둘째, 모든 인드라망 존재를 칭찬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인드라망 존재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넷째, 모든 인드라망 존재에 대한 무지, 무례의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인드라망 존재의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인드라망 법의 수레 굴리기를 간청하겠습니다.
일곱째, 모든 인드라망 존재가 세상에 온전히 머물기를 청하겠습니다.
여덟째, 모든 인드라망 존재를 따라 배우겠습니다.
아홉째, 모든 인드라망 존재에 수순하겠습니다.
열 번째, 모든 인드라망 존재에 회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한다면 본래부처행으로 보현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더 추구하고 얻고 이루고 소유하려고 하는 구하는 마음 즉 조건 없이 또는 무주상으로 온 힘을 다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도록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만큼 즉시에 본래부처가 현전하게 되고, 궁극의 해탈 자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본래부처로 당당하게,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정체성에 충실하게 주체적으로 단순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본래부터 있는, 본래부터 그러한 우주의 존재 법칙과 질서요, 생명의 보편적 진리 즉 다르마의 길이기 때문이다. 또는 본래부터 저절로 주어진 천부의 권리이고 의무이며, 뭇 생명이 살고 싶은 삶이기 때문이다. 단순 소박한 인생, 단순 소박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인간 사회의 갈등과 대립, 고통과 불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처와 중생의 벽, 깨달음과 미혹의 벽, 성차별의 벽, 국가와 민족의 벽, 이념의 벽, 종교의 벽, 이해타산의 벽 등을 넘어 뭇 생명의 염원인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게 되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와 애정의 생활화·사회화가 해답
화엄은 오늘의 불교가 갈 길 시원하게 보여줘

유아독존답게 무한한 자부심으로 기꺼이 죽을힘을 다해 무주상으로 낮춤, 비움, 나눔의 삶을 산다. 본래부처답게 기꺼이 죽을힘을 다해 무주상으로 존중, 배려, 감사의 삶을 산다. 즉 죽을 힘을 다해 주체적으로 다르마의 길, 본래부처의 삶인 단순 소박한 인생, 단순 소박한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뭇 생명의 영원한 바람인 열반의 삶이 바로 내 삶이 된다. 인류의 영원한 꿈인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실현된다. 자타가 함께 성불하는 길이 열린다.

오늘 우리가 이룩하고 누리는 인류 문명의 어머니 품은 자연이다. 자연은 위기에 직면한 현대 문명의 구세주이다. 숲이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강한 설득력을 갖는 시대이다. 도시화, 기계화, 자본화된 사회일수록 자연, 숲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숲의 종교인 불교, 산중불교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불교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역으로 보면 사막의 종교 시대가 가고 숲의 종교인 불교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무방할 터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한국불교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다고 하겠다.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혁명적인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그 하나로 새로운 대승불교, 새로운 산중불교 운동이 요구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화엄은 오늘의 불교가, 불교인이, 출가보살, 재가 보살이 갈 길을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다.

화엄 사상의 핵심은 본래부처론이다. 본래부처론의 활발발한 주체적 실천론이 대무심행이라면 역동적인 관계적 실천론이 보현행이다. 그 내용을 평범한 인간적 일상으로 가져와 정리해보면 그물의 그물코 존재답게 온 힘을 다해 관계 맺어진 상호간의 신뢰와 애정으로 삶을 가꾸어내는 것이다. 신뢰와 애정의 정신으로 단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공동체 삶이라고 하고, 그 정신에 따라 사회를 만들고 운영하면 그 사회를 우리는 공동체 마을 또는 사회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인간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상호간의 신뢰와 애정의 회복 또는 신뢰와 애정의 생활화, 사회화인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지리산 현장에서 상호간의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화엄의 꿈, 우리의 꿈을 '지리산 불교'로 가꾸어 간다면 분명 그 곳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활로로 지리산 불교를 모색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판단이다.

정리=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법은 광대한 보리심과 심대한 지혜 다룹니다”

몬순이 끝나가는 8월의 끝자락, 북인도 산간 마을 다람살라에 대승의 법을 구하는 한국인 불자 400여 명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텐진 갸초)를 찾았다. 남걀사원에서 8월 28~30일 〈금강경〉을 주제로 열린 한국인 법회는 올해로 10회를 맞는다.

한국식 예불로 법회를 시작하며 티베트어 〈반야심경〉과 〈현관장엄론〉의 반야바라밀 경구에 이어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중론〉의 귀경게를 읊었다. 이번 법회 주제 〈금강경〉은 인도 나란다 출신의 까말라실라의 반야경 주석서를 저본으로 했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가 다시 모여 법을 열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법회 이후 긍정적인 마음의 발전이 어느 정도 있었기를 바란다”며 한국 불자들에게 반가움을 표하고 “〈반야심경〉의 ‘아제 아제바라아제’와 같이 우리는 나날이 점차 진보해 가고 있다”고 대중들을 격려했다.

달라이 라마는 10년째 법회를 주관해 온 진옥 스님(여수 석천사 주지)과의 자리에서 “한국과 티베트 망명 정부 간의 불법 교류가 해를 거듭할수록 미약하게나마 돈독해지는 것에 감사한다. 그 속도가 느린 감이 있지만 교류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라며 특유의 웃음을 보였다. 다음은 법문 요지.


여수 옥천사 주지 진옥 스님(오른쪽)의 손을 잡고 법회장에 입장하는 달라이 라마. 한국 불자들을 위한 법회는 올해로 10회째다.

자애심 염리심으로 해탈 구하세요

<厭離心>

오늘 설법할 주제는 반야경의 핵심을 축약한 <금강경>입니다. 이는 티베트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도 널리 독송되는 경전입니다. 그러나 방대한 500권 반야경은 티베트어로 번역돼지 못했습니다.

반야경의 수많은 해설서와 주석서 가운데는 미륵보살이 지으신 <현관장엄론>이 있습니다. 현관의 차제를 70가지 의미로 분석해, 공성의 바탕 가운데 5온 18계 16처 5위 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착 보살의 주석서와 나란다의 수많은 선지식의 주석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기인해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이는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각각의 감정을 만듭니다. 오근에 의지한 행복의 감정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인 감각에 의지하지 않은 행복도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경쟁심 자신에 대한 특별한 질투심과 아만 같은 것은 바깥의 아름다운 대상에 대한 지나친 탐착과 혐오하는 마음을 통해 표출됩니다.

인간의 행불행의 가치와 강도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은 인간이 지닌 이성적 힘인 사고력이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불행히 만드는 그 원인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질투 자만 아만이 마음의 평화를 깨 불행을 파생시킵니다. 우리에게 지나친 질투나 의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공포와 두려움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불행을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자애심,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는 불과 3000년 전부터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철학이 생겨났습니다.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나’라는 것에 태초라는 시작이 있는가. 이런 ‘나’의 마지막이 있는가.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에 의지해 가립(假立)된 ‘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나’의 생물학적 시작인 부모에 의한 수정체로 거슬러 올라 그 흐름을 보면 수천만억 년 전에 지구의 생성시기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빅뱅(우주 대폭발) 그 이전, 우주 물질 존재의 가립에 도달해도, 그 근원으로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렇듯 태초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착 보살은 “지금 현재의 대상들이 변화하는 무상한 결과물이라면 그 원인 역시도 무상하다”고 논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인 ‘나’라는 가립하는 것과 상응하는 것을 통해 현재 의식이 존재하고 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유인’이 될지언정 본질인 ‘근치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된 지견은 끊길 수 있습니다. 이는 대치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서 끊기지만 본래 존재하는 청정은 적수가 될 만한 조건과 원인들이 존재치 않기 때문에 그 의식들은 계속 유지 존속됩니다. 번뇌나 전도된 지견은 대치법에 의해 소멸될 수 있으나 고유의 청정함은 유지 존속되며 자아는 가립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또한 없습니다.

“발심으로 인해 바로 보리를 이루네. 70가지의 의미를 밝힘에 있어 그 중심이 바로 보리심이라네.”

반야경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로 함축됩니다. 방편의 보리심과 그 뜻을 드러내 밝힘으로서 심온한 공성과 보리심이 그것입니다. 선취에 태어나 해탈을 구하는 바가 바로 번뇌로 벗어난 해탈과 성불의 지혜입니다 일체 종지는 보리심이 선행되고 그 이전에는 이상적인 극락 세계에 갈 것을 갈망하는 염리심(厭離心)이라는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합니다. 윤회에서의 고통을 원치 않는 마음을 염리심이라고 합니다. 붓다는 이러한 고통을 수반하는 번뇌와 윤회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고 사성제에서 처음 밝히셨습니다.

염리심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그 고통을 인식하고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타인들도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기에 그들을 함께 해탈로 이끌어야겠다는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은 일체 종지를 이루기 이전에 선행되는 마음입니다. 이후의 육바라밀과 지관쌍수의 수행 역시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보살의 학처입니다.

붓다의 법은 광대한 보리심과 심대한 지혜를 다룹니다. 공성의 지혜란 공성을 인식하고 이해를 통해 확신에 이르러야만 지혜를 이루기에 불교 수행자는 공성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실상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궁극의 원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리심과 공의 지혜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탐착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에 각기 본래 그러한 성질이 있을까요. 있다면 모든 이가 그 대상에 대해 한 가지 생각을 일으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각기 다르게 일어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상 그 자체에 대한 반응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은 대상 그 자체에서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맞물려서 감정이 발생하는 것이며 절대 나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은 번뇌의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어 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무아 사상이 남과 타인이라는 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때는 모르는 소리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나의 상대적인 남은 존재합니다. 남을 떠올려 의식하는 대로 현현하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무아입니다.

반야경은 보리심과 공성(무아)의 지견을 통해 나라고 하는 독립된 실질적인 존재성을 바로 해석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때 우리가 말하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지워갈 수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실상에 대해 무지하고 바깥의 실상 역시 무지하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나에 대한 무지와 제법에 대한 무지의 실상에 대해 바로 안다면 그로 인한 문제들은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비롯한 제법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고정된 실재가 존재치 않고 문자적 언어적으로 이름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법에 실체 없음을 안다면 진실은 분명하고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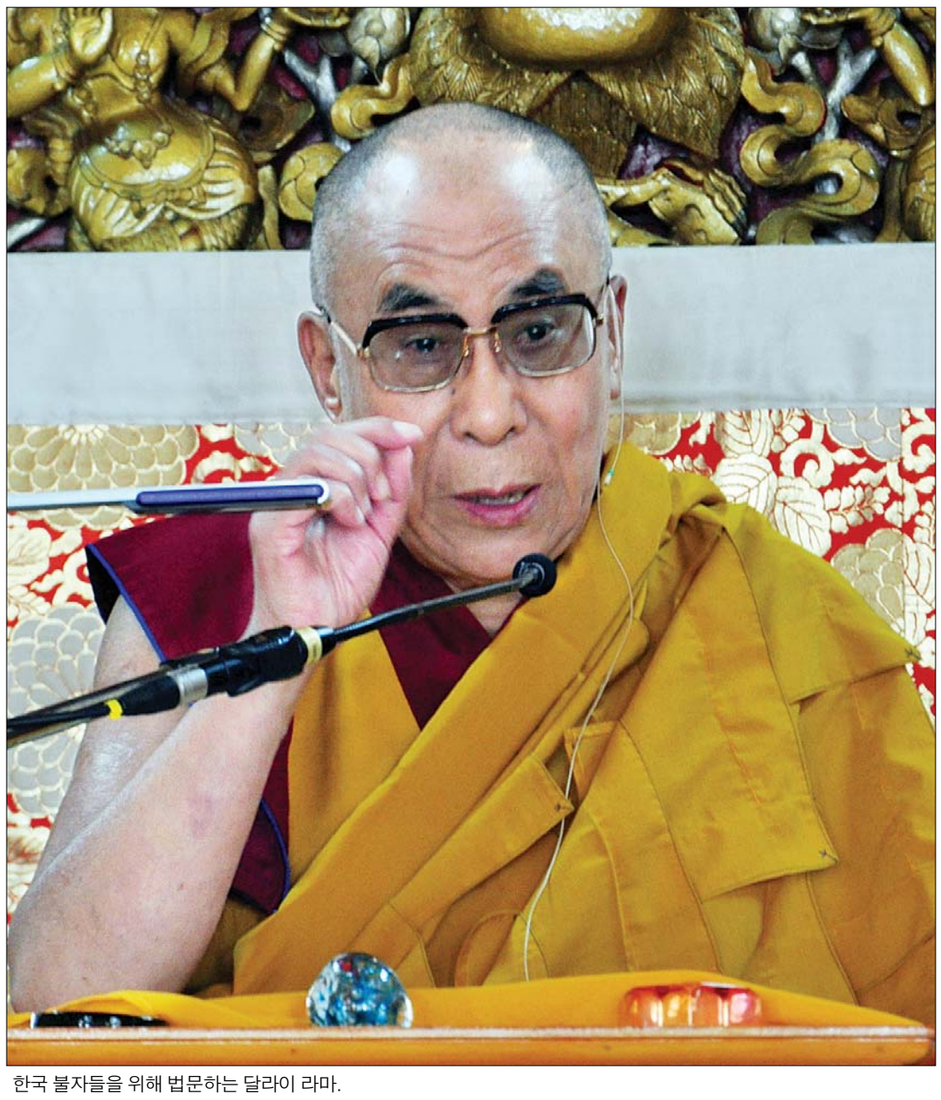
사의 듣고 배우는 수행에 있어서 배움과 실제 수행이 사문이 해야할 바임을 행장으로서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시 많은 비구들이 세존의 발에 정례하는 대중 가운데 수보리가 있었습니다.

보살승에 바르게 머물기 위한 해답으로 붓다는 보살의 18주처를 설합니다. 까말라실라의 주석서는 머무는 가운데 역경을 없애고 자량(資糧)을 쌓아가는 길로써 보살의 18주처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량도와 가행도(加行道) 두 가지 의미를 다룬 후에 견도와 수도에 포함되는 10가지의 보살 지위를 다룹니다.

붓다는 진리의 답으로 보리심의 방편과 공사상의 두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 무주처열반을 이룰 때 이러한 진리로서 이룹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붓다께서 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보리심과 공성 수행을 통해 여러분도 부촉하시기를 발원합니다.

허공과 같은 중생을 모두 불지에 이끌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의 보리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내십시오. 보살은 중생에게 보여지는 몸으로서 색신을 구합니다. 이 또한 구족함이 없는

> “
> 붓다께서 비구승의
> 일상을 보인 이유는
> 정념에 머무는 삼매수행
> 듣고 배우는 수행이
> 사문이 할 바임을
>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 • • •
> 붓다는 진리의 답으로
> 보리심의 방편과
> 공사상의 두 진리를
> 설하셨습니다.
> ”


한국 불자들을 위해 법문하는 달라이 라마.

꿈 · 번개 · 구름은 과거 · 현재 · 미래의 삼세 비유
과거는 무존재, 번개는 찰나, 구름은 흐르는 것

반야바라밀은 지혜를 수반한 신심을 근본으로 합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피안에 도달함을 의미합니다. 도피안은 두 가지로 해석해 어떠한 결과물로서 도달하는 곳으로서의 피안과 그 피안의 이득이라고 하는 길(道)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움의 문을 통해서 비량(比量)을 인식하고 지속을 통해 지혜가 일어나면 문 · 사 · 수(聞思修) 가운데 사해(思解)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비량이 일어나 지혜를 가져오는 것을 사해라고 합니다. 사유를 통한 지혜와 확신의 대상들에 습관이 들면 굳건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의 과정을 수해(修解)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건이 가능케 되는 씨앗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통해 보리심과 자비심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평범한 범부의 마음이 더 수승하고 심오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범부를 통해 진리를 보게 된다면 그를 바로 성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몽매한 장애들의 습기인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을 모두 부수는 것이 공성의 지혜이기에 능단(能斷)이라고 합니다. 반야는 지혜로서 진제(眞諦)의 보리심으로 속제(俗諦)의 보리심이 뒷받침된 승의 보리심이다. 진제의 보리심이 바로 지혜반야바라밀입니다.

붓다께서 비구의 모습을 하고 일반적인 비구승의 일상을 보인 이유는, 정념에 머무는 삼매 수행과 문

것은 이름만으로 존재함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밤에 바라보는 별무리가 낮에는 빛나지 않다가 태양이 없을 때 존재를 드러내듯이 무명의 습기에 젖어 있을 때는 그 무명의 암흑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 보입니다. 진제를 깨달아 선정의 지혜가 떠오를 때 희론은 적멸합니다.

저쪽 편에 존재하는 실체가 없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병이 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속제 입장에서 존재 여부를 분별하듯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해 없이 심지와 기름이 조건의 의지해야 밝혀지듯이, 장애로 인해 희비를 간택할 뿐 실체는 없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환영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을 만듭니다. 텔레비전이 환영임을 알고 보는 것과 같이, 환상과 환영의 대상에 어떻게 신심을 내야 하는가 물을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로 인한 지견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무아의 지견인 신심과 자비심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이슬은 무상이며 물거품은 고통을 본질로 합니다. 꿈, 번개, 구름 이 세 가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비유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존재하지 않으며 번개는 찰나적으로 존재합니다. 구름은 스스로 어디로 갈 것인지 확정된 바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도 다람살라=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buddhapia.com

자전거 도둑이 행복까지 훔쳐갔어요

용감한 형제



〈삽화=스튜디오 돌〉

추석을 맞아 이현이와 다현이는 선물로 자전거를 받기로 했어요. 가족이 다 같이 가게로 가서 자전거를 골랐지요. 다현이에게는 중고자전거를 사주기로 했어요. 다현이는 보조바퀴가 달린 것을 타다가 그걸 떼고는 처음 타는 거예요. 그러니 중고자전거로 연습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전거 상점 주인아저씨가 다현이 걸로 무척 비싸고 좋은 걸 권했어요. 다현이도 그 자전거가 맘에 든다며 꼭 그걸 사겠다고 하고요. 망설이던 엄마도 다현이가 애교떨며 조르니 그만 마음이 돌아섰어요. 아빠는 물론 다현이 편이었구요.

"중고로 연습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현이만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들리지 않나 봐요. 다현이 자전거를 결정한 다음에야 이현이 자전거를 골랐어요. 이현이 것도 작년에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비싼 걸로 샀어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빠는 다현이를 잡아주고 엄마는 뒤에서 잘 탄다고 박수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이현이는 잃어버린 자전거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자전거를 처음 샀을 때 아빠가 학교 운동장에서 잡아주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었는데…. 자전거를 도둑맞으면서 자기의 행복도 몽땅 도둑맞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태권도 학원에서 갑자기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라고 편지지를 나눠줬어요. 관장님은 가끔 귀찮은 일을 시켜요. 지난번 어버이날도 썼는데, 추석이라고 또 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이들이 안 쓰려고 하자 관장님이 솔직하게 쓰면 된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이현이는 짤막하게 썼어요.

저녁 때 퇴근한 엄마한테 다현이가 사과 두 알을 꺼냈어요. 편지랑 함께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좋아하는 사과를 샀대요.

'나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뻐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이다음에 꼭 갚을게요. 사랑해요.'

"어이구, 글씨도 죄다 틀렸네."

"왜 남의 편지를 보고 난리야. 형은 편지라도 썼어?"

엄마가 이현이를 쳐다보네요. 이현이는 마지못해 편지를 꺼냅니다.

'엄마 아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 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길러주셔서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편지를 보고 엄마가 눈을 빠르게 깜빡깜빡했어요. 화가 나는데 참을 때 하는 행동이지요. 이현이는 조금 후회가 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편지에 싸인 받아오래요."

엄마는 다현이 편지에는 싸인을 해주더니 이현이 편지는 계속 뚫어져라 쳐다만 봐요.

이현이는 싸인 받는 걸 포기하고 방에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요즘에 좋은 건 이것 밖에 없어요. 닌텐도 게임기를 그렇게 사달라고 졸라도 들은 척도 안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더니 3만원이나 나온 거예요. 결국 엄청 혼나고 두 달 치 용돈을 합해 물어내야 했어요. 닌텐도도 안사주고 휴대폰도 안사주면서, 도대체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구두구두구, 게임 안에서 전사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 때 문이 열리더니 다현이가 쏙 들어왔어요.

"형아, 내가 엄마 선물로 사준 사과 무쟈게 맛있다. 하나 먹어봐."

그러면서 이현이에게 깎은 사과 접시를 내밀었어요. 순간 이현이는 화가 치밀었어요.

"너 나 약 올리는 거냐?"

이현이가 사과 한 쪽을 잡아채서 집어던졌어요.

"왜 그래?"

"너나 많이 처먹어라."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자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둘 다 나와."

다현이도 세게 맞았지만 제가 더 세게 맞았어요. 아무래도 아까 준 편지 때문인 것 같아요. 이현이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엄마한테는 선물이야!"

이현이는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지요. 다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조금 생겼어요. 그렇지만 화는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짜증이 났어요. 짜증은 안개처럼 점점 퍼지더니 세상을 다 덮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싫어졌어요.

이현이는 이불을 얼굴까지 푹 쓰고 잠이 들었어요.

조금 뒤에 문이 살짝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현이의 빨갛게 부어오른 손바닥을 붙들고 곁에 앉았어요.

"이현이는 사춘기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건데…. 이해해줘야 하는데…. 미안해, 정말."

다현이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이 깼어요. 이층침대의 위쪽을 쓰는 다현이는 고개를 쑥 빼서 아래쪽의 형아를 쳐다보았어요. 이현이가 심각한 분위기로 침대 사다리를 손가락으로 튕기고 있었어요.

왜 형이 저렇게 똥폼을 잡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보면 '네가 무슨 상관이냐' 고 난리를 칠 것 같아서 참았지요.

다현이가 식탁에 앉자 엄마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형아, 어제 일 때문에 화난 것 같지?"

다현이는 어제의 일이 뭔지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어제 내가 엄마한테 사과와 편지를 선물했고,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를 꼬옥 안아주면 참 좋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따듯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아는 왜 화가 난 거지?

그런 다현이를 보고 엄마가 웃었어요.

"어쩜 형제가 이렇게 다를까. 한 놈은 너무 예민해서 문제, 또 한 놈은 저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것은 다 잊어버려서 문제."

아 맞아. 형하고 싸워서 엄마한테 손바닥을 맞았지요. 그런데 어제 일을 왜 아침까지 기억해서 화를 내는 걸까요?

이현이는 제일 좋아하는 청국장찌개도 안 먹고 학교에 갔어요.

다현이도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밥을 조금만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벼 먹다보니 맛있어서 한 그릇을 싹 비웠어요.

이현이가 먼저 학교에 가서 다현이도 혼자서 학교에 가요. 아침마다 밥 한 그릇씩 꼭 해치우는 뚱땡이 형아가 밥을 안 먹었으니 얼마나 배고플까, 좀 걱정이 됐어요. 주머니에서 막대사탕 하나가 나왔어요. 이거라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현이는 할 수 없이 사탕을 제 입에 넣었어요. 와, 끝내주는 딸기 맛이에요. 사탕이 혀에서 녹듯이 다현이가 형을 걱정하는 마음도 금세 녹아서 없어져버렸어요.

다현이는 형이랑 같은 시간에 태권도를 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품띠가 다르니 수업은 서로 다른 층에서 해요. 다현이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후다닥 뛰어나가 형을 기다렸어요. 느릿느릿 나오던 이현이가 동생을 본척만척 하고는 걸어갔어요. 그런데 작업실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형아, 어디 가는 거야?"

이현이가 휙 돌아보았어요.

"오늘 형아는 집에 안 들어 갈 거다."

"밤에까지? 그럼 어디서 잘 건데?"

이현이는 어깨를 위로 스윽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근데 형아, 왜 집에 안 가는 건데?"

"엄마가 어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형아, 어디로 갈 거야?"

다현이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 해졌어요. 어디 재밌는 데로 가면 따라갈 생각이었지요.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러니까 넌 얼른 작업실로 가."

이현이가 성큼성큼 저만큼 걸어가 버렸어요. 치사해서 안 따라가겠다고 생각한 다현이는 막 뛰어서 아빠의 작업실로 갔어요. 아빠는 두 명의 후배와 만화작업실에서 일을 해요. 엄마의 퇴근이 늦어서 아이들은 주로 삼촌들과 아빠와 같이 저녁을 먹어요.

"아빠, 큰일 났어. 형아가 말이야. 오늘 집에 안 들어온대."

다현이는 아빠가 충격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이렇게만 물어보네요.

"잘 데는 있대?"

"잘 몰라. 혹시 모르니까 승준이 형아네 집에 전화 한번 해 봐."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아빠는 걱정도 안 되는지 천하태평이에요.

저녁을 다 먹었는데도 이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

☞36면으로 계속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최고의 선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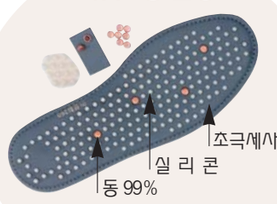


K 샌달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4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검정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지압 · 동 깔창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지압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 (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우리는 용감한 형제~ 누가 우리를 막을 쏘냐~♬

☞35면에서 계속

요. 다현이는 시계를 볼 줄도 모르면서 눈이 자꾸 시계로 갔어요. 째깍째깍, 긴 바늘이 1에서 2로 가고 3으로 가고 잘도 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현이가 들어왔어요. 다현이는 눈을 비비며 진짜 형인지 살펴봤어요.

아빠가 주걱을 들고 밥을 푸려고 했어요.

"저 배고프지 않아요."

"형아, 오늘 아침에도 밥 안 먹었잖아."

아빠는 그제야 걱정이 되는지 이현이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웬일이야? 우리 뚱땡이 큰아들이 어디 아픈가?"

이현이가 화를 버럭 냈어요.

"맨날 뚱땡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들 정말이지…. 에잇."

아빠는 이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엄마가 너한테 심하게 대한 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던데…."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저를 좀 그냥 두세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다현이가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였어요. 왜 아무도 집에 안 오느냐고 엄마가 물었어요. 다현이는 갑자기 엄마한테 화가 났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가 물었어요.

"어제 엄마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

입에서 말이 저절로 그렇게 나왔어요. 아빠가 수화기를 빼앗았어요.

"괜찮아. 별일 아냐. 올 필요 없어. 내가 곧 갈게."

삼촌이 둘이나 있으니까 아빠는 안심하고 '창문 잘 닫고 자라' 하고는 집으로 갔어요.

아빠가 나가자 이현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밥에 카레를 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더니 얼굴을 처박고 먹었어요.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이현이가 다현이를 보고 물었어요.

"너는 왜 집에 안 갔냐?"

"그러게 말야. 지금이라도 갈까?"

밖은 깜깜했어요. 무섭긴 하지만 왠지 엄마한테 미안해서 가야할 것만 같았어요. 다현이가 신발을 신는데 이현이가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너도 오늘은 여기서 자자."

어쩐지 형의 눈빛이 전과는 다른 것 같았어요.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둘은 사이좋게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밖에서 삼촌들이 맥주를 마시다가 먹으라고 오징어를 가져다 줬어요. 몇 개 집어먹었지만 둘 다 입맛이 나지 않아서 옆에 그냥 뒀어요.

"그래도 형아, 이 안 닦고 자니까 되게 좋다. 그치?"

"뭐, 쫌…. 좋긴 하지."



〈삽화=스튜디오 돌〉

"내일도 여기서 잘 거야?"

"글쎄, 우리 땜에 현무삼촌이 거실에서 자는 게 미안하니까 내일은 여기서도 못 자겠지."

"근데 형아, 안 들어온다더니 왜 들어왔어?"

"승준이네 집에 가서 놀다가 걔네 아빠가 와서 나왔거든. 그냥 막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다리가 아파서 PC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상한 형들이 잔뜩 있었어. 중학생인 것 같은데 담배 피고 막 욕하는 형들 있잖아. 무서워서 그냥 나왔어. 그러니까 진짜 갈 데가 없더라구."

깜깜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형아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조금 섞인 것 같았어요.

"내일은 엄마가 데리러 오겠지 뭐. 어쩌면 엄마가 잘못했다고 사과할지도 몰라. 형아, 그러면 우리,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자."

"맛있는 거, 뭐?"

"글쎄, 갈비 먹으러 가자고 할까?"

"그건 우리만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도 좋아하는 데로 가자. 우동집이나 초밥집 같은 데로."

"초밥? 그래. 나 요새 초밥 무지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럼 거기로 가자."

둘은 모처럼 뜻이 통했어요. 사이좋게 잠자리에 든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둘은 기분 좋은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방안은 이현이의 코고는 소리와 다현이의 쌕쌕거리는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덥다며 꽉 닫지 않은 창문에 검은 그림자가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찢어진 방충망이 벌어지니까 그림자가 폴짝 뛰어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파랗게 빛났어요. 그 눈빛이 점점 다현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꿈에서 형과 사이좋게 축구를 하던 다현이가 발을 힘차게 뻗었어요. 꿈에서는 골인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벽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깍' 하는 비명과 함께.

다현이는 발에 물컹하게 채인 느낌과 비명소리에 놀라 눈을 떴어요.

"으악, 귀신이다."

다현이의 눈에는 파란 빛 두 개만 보였어요. 다현이는 손을 마구 휘저었고 이현이도 놀라서 깨었어요. 그 놈은 뒤로 물러났지만 쉭쉭하는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다현이가 벌떡 일어나 태권도 자세를 취했어요. 이현이도 일어나 그 놈을 향해 발길질을 했어요. 둘은 소리를 지르며 공격을 했지요.

그때 삼촌들이 들어와 불을 켰어요. 그 바람에 후다닥, 그 놈이 뛰쳐나갔어요.

"앗, 도둑고양이잖아. 너희, 창문을 안 닫고 잤구나."

어젯밤에 먹다 남은 오징어를 먹으려고 도둑고양이가 들어왔던 거래요.

이현이가 쫓아나가서 아직 도망가지 못하고 거실에서 웅크리고 있는 도둑고양이를 발로 뻥 찼어요. 삼촌이 얼른 문을 열어 고양이를 내쫓았어요.

"뭐 저런 미친 고양이가 다 있어?"

이현이는 동생에게 미안했어요. 집에서 잤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지요.

아침이 되었어요.

"형아, 삼촌들 자는데 아침은 어떡하지? 집에 갈까?"

이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대로 집에 가면 엄마가 받아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들어왔어요. 자전거에 타라고 할 때까지 이현이는 마지못해 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에서는 두부가 많이 들어간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다현이가 뛰어가서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 나 많이 보고 싶었지?"

"응,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가 이현이도 꼭 안아줬어요. 이현이는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한 마디 했어요.

"어이구.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없네그려."

"아빠는 꼭 분위기를 깬다니까."

"글쎄 말이다. 아빠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지?"

"그래서 아빠 별명이 썰렁맨이지요."

셋이서 한꺼번에 아빠를 공격했어요.

"허허. 어제 저녁에는 서로 원수처럼 굴더니 오늘은 똘똘 뭉쳐 나를 왕따 시키네."

모처럼 집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밥을 먹으며 "밤새 별 일 없었지?" 엄마가 묻자 이현이가 다현이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럼, 우린 이제 다 컸다고요."

큰소리로 대답하고는 다현이가 형을 향해 눈을 찡끗해요.

이현이는 동생이 처음으로 의젓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에 이현이와 다현이는 한가위 달님을 보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현이가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슬며시 다현이에게 내밀었어요.

"와, 이거 웬 거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달콤한 초콜릿을 받자 다현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또 엉터리 노래를 불렀어요.

이현이와 다현이가 나가신다.
똥개도 고양이도 길을 비켜라.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형제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으랴.

평소 같으면 '그게 노래냐?'라고 구박할 텐데 이현이도 오늘은 흥얼거리며 같이 불러요.

"우리는 용감한 형제, 누가 우리를 막을 쏘냐~~"

노랫소리가 동네를 가득 채웠어요.

하늘에 둥실 떠있는 달님도 빙그레 용감한 형제를 보고 미소 짓네요.



박선영 / 동화작가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절집 개 곰순이〉로 당선됐고, 지은 책으로 〈정말 멋져. 누가?〉 〈물도깨비의 눈물〉 〈왜 석가모니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을까?(공저)〉가 있다.

능인향당 www.nihwa.com
순수원향을 지향하는 고품격 향의 명가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동안 능인향당의 침향제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능인향당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침향 전반에 관한 문의를 해주십시오.
늘 그렇듯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준비한 침향에 대한 것을 침향전시관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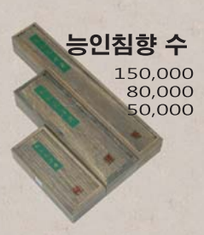
견지동 조계사 맞은편 능인향당 침향전시관







프리미엄 침향 제품군


능인침향 수
150,000
80,000
50,000
프리미엄 침향에 인도 마이소르산 최상급 백단을 더하여 향의 품격을 한껏 올린 새로운 향


침향적정
300,000
150,000
80,000
프리미엄 침향에 불가의 오단향인 진자단향을 더한 명상과 기도용 향의 수작


침향
600,000
300,000
150,000
80,000
능인향당 향 법제기술의 총아, 프리미엄 자연산 순수 침향100%로 만든 침향제품의 명작

능인향당에서 준비한 최고의 공양물


침향 108주


침향 합장주


침향왕단주


침향 1000주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직영매장 : 02)730-6888(조계사맞은편), 인사점(통인가게입구)

爐香觀空法圖 -金弘道